

기획연구과제 2020-15-법인-다  
(연구기간: 2020.12.15.~2021.06.15)

# 대학원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의 반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Graduate Students)

2021. 07. 15.



한성림

본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기된 의견이나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의 반영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 07. 15

연구책임자 한성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참여연구원 손정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신성호 (국제대학원)  
오유경 (약학대학 제약학과)  
윤혜정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연구보조원 이가영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요약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대학원생의 교육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원 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학원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위한 학업 뿐만 아니라 연구로 인해 장시간 학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의 정책이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교, 연구원, 근로장학생 등 학생 이외의 다양한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형태나 요인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내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들과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미해결된 정책과제들은 무엇이며 그동안 주요한 정책과제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정책연구를 이슈별로 정리하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정책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2004년 이후의 기획연구과제 19개, 2012년 이후의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64개, 서울대학교 포털 행정정보(보고서 등)에서 검색 가능한 보고서 목록을 확인하여 대학원생 특정 연구 또는 대학원생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공통 연구를 파악하고 선별하여 총 27개 과제를 검토하였다. 과제는 이슈별로는 교육, 연구,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여성, 장애인, 외국인 학생, 인권 분야로 구분하였다. <III. 선행연구 보고서의 개요> 부분에는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 중 대학원생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으며, 정책반영 여부를 학내 담당 기관에 요청하여 <IV. 선행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현황>에 정리하였으며, 결과를 이슈별로 요약하고 주로 부분 반영 및 미반영된 정책 중심으로의 제언을 <V. 요약 및 제언>에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VI. 정책과제 제안내용의 반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내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 정책과제의 관리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의 제안은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내용으로 구분하여 집행부와 실행부서에서 반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된 정책 내용 중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 정책과제의 반영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의 반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정책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담당기관이나 실행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제안된 정책과제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세부 정책제안들에 대한 수요자(여기서는 대학원생)의 니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선호도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행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를 통해 정책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되어 반영되거나 개선된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선된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원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대학원생의 교육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목차

1. 요약 .....	i
2. 목차 .....	iii
3. 표 목차 .....	iv
4. 그림 목차 .....	v
5. 본문	
I. 서론 .....	1
II. 연구 개요 .....	2
III. 선행연구 보고서의 개요 .....	4
IV. 선행연구 보고서의 정책반영 현황 .....	67
V. 요약 및 제언 .....	144
VI. 정책과제 제안내용의 반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54

# 표 목차

표 1. 연계-연합전공 비교 .....	7
표 2. 협동과정 개요 .....	8
표 3. 건강캠퍼스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	34
표 4. 대학원생 대상 학내 설문조사 요약 .....	66

# 그림 목차

그림 1. 선행 정책연구의 이슈별 및 시계열별 개요 .....	3
그림 2. 교육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4
그림 3. 연구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4
그림 4.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20
그림 5. 외국인 학생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41
그림 6. 장애인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48
그림 7. 여성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55
그림 8. 인권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61

## I. 서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위한 학업 뿐만 아니라 연구로 인해 장시간 학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교, 연구원, 근로장학생 등 학생 이외의 다양한 신분으로서 경험도 상이하다. 또한, 학부생과 비교하여 학업과 연구 면에서 계열별·전공별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대학원 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학원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 등을 통해 향후 대학원생의 교육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원생들은 학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학교의 정책이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형태나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 11월 5개 기관(관악학생생활관, 국제협력본부, 다양성위원회, 대학생활문화원, 인권센터)이 공동 개발하여 실시한 ‘서울대 학부생의 삶의 질 조사’의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원생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2000년 이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과 대학생활 만족도 조사, 인권실태 조사 등 학내 여러 기관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정책연구 또한 진행되었으나, 그동안 수행된 정책과제에서 도출된 제안점들이 실제 반영되어 정책으로 이어져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내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들과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미해결된 정책과제들은 무엇이며 그동안 주요한 정책과제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20년간 학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진 대학원생에 대한 정책연구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상이한 연구목적과 정책과제로 접근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연구를 이슈별로 정리하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서, 반복되면서도 미해결된 과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원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대학원생의 교육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과제를 새로이 발굴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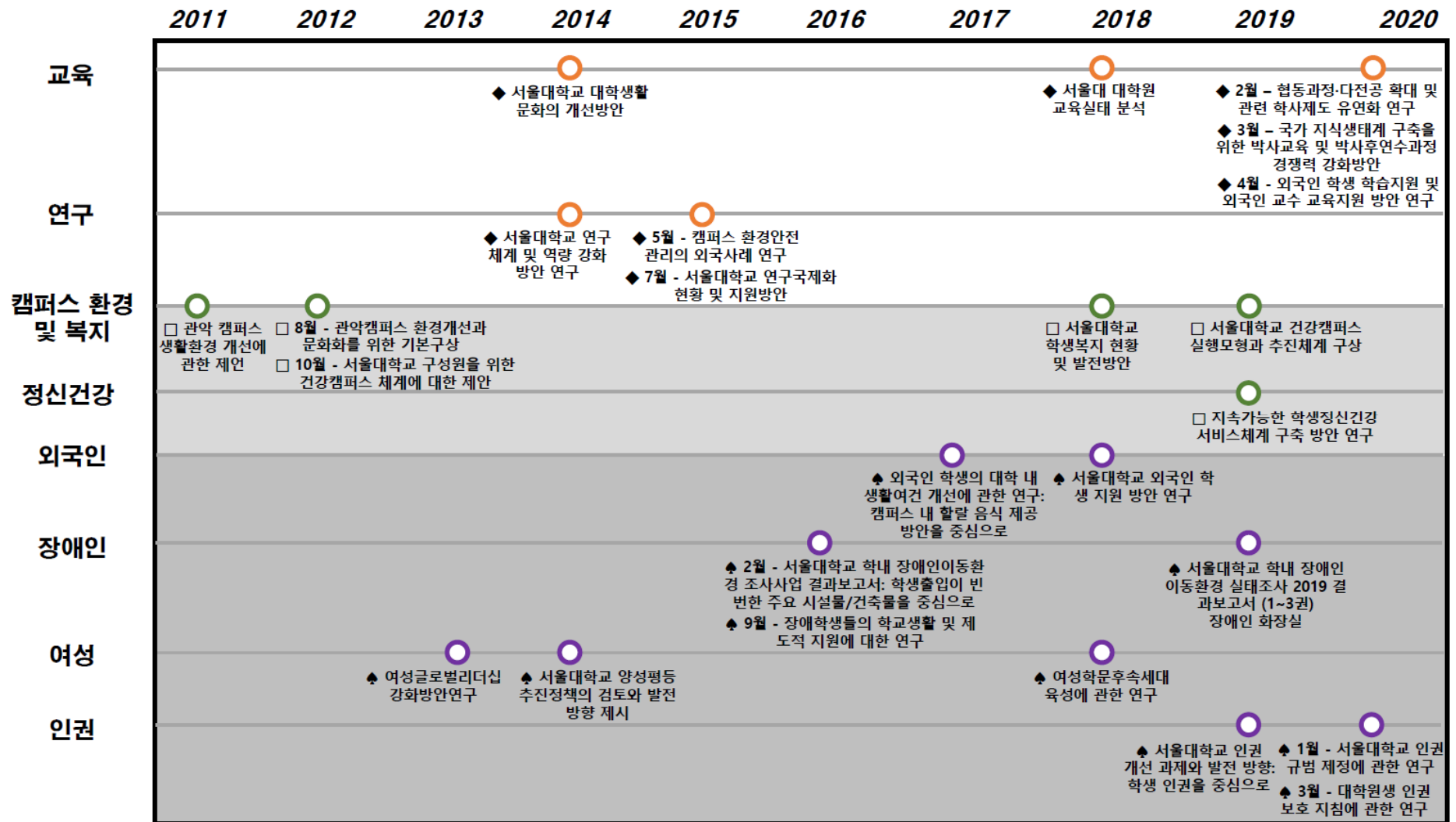


## II. 연구 개요

본 연구를 위해 평의원회와 기획처 등에서 수행된 기획과제 목록을 요청하여 2004년 이후의 기획연구과제 19개, 2012년 이후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64개를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1차로 대학원생 특정 연구 또는 대학원생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 공통 연구를 파악하여 21개 과제를 선별하였다. 별도로 서울대학교 포털 행정정보(보고서 등)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토하는 절차 등을 통해 추가로 6개 연구보고서를 발굴하고 포함시켜 총 27개 연구과제(3개는 1-3권으로 되어 있는 연속 보고서임)를 검토하였다. 선행 정책연구의 이슈별 시계열별 개요는 <그림 1>에 정리하였다. 과제는 이슈별로는 교육, 연구,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여성, 장애인, 외국인 학생, 인권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 보고서의 개요는 25개로 정리하였다. <III. 선행연구 보고서의 개요> 부분의 내용은 선행연구의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 중 대학원생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으며, 정책반영 여부를 학내 담당 기관에 요청하여 <IV. 선행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현황>에 정리하였다.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 중에는 구체적이어서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 제안 내용이 보다 추상적이고 비전 설정을 위한 것이어서 해당 기관에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진이 최대한 선행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을 파악하고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학내 업무로 바쁜 중에도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한 현황을 작성해 주신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연구지원과, 연구윤리팀, 환경안전원, 입학본부, 기초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생활문화원, 경력개발센터, 인권센터, 국제협력본부, 글로벌사회공헌단, 시설관리국 담당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양성위원회 배유경 전문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IV. 선행연구 보고서의 정책반영 현황>의 결과를 이슈별로 요약하고 주로 부분 반영 및 미반영된 정책 중심으로서의 제언을 <V. 요약 및 제언>에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VI. 정책과제 제안내용의 반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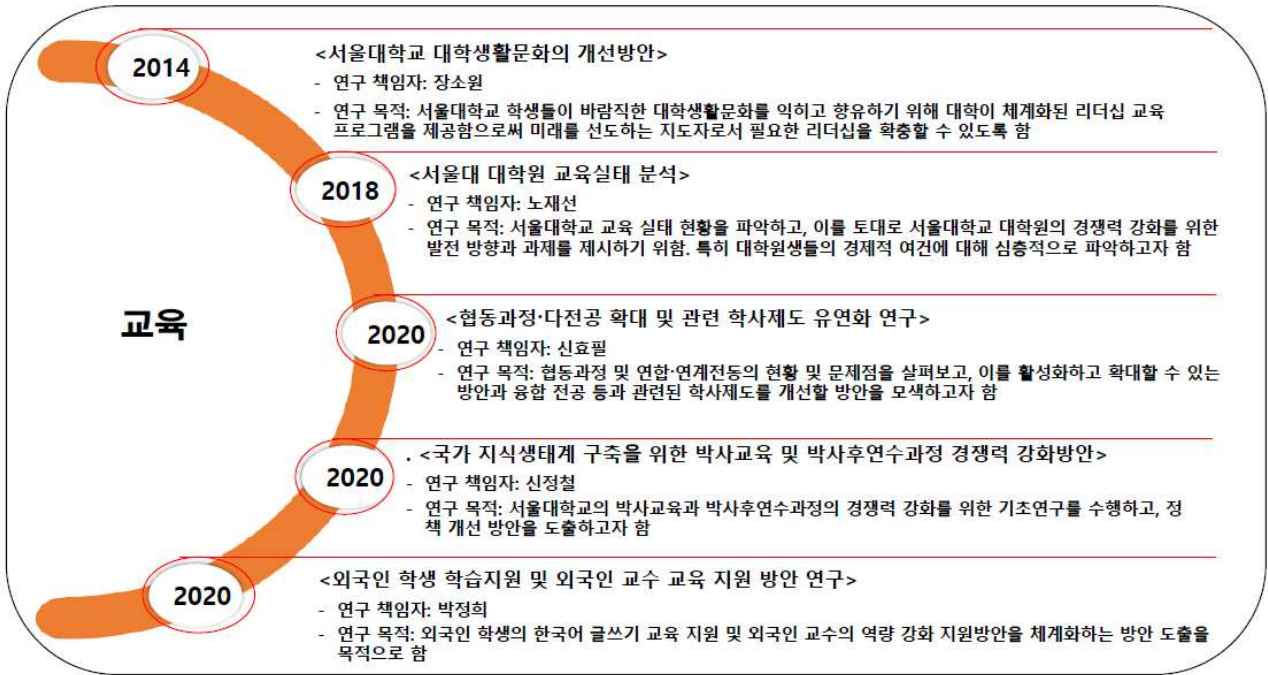


<그림 1> 선행 정책연구의 이슈별 및 시계열별 개요

### Ⅲ. 선행연구 보고서의 개요

#### Ⅲ.1. 교육 관련 선행연구

교육 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교육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국가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박사교육 및 박사후연수과정 경쟁력 강화방안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20. 03. 30

- 연구책임자: 신정철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영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경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이현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민정찬 (연세대학 명예특임교수),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의 박사교육과 박사후연수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박사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역량 중심 모델을 탐색해 보고, 교육과정 개편 및 박사과정생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15년간(2000-2015) 대학원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1970년의 우리나라 대학원 재학

생수는 석사과정 6,112명, 박사과정 51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석사과정 247,481명, 박사과정 74,750명으로 약 50배 증가하였다. BK21 사업이 1999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학원생 대상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었고, 대학원생의 연구성과, 국제화 역량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다. 대학원 교육과정이 대체적으로 석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있고, 박사과정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낮은 교육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학위취득자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어 해외 유학에 따른 브레인 유출 및 학문적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역량 및 경력개발을 위해 해외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을 선호함에 따라 국내 대학 R&D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며,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 인력에 의존하는 연구 생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당면하여, 대학원 교육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건강한 지식·기술생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력 높은 대학원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4) 주요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학원 교육과 박사교육 현황,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수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구원 교육의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박사과정 대학원생

- **교육과정의 만족도:** 서울대 박사과정생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해외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문과 연구에 대한 수월성 향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며, 졸업 후 진로 개척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재정적 불안감 및 연구실 문화:** 서울대 박사과정생은 재정적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권위적인 연구실 문화는 박사과정생 역량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적 지원, 거주지·연구 환경 개선, 대학원생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대학원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교육과정:** 고등교육에서의 융합 연구·학제간 연구 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서울대 박사교육은 여전히 단선적이고 정형적인 박사교육에만 머물러 있다.

##### (2) 박사후 연구원

- **지원의 부재:** 현재 상황에서는 박사후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하다. 서울대학교가 박사후연수과정의 제도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경력개발 및 체계적인 멘토링 과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박사후 연구원의 지위:** 현재 서울대학교의 박사후연수과정은 신진연구인력을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수 있는 ‘신진연구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박사과정의 연장선 상에 있거나 종속적인 연구보조 인력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진연구자로서 박사후연구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연구 환경 및 처우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연구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박사후연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수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박사교육 및 박사후연구원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 (1) 박사교육 제언

- 핵심역량 강화 공통 커리큘럼 구축이다. 박사과정 핵심역량을 각각 기초 연구 소양, 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수법, 경력개발과정, 연구분석방법으로 나누고 각 분야의 공통 커리큘럼을 마련한다.
- 박사학위 유형의 다양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박사학위 유형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도 교육 목적, 교육 내용 등에 따라 박사학위를 다양하게 수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박사과정에서 부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중전공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이다. 이공계열은 현행 지원을 유지하되 인문·사회·예술 계열에 장학금 및 프로젝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박사과정생이 수학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박사후연구원 관련 제언

- 박사후연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전담 지원조직이 요구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 지원과(가칭)’ 신설을 제안한다.
- 박사후연구원 임용 규정을 개선하여 임용 기준, 임용 기간, 박사후연구원, 처우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SNU 초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안)’ 을 도입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우수 박사후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한다.
- 박사후연구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단계별 역량개발 모형화 방안을 마련한다.

## 2. 협동과정·다전공 확대 및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연구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20. 02. 28.

- 연구책임자: 신효필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한소원 (사회과학대학 뇌·마음-행동 연계전공 교수), 배은경 (사회과학대학 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임종태 (자연과학대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 김수환 (공과대학 인공지능 반도체공학 연합전공 교수), 오정석 (경영대학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교수), 정의철 (미술대학 통합창의디자인 연계전공 교수), 강명주(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교수),

2) 연구목적

협동과정 및 연합·연계전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융합 전공 등 이와 관련된 학사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 학부과정 다전공으로는 연합전공과 연계전공이 존재하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협동과정과 융합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공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과정으로 독자적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연합전공은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연계전공은 2009년 설치되어 부전공으로 이수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표 1>은 학부의 연합전공과 연계전공을 비교해놓은 것이다.

<표 1> 연계-연합전공 비교

구 분	연계전공	연합전공
개설형태	주관 학과(부)가 다른 학과(부)의 전공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한 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
학위과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학생선발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소속 학과(부) 제한 없음)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소속 학과(부) 제한 없음)
학생소속	입학 시의 소속 유지	입학 시의 소속 유지
취득학점	21학점(부전공과 동일)	39학점(복수전공과 동일)
학위취득	1개 학위 (소속 학과(부)의 학위) ※ 연계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학위 미수여	2개 학위 (소속 학과(부) 및 연합전공의 학위) ※ 학사과정의 경우 교과과정 상 전공명을 학위명에 표기 가능
기타사항		1년에 한하여 재학연한 연장 가능

대학원은 협동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학제 간 융합화에 따라 관련된 학과(부) 또는 전공들이 공통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이다. 협동과정은 입학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며, 학생들은 각 협동과정에 소속되어 협동과정의 교과목 규정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협동과정의 독자적인 석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2018년 현재, 총 31개의 협동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협동과정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표 2〉 협동과정 개요

구 분	협동과정
개설형태	학칙상 전공
학위과정	석사, 박사, 석사 · 박사 통합과정
학생선발	협동과정 소속으로 입학
학생소속	협동과정에 소속
학위종별	참여 학과(부)에서 수여하는 학위 또는 융합전공 명칭의 단일학위
석사취득 후 향후 진학	협동과정의 박사과정에 진학
교육목적	전문인력 배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융합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

**4) 주요 결과 (학부 연합전공, 연계전공, 대학원 협동과정, 융합전공 등)**

학부 연합전공과 연계전공은 모두 교과과정 및 운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연합전공은 교과과정 측면에서는 주관학과 개설 교과목들로의 편향, 연합전공 자체의 개설 교과목 부족, 제한적인 강사군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연계전공 또한 조직적인 커리큘럼이 부족하고 교과과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사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학부 연합전공은 운영 측면에서는 교과목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연합전공 만의 학생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부 연계전공 또한 운영 측면에서 학생관리/교과목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예산 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행정지원이 미비하다.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학부 연합전공은 다양한 참여 전공의 특색있는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되고 주관대학 또한 연합전공 교과목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더불어 연합전공 참여 전공들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이 확대될 것을 제안한다.
- 연합전공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제도, 풀타임 비전임 교원 채용 등 강사초빙 제도가 개선되고 전공 운영과 학생활동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 학부 연계전공의 교과과정은 주기적 교과목 검토 및 개선, 강사진 지원 및 학생관리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연계전공의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과 적절한 예산 지원 시기, 그리고 연계전공 만의 독립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대학원 협동과정은 다전공의 교과목 개발을 통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대학원 협동과정 제도는 독립된 교육단위이지만 교육과 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협동과정을 전담하는 스태프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겸무 교수에 의존하는 운영의 문제, 교육과 운영의 부실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대학원 융합전공의 경우 자원(예산, 공간, 행정인력)의 투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 융합전공 만을 이수하는 경우 현재의 24학점 이상의 이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주전공과 융합전공 동시 이수에 요구되는 36학점에 근접하게 만들어, 실제로 두 전공 동시 이수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협동과정, 융합전공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교수의 교과목 강좌 확대 개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의 개선방안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4.10.

- 연구책임자: 장소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윤제용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영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학생활문화를 익히고 향유하기 위해 대학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재학 중에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로서 필요한 리더십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리더로서의 서울대인이란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이다.

서울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리더십을 지니기 위해서 현재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은 제한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학의 학생처나 대학생활문화원, 경력센터, 기초교육원 등에서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단과대학별로 몇 개의 리더십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4)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리더십 개념에 대한 기초조사로, 리더십의 개념과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대학생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더십 관련 조직에는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기관들이 있고, 각 조직 및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각 단과대학에 개설된 리더십 관련 강좌들을 조사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여 리더십교육에 대한 인식 여부와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 **개선 요구사항:**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37.7%)와 ‘전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참여기회 확대’ (35.7%)가 높게 나타났다.
- **신규 프로그램의 필요성:**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답이 61.1%로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필요한 프로그램:** 리더십 관련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턴쉽’ 이 34.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봉사’ 31.0%, ‘리더십 프로그램’ 20.8%, ‘인권 교육/성평등교육’ 14.1% 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입학 전 교육과 1학년, 그리고 2~4학년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한다.
- 입학 전 교육에서는 <새내기대학> 등을 활용하여 리더십의 개념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과 강좌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한 소책자를 제공한다.
- 1학년 단계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과 응급처치술,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공한다.
- 2~4학년 단계에서는 확대 개발된 기초교육원의 리더십 교과목 및 각 단과대학이 제공하는 리더십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으로 이수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모든 재학생에게 기초교육원 ‘서울대학교 공공리더십센터’ 가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을 위한 리더십 역량(KPLI for SNU Students)’ 평가를 최소한 1회씩 제공한다.
-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 인증서는 개별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졸업장에도 인증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위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부서를 학생처, 기초교육원 등의 하위부서로 설치한다.

## 4.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 및 외국인 교수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어 글쓰기교육 지원 및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20. 04

- 연구책임자: 박정희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 공동연구진: 박종소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수), 민혜리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이지훈 (언어교육원 조교)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글쓰기 교육지원 및 외국인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체계화하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내 외국인 학생의 글쓰기교육 현황, 외국인 교원의 수업 현황, 교수와 학생의 요구도 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 및 외국인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 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위한 지원 사업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진행 전공 수업 수강의 어려움’ 가운데 ‘논문작성’의 어려움이 학업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나, 학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및 대학원 수학에 필요한 체계적 한국어 글쓰기 및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학내 외국인 교수는 약 200명 수준으로 미국인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순이다. 이들 외국인 교수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 또한 없는 상황이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같은 교육지원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교수의 교육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한 경우는 있으나, 교육지원과 교육현황 및 역량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외국인 학생 및 교수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습 및 교육능력에 관한 훈련과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

### 4) 주요 결과

학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글쓰기 교육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초교육원, 언어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과 및 단과대학 등 학내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글쓰기 (교과/비교과)교육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글쓰기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외국인 학생 교육 현황:** 현재 학내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글쓰기 교육지원은 글쓰기 교과목 운영(기초교육원 및 국어국문학과) 기관과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CTL 글쓰기교실) 운영 기관의 연계 및 협업이 부족하고, 그 결과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외국인 교원의 문제점:** 외국인 교원들은 생활 지원, 교육 지원, 언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활지원의 경우는 육아지원금, 거주 문제, 연금 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교육지원의 경우는 외국인 교원을 위한 교수법 지원, 학생과의 소통 문제, 외국인 교원 간의 교류지원, 학내 교육자원의 이용 관련 문제, 연구비 및 인센티브 관련 내용, TA 지원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
- 학내 유관 기관과 대학(원)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해 기초교육원 산하에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 지원실>을 설치하거나 <글쓰기센터>를 설립하여 산하에 지원 부서를 통해 학내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외국인 교수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이 제언되었다.
  - 외국인 교수 대상의 교수법 워크숍 실시
  - 외국인 교수들 간의 교육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지원
  - 강의 우수 외국인 교수를 교육상 후보로 추천하거나 외국인 교수 교육상 선정
  - 외국인 교수의 우수 수업사례 공유하는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운영
  - 외국인 강의우수 교수의 수업콘텐츠 및 교육관련 인터뷰 영상 개발
  - 외국인 교원에게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ex. 봉사점수 및 승진체계) 및 제도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5. 서울대 대학원 교육실태 분석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8. 09.19

- 연구책임자: 노재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성원용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일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조현경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의 교육실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설문 결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학부 출신 대학 중 서울대학교가 미국 외 대학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다. 본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을 떠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미국을 선택하는데, 미국은 세계 유수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학문적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고양시킨다. 또한 미국으로의 유학은 대부분의 경우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미리 고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위과정을 이행해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인 당 연간 평균 장학금 액수는 2016년 기준 300만 원도 되지 않아 한 학기 등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위과정 중도 이탈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학계열은 그 비율이 53.0%인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무려 71.0%에 달해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학위과정 중도 이탈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실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4) 주요 결과

- **대학원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지도교수의 지도가 불충분하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의 수준이 기대 이하이다’, ‘행정 등의 업무로 연구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항목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원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계열 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도 발견된다. 이공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연구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능력과 적성에 회의가 든다’, ‘연구의 주제나 의의가 불분명하다’는 답변이 많았고, ‘연구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답변도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인문사회계열이 이공 계열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연구실의 경비가 부족하다’, ‘학위과정 이행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다.
-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818명의 76.2%에 해당하는 623명의 학생이 현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 경험 비율은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다.
- **장학금 제도,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 바라는 점:** ‘장학금 프로그램 확충’,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할 정도의 장학금 규모 필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연구성과에 따른 장학금 필요’, ‘장학금 관련 공지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짐’, ‘장학금이 적어서 무리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구조’, ‘연구와 무관한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행정 일이 과도하게 많음’, ‘문과 계열 프로젝트 부족’, ‘임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불안함’, ‘간접비 규모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시설 관련:** 연구실, 도서관, 회의 공간에 비해 휴게공간, 기숙사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거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내에 개인에게 지정된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장비, 사무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적으로 3.65점, 3.71점 수준을 보였다. 연구실 소재 건물에 대한 만족도는 그보다 낮은 3.35점을 기록했으며, 학내 시설에 대한 의견으로는 ‘냉난방 가동의 유연화 필요’, ‘(남자) 휴게공간 및 (평창캠퍼스) 편의시설 부족’, ‘기숙사 확충 필요’, ‘(낙성대 방향) 셔틀버스 증대 운영 필요’, ‘바퀴벌레 출몰이 잦음’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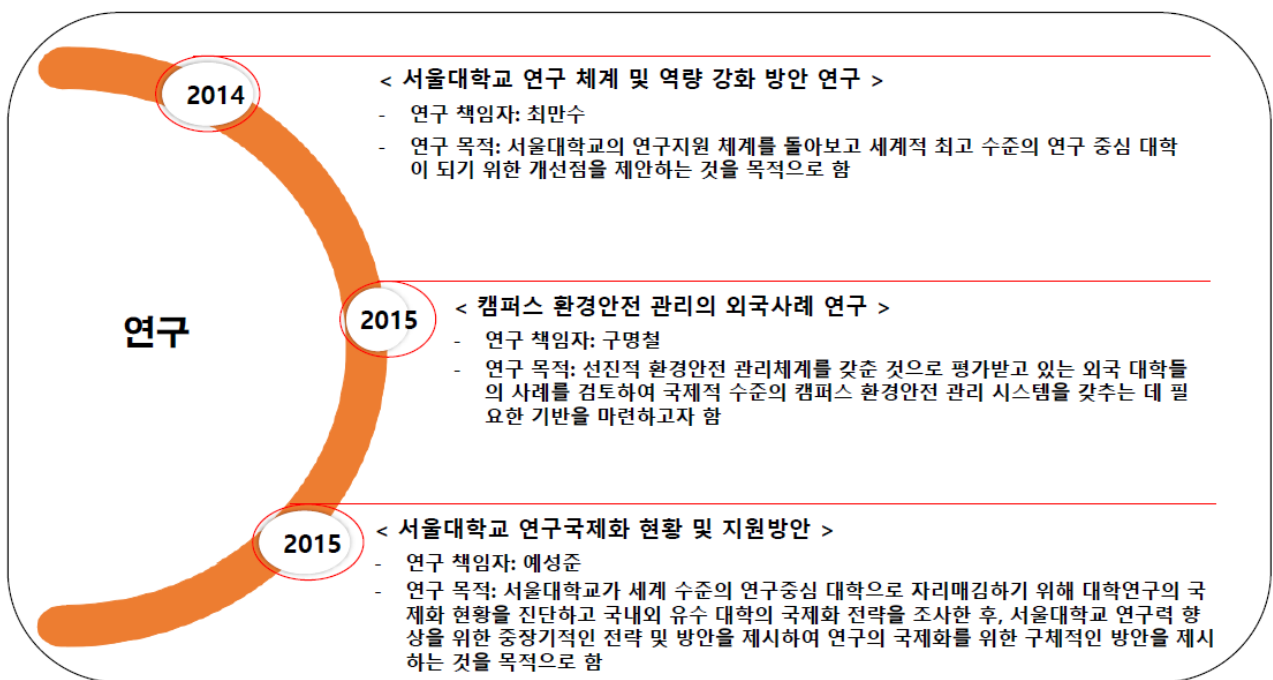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학생처 장학복지과, 산학협력단 등 회계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학금이나 연구인건비 등 학교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 전부가 학생별로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대학원생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입시경쟁률, 중도탈락률, 졸업에 소요되는 기간 등의 자료를 관계자의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전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졸업한 대학원생의 졸업 이후 진로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고안하고 조사된 내용을 보고서, 대시보드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현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원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문항 없이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 III.2. 연구 관련 선행 연구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관련 과제는 2014년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최만수), 2015년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구명철), 2016년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책임자: 예성준)이 있다. 각 연구의 주된 연구 주제는 상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각 연구의 주요 제안 사항을 살펴보고 그 중 대학원생 삶의 질과 관련된 제안 사항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4. 04. 01. - 2014. 09. 30.

- 연구책임자: 최만수 (공과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권오경 (수의과대학 교수), 김상은 (융합기술대학원 교수), 김진웅 (약학대학 교수), 민병무 (치과대학 교수), 서진호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손병주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인호 (사회과학대학 교수), 정용욱 (인문대학 교수), 정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호성 (의과대학 교수)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4년 시점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지원 체계를 돌아보고 세계적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는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30위권의 순위를 차지함으로써 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교수들이 체감하는 연구지원 체계와 연구력은 외부의 평가 결과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연구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력과 연구 인프라가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주요 결과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지원 체계,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인프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서울대학교 연구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신입교수를 포함한 교수 부문과 학문후속세대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는 연구지원 체계, 연구역량 강화, 연구 인프라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 문제점,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연구지원 체계 측면:** 연구부총장과 연구처장의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산학협력단의 업무 과중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연구부총장과 연구처장의 역할, 임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변화와 산학협력단의 분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 **연구 역량 강화 측면:** 교수 역량 강화와 학문 후속세대 연구 역량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교수 역량 강화 측면:** 신입교수 채용 절차의 경직성, 신입교수 연구정착금 미흡, 지속적인 교수 연구 지원제도 및 동기부여 미흡,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유연한 신입 교수 채용 절차 마련, 신입교수 연구정착금 대폭 상향, 효율적인 연구지원 체계 마련, 연구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체계 구축, 교내 연구비의 상향 및 지속적인 기본 연구비 제공, 실효적 국제화를 위한 학자 교류, 연구비 간접비 중 일정 비율을 교수가 실험실 유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수 평가 시 학문적 고유성을 존중한 질적 평가로의 전환, 국제적 명성도의 평가 반영을 제안하였다.
- **학문후속세대 연구 역량 강화 측면:** 우수 학생 유치에 대한 노력 부족, 국내 및 외국으로부터 우수한 대학원생의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외국인 입학생의 수준이 높지 않음, 박사 논문 심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 제도 확충, 우수 본교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유치를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의 확대, 주거지원 제도와 산학지원 제도의 확충과 다양화, 박사논문 심사제도의 개선, 학위과정의 유연성 확보, 대학원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명시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수와 대학원생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 선언, 높은 질적 수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화, 외국인 학

생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분야별 우수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유치 및 맞춤형 지원과 교육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 **연구인프라 개선 측면:** 현재 연구 공간의 부족과 낮은 질적 수준, 연구기자재의 노후화와 새로운 기기 제공 미흡, 폐쇄적이고 중복성 있는 연구소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연구 공간의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 연구기자재의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 확대, 공동기기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연구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연구소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2.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5. 05. 01. - 2015. 10. 31.

- 연구책임자: 구명철 (인문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한무영 (공과대학 교수), 이미옥 (약학대학 교수)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진적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외국 대학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환경안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는 환경안전원과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연재난 및 환경안전 관리는 각 대상 업무마다 관리부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부속기관인 환경안전원이 유사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안전 관리 규정이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외 캠퍼스 공간에서의 안전관리가 우려된다. 환경안전 관리규정은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생활 수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주요 결과

본 과제는 연구실과 실험실에 국한하지 않고 캠퍼스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 의식이 강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된 세계 4개 대학(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일본 동경대학교, 홍콩 홍콩시립대학교)의 환경안전 관리기관, 관리지침, 매뉴얼 및 환경안전 관련 특이사항을 조사하였다.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는 환경안전보건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환경안전보건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일반규정에

‘환경, 보건,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여 총 34항목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환경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는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 관리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책임자’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분과에 해당하는 관리지침과 자연과학분과에 해당하는 관리지침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임산부, 산모 등 약자에 대한 보호가 명기되어 있다.
- 일본 동경대학교는 환경안전에 대한 이념을 명시하며 대학도 전체 사회의 환경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고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행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실적을 학내외 공개하고 있다. 대학본부 직할부서인 ‘환경안전본부’와 환경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환경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홍콩 시립대학교는 위기관리, 안전정책, 환경정책이라는 기본이념 하에 환경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안전관리 책자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며, 환경정책 측면에서 폐기물 관리를 중시하고 5R (Reuse, Rethink, Restore, Reduce, Recycle) 방안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교의 환경안전 관리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제안하였다.

- 환경안전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대학본부 소속부서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환경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환경안전 조사 대상을 연구실과 실험실 뿐 아니라 캠퍼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안전 관리 대상 역시 대학 소속 구성원 뿐 아니라 용역직원, 방문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워싱턴주립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린이, 임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해 우선적 배려와 보호가 요구되며, 음식물 안전사고 및 알코올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베를린자유대학과 같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환경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3.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 1) 연구 기간 및 연구진: 2015. 07. 01. - 2016. 02. 29.

- 연구책임자: 예성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구명철 (인문대학 교수), 김성준 (의과대학 교수), 김진웅 (약학대학 교수), 김희백 (사범대학 교수), 류판동 (수의과대학 교수),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이철범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교수), 한호성 (의과대학 교수)



## 2) 연구 목적

서울대학교의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정체되고 평가주관기관에 따라 순위가 다른 상황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학연구의 국제화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외 우수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조사한 후, 서울대학교 연구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제화’를 사회, 문화, 경제 및 노동시장의 세계화와 관련한 요구 및 도전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모든 구조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때, 서울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지향이라는 목표와 함께 대학연구의 국제화에 최우선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교의 세계대학 순위가 괄목할 만하게 상승하였지만 평가주관기관에 따라 높게는 24위, 낮게는 106위로 매우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평가주관기관별 상이한 평가요소나 가중치, 사용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방법 등에서 찾기보다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특히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을 철저히 검토하여 평가 기준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일관성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서울대학교의 제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학문 분야별 국제화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국제적 수월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주요 결과

지난 5년간(2015년 당시 기준)의 연구성과를 세계 최상의 연구중심대학과 국내 상위대학과 비교하여 ‘대학연구의 국제화’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본부 및 각 단과대학에서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 교토대학교, 미국 예일대학교와 국내 대학의 연구국제화를 위한 전략과 지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 서울대학교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전 분야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해외저자와의 공동논문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국내 5개 대학과 비교하여 논문 실적, 국제공동논문 수, 피인용지수 등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나 매년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과 비교해보면 국제공동연구논문 수와 상위 10% 피인용 논문 수 등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공동연구 논문이 더 높은 피인용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에서 발간한 국제공동연구논문의 수가 우리 대학보다 2-5배 가량 많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 논문의 수를 더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실행이 요구된다.
-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사업의 성격 및 유형별 현황 파악이 부족하므로 이를 관리·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외국인 전임교원과 학생의 경우 인원수나 국가의 다양성 측면보다 안정된 인재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 교수들이 학문분야별 국제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충이 요구되며, 본부 위

주의 확일적 지원보다는 학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과대학별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서울대학교 국제화 지원방안과 전략을 연구와 연구 외 분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연구 활동 측면:** 교원의 학기 중 외국체류일수의 유연한 운영, 해외협력 교수제도 (외국 저명 교수의 비전임 교원 임명), 국제 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연구 지원, 연구에 관한 국제규범 및 학문 윤리의 준수, 서울대학교의 권위있는 학술지 개발, 연구국제화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교수 승진규정 봉사란에 국제공헌 부문 추가, 교수승진규정 업적 평가에 국제공동연구, 해외기관 연구비 유치 등 정성적 요소 반영, 신진교수 연구정착금 확대, 외국인교수의 한국어 강의 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하였다.
- **연구 외적 측면:** 외국인 교원과 학생들이 언어, 소통 및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어소통능력 또는 한국어 능력 향상 등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대학본부 차원의 국제화를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거버넌스와 문화 관점에서도 국제화를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외국인 교원 임용 시 성장가능성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외국인 교원의 연금문제, 해외 체류 한국 국적의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외국인 졸업생의 서울대 동창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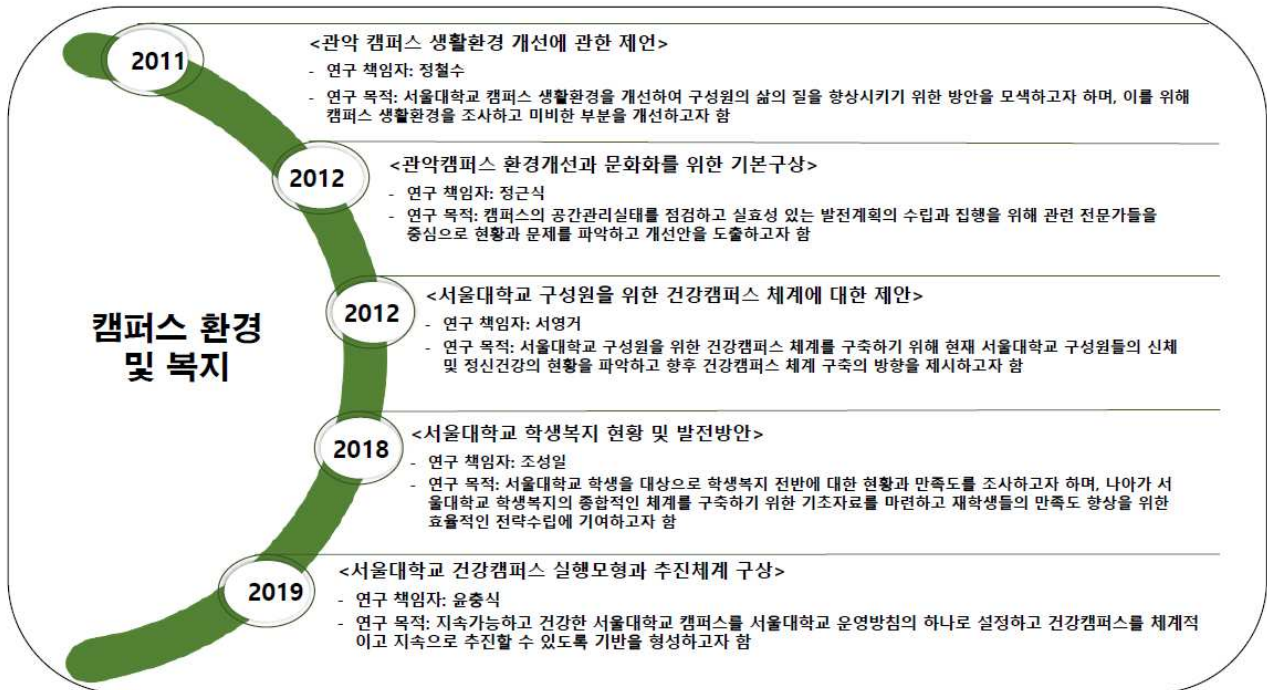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대학연구 국제화를 위해 제시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세계적인 연구자와의 국제공동연구 적극 추진 및 이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 (격려) 방안 모색
- 우리 대학 연구행정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도달해야 함
- 성장가능성 있는 외국인 교원 및 우수한 학생 확충
- 국제화를 위한 정부지원과제를 유형별로 서울대학교가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세계적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문분야의 특성 및 단과대학의 실정에 맞는 본부차원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논문 위주의 단편적 교수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 한국학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문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는 전략적 방안 필요. 한국학의 국제화 현황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세계적 수월성을 갖춘 교수임용을 위한 국제수준의 신입교수 정착금 지원, 연간 해외출장 일수 및 해외석학교수제도의 유연성 있는 운영, 서울대학교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개발, 연구국제화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연구에 관한 국제 규범 및 학문윤리의 준수, 교수 승진 규정의 봉사항목에 국제 공헌 부문 추가, 단과대학별 자체 국제학술활동 지원의 상향 평준화 등
- 언어와 소통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 국제화를 위한 대학본부 차원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외국인 구성원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외국인 교원의 연금문제 해결, 한국어로 강의 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동창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지원 등

### Ⅲ.3.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관련 선행 연구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관악캠퍼스 환경개선과 문화화를 위한 기본구상(서울대학교 평의원회)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2. 08

- 연구책임자: 정근식(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승희(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김재관(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박종석(노동조합 위원장), 이유미(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창복(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학부 교수), 정영목(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 2) 연구목적

현재의 캠퍼스 공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에서는 단순히 제도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캠퍼스 관리의 비전과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개선안의 경우도 제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이상적인 캠퍼스는 안전, 환경, 이동과 접근, 문화예술과 같은 가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이런 원칙에 비추어 시급하게 요청되는 캠퍼스 관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 이 연구는 캠퍼스 환경개선과 문화화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차후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1975년에 비해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건물은 3배 가까이 증가되면서 녹지공간이 축소되고 교통체계나 생활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캠퍼스 건물 수의 증가와 규모 확대, 복잡성 증대는 캠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최근 위험과 안전성, 친환경적 개발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면서 캠퍼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요구들이 출현하였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학내외의 요구에 비추어 우리 대학의 물리적 및 문화적 환경이 이에 걸맞는 수준인지, 대학의 공간계획과 시설관리가 충분히 체계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부의 발전기금을 유치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캠퍼스에 대한 체계적 공간계획과 각 사업들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4) 주요 결과

#### (1) 안전한 캠퍼스의 구축

- 관악산 댐의 용량이 부족하고 캠퍼스 내 배수시설의 처리용량 또한 불충분하여 집중호우가 있을 때 캠퍼스 곳곳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합류식 하수관의 사용으로 인해 도립천의 건천화가 발생하고 있다.
- 캠퍼스 내의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연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 산사태가 발생할 수 이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캠퍼스에 재해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재해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 캠퍼스 내 교통환경이 복잡화되고 있으며 차량위주의 동선체계 구축으로 캠퍼스 구성원의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2) 에코그린 캠퍼스의 구축

- 캠퍼스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고도제한도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의 추진에 제한이 있고 보행동선, 오픈스페이스, 녹지가 서로 간에 미흡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이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캠퍼스의 질적인 부분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 캠퍼스의 조성이 필요한 상태이다.
-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은 상태에서 개인교통 중심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환경 또한 복잡화되어 주차면수가 부족해지고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에 의해 생산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3) 문화 예술 캠퍼스의 구축

- 일관성 없는 다양한 구조물 형식이 상존함으로써 심미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부족하다.
- 다양한 공간환경이 존재하는 가운데 문화적 공간이 부족하다.

#### (4) 이동과 접근이 쉬운 캠퍼스의 구축

- 현행 동번호 체계는 관악캠퍼스 초기의 용도별 동번호 체계를 기본으로 A부터 K까지의 권역별 구분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악캠퍼스의 급성장에 따라 동번호 체계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연속성이 단절되면서 캠퍼스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학내 구성원의 길 찾기의 편의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번호 체계의 개선은 단지 길 찾기가 편한 번호체계를 만드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캠퍼스 관리의 효율성과 이동 및 접근이 쉬운 캠퍼스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1) 캠퍼스 관리의 9대 비전과 5가지 기본원칙

연구에서는 캠퍼스 관리의 9대 비전으로 캠퍼스 1) 성장관리, 2) 살기 좋은 캠퍼스, 3) 주거연계 캠퍼스, 4) 학술 연구 지원형 캠퍼스, 5) 에코 캠퍼스, 6) 안전한 캠퍼스, 7) 글로벌 캠퍼스, 8) 문화 캠퍼스, 9) 열린 캠퍼스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할 5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캠퍼스 관리를 위한 5대 기본원칙으로는 1) 캠퍼스 관리 조직의 구축, 2) 안전한 캠퍼스의 구축, 3) 에코그린 캠퍼스의 구축, 4) 문화예술 캠퍼스의 구축, 5) 이동과 접근이 쉬운 캠퍼스의 구축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비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 중 캠퍼스 관리 조직의 구축은 다른 분야별 세부 원칙들의 추진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대학 거버넌스에 관련된 제언으로 대학원생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4개의 기본원칙들은 캠퍼스 생활속에서 실제로 대학원생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언들이라고 볼 수 있다.

### (2) 안전한 캠퍼스의 구축

- 관악산 댐의 용량을 증가시킬 것
- 공대폭포를 우회하는 우수관을 설치할 것
- 지하저류조를 신설할 것
- 캠퍼스내의 바닥면을 투수성으로 포장할 것
- 관악 물재생센터를 건설할 것
- 지하연에 대해 수질관리용법을 적용할 것
- 산사태 발생가능지역에 사면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
- 재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인도를 중심으로 캠퍼스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것

### (3) 에코그린 캠퍼스의 구축

-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것
-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할 것
- 오픈 스페이스의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를 확보할 것
- 캠퍼스 출입차량의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
- 대형 주차센터를 건설할 것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것

(4) 문화 예술 캠퍼스의 구축

- 심미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을 건설할 것
- 적절한 장소에 장소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것

(5) 이동과 접근이 쉬운 캠퍼스의 구축

- 기존의 동번호체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보존하기 위해 동번호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알파벳과 단과대학 혹은 해당 시설의 이름을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대안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동번호체계의 비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세자리 숫자 단위의 도입을 통해서 백단위로 권역을 구분하고 십단위로 용도와 기능을 구별하며 일단위로 건물을 구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6) 8대 장기과제와 12대 단기과제

연구에서는 이상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장기적 거시적 과제와 단기적 미시적 과제로 구분하고 있다. 장기적 거시적 과제는 개선안이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여론수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 미시적 과제는 캠퍼스의 관리에 있어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성질의 과제들이다. 아래에서는 대학원생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단기 과제들만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 8대 장기과제 중 대학원생 삶의 질 관계된 항목(시설관리국)
  - 관악 물 재생센터 건립
  - 재해안내 시스템 구축
  - 친환경 공간조성 및 확보: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숲길
  - 주차요금제 수정 등을 통한 출입 차량 통제방안 실행
  - 대형 주차센터 건설
  - 신재생 에너지 활용
  -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 건설
- 12개 단기과제 중 대학원생 삶의 질 관계된 항목(시설관리국)
  -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예방시설의 확충
  - 캠퍼스 투수포장지역의 확대
  - 지하연 수질관리공법 적용
  - 위험사면에 보강공법 적용하여 산사태 위험 방지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인도) 구축
  -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태양광 발전) 시행
  - 장소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형물 설치

## 2.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건강캠퍼스 체계에 대한 제안(서울대학교 평의회)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2. 10 - 2013. 03

- 연구책임자: 서영거 (약학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정성은 (보건진료소 교수), 노명선 (보건진료소 교수), 조희경 (보건진료소 교수), 김호 (보건대학원 교수), 유승현 (보건대학원 교수), 성상현 (약학대학 교수), 오정미 (약학대학 교수), 이병훈 (약학대학 교수), 한병우 (약학대학 교수), 정석재 (약학대학 교수)

###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건강캠퍼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건강캠퍼스 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목표로,

#### (1) 보건진료소

-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포괄적 현황 파악
-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 (2) 보건대학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행태 및 인식 파악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제안

#### (3) 약학대학

- 서울대학교 부속약국 설립을 위한 국내외 현황 분석과 운영방안 제시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건강캠퍼스는 1994년 건강증진대학(health promoting universities)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영국의 랜카스터(Lancaster) 대학과 중앙 랭크셔(Lancashire) 대학 등에서 보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작되었다. 건강캠퍼스는 학생들과 교수 및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를 위해 건강한 일터 및 학습과 삶의 환경을 만들고 교육과 연구에 건강증진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고 건강증진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은 대국민 이미지 향상,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수준 향상, 일하고 공부하는 환경의 개선,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제적 접근, 이론과 실천의 연결, 협력의 증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국가시책으로 Healthy People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2010년 미국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시책으로 “Healthy People 2020”을 발표하였다. 대학들은 건강캠퍼스 연합을 조직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으며 발표된 국가시책인 “Healthy People 2020”에 발맞춘 “Healthy Campus 2020”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대학들은 이에 맞춘 건강캠퍼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건강캠퍼스 사업의 목표는 교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교내구성원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며, 예방가능한 질병, 장애, 상해, 조기 사망을 방지하

여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 활동을 활성화 시켜왔다.

국내 대학생들의 건강행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대학생들이 대체로 건강실천행위를 못하고 있었으며 건강실천행위 점수는 6점 만점에 2.54점으로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캠퍼스의 개선으로 건강캠퍼스의 모토아래 보건진료소와 부속약국의 활동을 확대하여 질병예방이나 건강습관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주요 결과

##### (1) 보건진료소 -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현황 조사연구

-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의 경우 12.6%였으며, 여학생의 흡연율은 2.8%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 및 흡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성원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위해서는 교내 금연구역 확대 또는 전면 금연캠퍼스 선언, 담배 판매금지, 보건진료소 내 금연클리닉 및 금연예방교육의 강화, 금연동아리 등 건강동아리에 대한 학교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음주습관을 비음주, 적정음주군, 위험음주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위험음주군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19%, 여학생의 경우 21%였다. 건강한 음주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의 보급, 교내 주류에 대한 접근성 최소화 제도, 지역사회 주류 판매자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비만도를 정상, 과체중, 비만, 저체중으로 분류하였을 때 비만군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19.2%, 여학생에서는 3.7%였다. 학생(특히 남학생)의 비만 및 과체중 유병률은 고학년이 될수록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건강식단 제공 서비스, 비만 유발식품의 퇴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정책과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신체활동 수준은 전체 구성원 모두 매우 낮았다. 학생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신체활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신체 활동수준이 더 낮았다. 운동을 장려하는 교내 문화 및 분위기의 조성, 운동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 개발, 다양한 운동 공간 및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 식사습관은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였다.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8%, 규칙적인 식사 21%,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은 20%였다. 바람직한 식사습관 유도를 위해서는 교내식당에서의 건강식단 제공, 교내 위해식품의 제한 또는 퇴출 정책, 개인 대상 영양교육 및 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다.
- 학생군은 수면시간의 불충분 및 수면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장 많이 겪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생의 수면부족 및 불면증에 대한 모든 구성원과 교내 의료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성원 중에서 학생군은 건강검진 수진율이 가장 낮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은 교내 건강검진을 더 자주 이용하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외부 병원 본인부담 건강검진을 더 자주 이용하였다. 교내에서 대학생 시기에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건강위험군에 대한 조기 중재체계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학생 간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증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예방접종률이 높은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



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학생군에서 학업능률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건강문제는 피로(64%), 근육 및 관절 통증(46%), 소화기 계통 문제(43%)였으며, 이로 인한 학업수행 지장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신체건강문제들의 원인이 대부분 다양한 생활습관들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성원들에게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한편, 이러한 기능성 질환들에 대한 교육과 진료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 학생군은 정신건강문제 및 스트레스의 호소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가 가장 높은 군이었다. 학생의 10.7%에서 주요 우울증, 11.3%에서 경도 우울증이 의심되었으며, 자살에 대한 사고 경험의 비율은 14.7%였다. 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사업 강화, 정기 선별검사 및 위험군 선별검사를 통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교내 정신건강센터의 확대 및 특화된 대학정신보건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학내 구성원들이 급성질환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동네의원과 교내 보건진료소(18~19%), 약국(8~15%)이었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동네의원 이용률이 높았다. 따라서 급만성 질환 시 교내 보건진료소 및 약국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보건대학원 - 서울대학교 학생의 음주흡연 실태 조사

- 지난 1년 동안의 음주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 음주율은 953명(95%)으로 대다수가 연간 한번 이상 음주를 하며, 첫 음주 시작 연령은 대학교 이후가 625명(62%)이다. 한 달간 음주 횟수는 평균 4번이며, 그 중에서도 한 자리에서 5잔 이상(여자의 경우 4잔 이상)을 마시는 과다 음주의 횟수는 월 평균 2.8번이었다. 지난 1년간 음주문제를 경험한 학생은 803명(82%)이었고, 926명(92%)이 음주 강요를 경험하였으며, 439명(43.73%)의 학생들이 교수와 술 마시는 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를 거절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음주에 대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진다, 대학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순으로 긍정적 기대를 보이는 한편, 과음으로 인해 후회할 일을 할 수 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에 해롭다 등의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최근 1년간 교내에서 절주교육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98명(11%)이고 설문에 참여자 중 절주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60명(6%)이다. 학교차원의 음주관련 대책 마련에는 음주를 대신할 공동체 문화 개발과 지속적인 절주 캠페인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현재 흡연율은 158명(16%)이며 그중 상시적으로 흡연하는 매일 흡연자가 104명(10%)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흡연율이 6%(전체 345명 중 22명)가 넘어 전국 성인 여성의 평균 흡연율보다 높았다. 흡연유형(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에 따라 흡연량, 흡연욕구의 상황이 달라서, 하루 흡연량은 매일 흡연하는 남성이 11개비, 여성은 6.6개비였다. 매일 흡연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후와 같은 자주 반복되거나 습관적인 상황에서, 가끔 흡연자의 경우 옆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음주 시와 같은 가끔씩 노출되는 상황에서 흡연 욕구를 느꼈다. 흡연 장소는 주로 학교 캠퍼스 내로, 간접흡연 경험자는 918명(92%)이다.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한 사람은 112명(71%)이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95명(9%)이다. 금연 교육을 접해본 자는 177명(18%)이었으며, 그 중 참여한 사람은 53명(32%)이었다. 흡연 유형에 따라 흡연에 대한 인식 및 금연정책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흡연자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약하고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비흡연자 및 금연자의 경우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금연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 본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학교차원의 음주관련 대책으로 음주를 대신할 공동체 문화 개발과 지속적인 절주 캠페인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흡연 정책에 대해서는 흡연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랐으나, 국가적으로 대학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및 실외 흡연이 금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은 교내 음주와 흡연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건강한 캠퍼스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주요 건강 행태에 해당하는 음주와 흡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법과 해외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가용성 제한, 광고 및 후원 제한, 행위 제한,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교육 및 홍보, 예방 및 관리의 영역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적합한 교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약학대학 - 건강캠퍼스 부속약국 설립추진 및 지원방안 구축

-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하여 교내구성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의 설립,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은 1) 학내 구성원의 약물사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처방전의 조제 및 복약상담 제공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2)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약물요법 교육 프로그램 및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학제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3) 약학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타 약학대학 실무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약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의 설립방안 (5실 12인 200평)과 약료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약학대학 실무실습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활동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을 설립할 시 캠퍼스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질병 예방, 건강 교육, 의료비 감소,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교육기회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교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이외에도 식습관이나 신체적 활동, 음주, 흡연, 스트레스 문제와 같은 생활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학교의 건강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 대학 내 건강식단 제공 서비스, 비만 유발식품의 퇴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정책과 다양한 운동 공간 및 시설 확충 (학생처)
- 교내에서 대학생 시기에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건강위험군에 대한 조

기 중재체계를 연계하는 서비스 (학생처)

-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학생처)
- 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사업 강화, 정기 선별검사 및 위험군 선별검사를 통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교내 정신건강센터의 확대 및 특화된 대학정신보건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 (학생처)
- 급만성 질환 시 교내 보건진료소 및 약국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과 지원 (학생처)
- 대학생들의 주요 건강행태에 해당하는 음주와 흡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법과 해외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가용성 제한, 광고 및 후원 제한, 행위 제한,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응 (학생처)
-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을 설립하여 캠퍼스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질병 예방, 건강 교육, 의료비 감소,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교육기회 증대 (학생처)

### 3. 관악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 평의회)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1. 02. 28

- 연구책임자: 정철수(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건수(관악사 사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조재열(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진용(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캠퍼스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캠퍼스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캠퍼스 생활환경에는 의료보건 서비스, 체육시설 및 활동 서비스, 학생 및 편의시설, 교통 시설, 문화 서비스 및 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다양한 학생 지원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공공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많은 시설들이 학내 구성원의 수요에 의해 발생하였음에도 각종 시설의 분포 현황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과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에서 교육기구, 행정기구,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으로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에 대한 특화된 현황파악이 어려워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4) 주요 결과

##### (1) 문화 서비스 시설

- 공연 시설: 학생회관, 라운지, 문화관, 노천강당, 두레문예관

: 캠퍼스에 야외 공연장은 있으나 공연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문화관과 노천강당 등의 시설은 낙후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는데 있어 안내 서비스가 미비하고 공연의 경우 학기 중의 주중에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규장각, 문화관 전시실

: 문화관 전시실의 경우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 연습시설: 음악연습실, 풍물무용 연습실, 두레문예관, 연극 연습실, 두레문예관 세미나/스터디실, 두레문예관 공연장 연습실

: 시설에 따라 관리가 소홀하고 공실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으며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 및 보수비용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기타: 문화인큐베이터, 문화 동아리연합회,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English Cafe

: 국제화의 정도가 아직 미흡하며 학생자치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 (2) 학생 지원 및 편의 시설

- 대학생활문화원: 상담 및 심리검사 활동,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문화사업부 활동, 학생생활 조사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율이 낮고 프로그램 자체의 흥미유발 기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 기숙사: 사생 거주 호실, 복지/편의시설, 문화행사

: 수용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 기숙사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태이다.

- 편의시설: 생활협동조합 식당, 매점, 서점, 기념품점, 미용실, 세탁소, 우체국, 택배, 약국, 준직영식당, 고급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글로벌 하우스

: 편의시설의 운영시간이 대부분 일과시간에 한정되어 있어 야간시간대에 학생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 (3) 교통 시설

- 자가용: 정기주차권, 주차료, 정산소, 교통 규정

: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차시설 관련 규정의 경우 가변성이 높아 안정적인 규정의 운영이 미흡하다. 순환도로상의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정기권 주차차량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고 정기주차권 발급기준도 복잡한 상태이다.

- 시내버스: 내부 경유하는 5511, 5513, 5516, 관악02

: 지선버스의 배차간격이 편리한 이용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다소 긴 편으로 특히 5513의 배차간격이 가장 길다. 또한 관악산 등산객의 버스 이용으로 인한 불편 사항들도 제기되고 있다.

- 셔틀버스: 통학, 교내 순환, 야간 도서관, 수원 (교직원 출퇴근, 위생원 출근)

: 관악캠퍼스 내 교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이 시기별, 그리고 시간별로 다양하게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 이륜차 및 기타

: 이륜차의 운행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륜차 이용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인식 또한 부족한 편이다. 이륜차 거치대의 수와 분포에 있어서도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장소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치된 이륜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유발하고 캠퍼스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 교내에서 규정속도에 대한 제한이 미비하고 순환도로 상에서 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리 또한 소홀하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 (4) 의료 보건 및 체육 시설

- 의료 보건 시설: 학내 보건진료소, 병원 진료 감면 혜택, 학생의료공제혜택,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건강진단, 단체보장보험

: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은 교직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학생의료공제혜택은 재정이 불안하고 수혜 혜택에 있어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보조운동장, 야구장, 보조체육관, 테니스장, 실외 농구장, 기숙사 체육관, 기숙사 축구장, 서울대학교 체육부

: 체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 및 상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체육시설 관리 체계의 경우 다원화로 인해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체육부 운영에 있어서도 불합리성이 확인된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연구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각 영역별로 현황과 문제점 대해 제안된 조치가 요약정리되어 있으며, 제안된 조치들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선안의 경우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

#### (1) 문화 서비스 시설(학생처)

- 야외 공연시설을 확보하고 통합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 문화관, 노천강당 등 낙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할 것
- 공연 및 전시의 평일 편중 현상을 해소할 것
- 유료연습시설을 도입하고 개인연습실을 설치할 것
- 연습시설의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관리자를 도입할 것
- 밴드 합주실을 설치할 것
- 문화시설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
- 캠퍼스 내 문화행사를 기록할 것
- 학생자치 문화단체를 지원할 것

#### (2) 학생 지원 및 편의 시설(학생처)

- 대학생활문화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기숙사 학부 생활관을 재건축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기숙사에 세미나실과 연습실, 실습실을 확충할 것

- 편의점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3) 교통 시설(시설관리국)

- 교통관련 시설을 완비할 것
- 현재의 상황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
- 교통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
- 교통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
- 교통상황에 대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것

### (4) 의료 보건 및 체육 시설(학생처)

- 보건진료소의 서울대학교병원 관악캠퍼스분소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것
-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수혜자 대상을 확대할 것
- 학생의료공제혜택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비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 추진
- 체육문화교육연구동(보조체육관) 건립
- 인조 잔디 야구장(보조운동장) 건립
- 스포츠진흥원 설립
- 웰니스센터 설치

## 4.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과 추진체계 구상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9. 11. 01 - 2020. 06. 30

- 연구책임자: 윤충식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동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김지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성종상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유승현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조성일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

### 2) 연구목적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서울대학교 운영방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건강캠퍼스를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외 건강캠퍼스의 내용과 예시를 검토, 종합하여 건강캠퍼스 개념을 정리한다.
- ②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구성영역과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분석틀을 도출한다.
- ③ 분석틀을 활용하여 건강캠퍼스 관련 기존 교내 현황과 활동, 구성원의 의견을 파악한다.
- ④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 추진체계, 지표체계를 구상하고 검토한다.
- ⑤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우선중점과제 사업을 제안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의 환경, 문화,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의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미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시도들이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이었고 유사하고 관련된 주제에 관한 내용이 서로 종합되거나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복수의 시도가 중복될 여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대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발전적인 건강캠퍼스를 개념화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그동안 교내에서 분절적으로 시도된 건강증진 활동들을 체계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캠퍼스 내 추진체계와 평가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4) 주요 결과

##### (1) 교내과제 검토결과

2011년-2019년 건강 주제가 포함된 교내 연구과제 보고서 및 백서 44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는 건강캠퍼스 결정요인에 대한 여러 영역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강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활동경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무관용 요인: 서울대학교는 구성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관용 요인에 대해 적극적 개입보다는 개인책임으로 맡겨두는 경향이 있으며, 예방중심보다는 유병을 및 사건/사고에 대한 현황과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제마련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 건강행동실천 요인: 서울대학교는 건강행동실천 요인에 대한 지원을 학내 구성원 전반에게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신체활동,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활동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연계는 학생(특히, 국내 학부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스템과 인프라: 서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구성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적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건강지향적인 시스템은 미흡하며, 건강 지향적인 문화와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 건강캠퍼스 결정요인의 관련 대안 실행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9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건강캠퍼스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총 150건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 중 76건의 안건이 본부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제시된 대안은 방향성만을 제시하거나, 전략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호하거나, 누가 그 전략을 전담 혹은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건강캠퍼스 관련 대안의 실천율은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 (2) 서울대학교 구성원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건강캠퍼스 의견결과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요구하는 건강캠퍼스 우선순위사업: 1순위 성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 2순위 정신건강 증진, 3순위 신체활동 증진으로 응답하였다.
- 건강지향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높은 선호: 시스템과 인프라 차원에서 건강 관련 물리적 환경/시설, 공간조성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녹지 및 보행환경,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산책로와 실내외 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선호도 높았다. 그 밖에 셔틀 버스 노선 및 운영횟수 확대, 건강체험형 프로그램으로서 건강주간 지정,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캠퍼스 내 운동시설과 인프라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무관용 요인을 제한하는 전략에 대한 공감대: 전반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캠퍼스 내 흡연자도 대체로 교내 흡연을 억제하는 전략에 동의하고 있으나 담배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음주자/비음주자 모두 교내 음주활동을 제약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흡연보다는 약하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운행은 허용하지만 운행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학생에게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대한 의사가 높게 확인되었다.
- 건강행동 실천을 지원하는 캠퍼스 여건 마련에 대한 요구: 우선순위가 높은 실천 전략은 공통적으로 캠퍼스에서 행동 실천을 물리적, 공간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었다. 인식개선, 정보 공유 등을 통한 구성원의 행동변화를 스스로 촉구하는 전략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3) 서울대학교 구성원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구성원의 건강행태 결과

- 만연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대학원생: 응답자의 반수 이상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20% 이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은 교내 다른 구성원에 비해 캠퍼스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경험율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 실내 중심의 사회적 교류 활동: 응답자는 교내에서 사회적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공간적 여건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캠퍼스 내 사회적 교류 활동은 주로 실내, 특히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미흡한 교내 신체활동 실천율: 주요 신체활동 장소는 캠퍼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교원, 직원 모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이 최대 4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동 및 신체활동 관련 인프라 부족과 시설의 요금부담이 교내 신체활동 실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 교내식당 이용 중심의 식행동 패턴: 설문 응답자의 40%는 주 5일 하루에 1번 교내에서 식사를 하고 주로 교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대안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카페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구성원의 낮은 음주율과 흡연율, 하지만 높은 실내외 간접흡연 노출: 설문 응답자 중 매일 흡연자는 8.8%, 한 달에 2~4번 정도 음주하는 비율이 34%로 흡연율과 음주율이 국외 캠퍼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성원의 80% 이상이 실외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실내에서 32% 정도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건강캠퍼스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표 3>

구분	인터뷰 참여자						
	학생처(1인)	기획처(1인)	의학 전문가(1인)	직원 기구(3인)	교원 기구(1인)	학부 학생회(2인)	대학원총학생회 (3인)
건강 캠퍼스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캠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함</li> <li>건강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내부의 공동체 의식이나 문화는 미흡함</li> <li>(교수협의회 의견) 건강캠퍼스 명칭이 구성원의 건강을 캠퍼스에서 관리, 통제한다는 거부감을 줄 수 있어 명칭이 달라졌으면 좋겠음</li> </ul>						
우선 순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li> <li>문화</li> <li>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활동</li> <li>정신건강</li> <li>사회적 관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식행동</li> <li>정신건강</li> <li>교통안전</li> <li>신체활동</li> <li>안전한 성행동</li> <li>장애인 친화적 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li> <li>신체활동(걷기)</li> </ul>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처 중심의 조직 네트워킹 구축</li> <li>기존 조직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처 중심의 control tower 설치</li> <li>기존 조직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롭게 본부에 CHO(Chief-Health Officer)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원화된 체계를 위한 Control tower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조직 활용</li> </ul>	-	-
추진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예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예산 확보</li> <li>불명확한 실행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 예산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의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간 연계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참여기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간 연계체계 구축</li> </ul>
주요 강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산형 건강캠퍼스 모델 개발</li> <li>인식확산을 위한 체험과 경험 중심의 전략</li> <li>대학원생에 대한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산형 건강캠퍼스 모델 개발</li> <li>우선순위 및 단계별 실행전략 개발</li> <li>건강캠퍼스 지표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산형 건강캠퍼스 모델 개발</li> <li>체계적인 진단</li> <li>임상교수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갈등 개선</li> <li>물리/공간적 접근성 강화</li> <li>무기직, 시설관리직 근로환경 개선</li> <li>단과대별 분절된 소통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차원의 접근</li> <li>물리적/공간적 접근성 강화</li> <li>단과대학 특성별 맞춤형 운영과 조직간 연계체계 마련</li> <li>캠퍼스-가정 연계 필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심리적 안정 추구</li> <li>무관용 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li> <li>학생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 필요</li> <li>단과대 학생회를 활용한 소통채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과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li> <li>생생원 환경개선</li> <li>우울증 조기검진 체계 마련</li> <li>건강지향적인 연구실 문화 조성</li> <li>걷기좋은 환경 조성</li> <li>기존사업 강화 및 홍보 집중</li> </ul>

5) 연구보고서의 제언

(1)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

- 비전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건강캠퍼스 조성
- 목표
  -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제고
- 전략
  - 무관용 요인의 예방 및 근절
  - 건강행동 실천 장려
  - 건강지향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 과제: 5대 영역, 18개 중점 과제
  - 안전한 캠퍼스
    - 성폭행 및 인권침해 사고 근절(학생처)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태점검 강화(학생처)
    - 교통환경 개선 및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마련(시설관리국)
    -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등) 접근 및 노출 억제(학생처)
  - 활기찬 캠퍼스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학생처)
    - 건강관련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학생처)
    - 휴식과 사색을 위한 걷고싶은 길 조성(시설관리국)
  - 쾌적한 캠퍼스
    - 생활거점 주변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시설관리국)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확충(학생처, 시설관리국)

- 친밀한 캠퍼스

캠퍼스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 활동 개발(학생처)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공유방안 도입(학생처, 시설관리국)

캠퍼스 다양성 존중 및 소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학생처)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학생처)

- 든든한 캠퍼스(학생처)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연계강화

교내 식당에 건강 지향적 메뉴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2)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중점과제 계획안

• 우선중점과제: 2020~2022년에 수행하는 단기과제

- 신규사업이 필요한 과제

휴식과 사색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활기찬 캠퍼스)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든든한 캠퍼스)

- 기존사업을 강화하는 과제

건강관련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활기찬 캠퍼스)

정신건강 지원 및 상담서비스 강화(든든한 캠퍼스)

성폭력 및 인권침해 상담 서비스 강화(안전한 캠퍼스)

-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과제

교내 정신건강 관련 조직 간 연계체계 확대(든든한 캠퍼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든든한 캠퍼스)

• 중장기과제: 2023~2030년까지 수행하는 과제

- 신규사업이 필요한 중장기과제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확보 및 공유방안 도입(친밀한 캠퍼스)

생활거점 주변 오픈스페이스 조성(쾌적한 캠퍼스)

교내 식당에 건강지향적 메뉴 확대(든든한 캠퍼스)

캠퍼스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활동(친밀한 캠퍼스)

- 기존사업을 강화하는 중장기과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태점검 강화(안전한 캠퍼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활기찬 캠퍼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확충(쾌적한 캠퍼스)

다양성 존중 및 소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친밀한 캠퍼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든든한 캠퍼스)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친밀한 캠퍼스)

-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

건강위험요인 접근 및 노출 억제(안전한 캠퍼스)

##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마련 및 교통환경체계 개선(안전한 캠퍼스)

### (3)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우선중점과제 제안: 2021년 실시

- 기존사업강화 과제: “건강주간 지정 및 운영
  - 건강관련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과제의 구체적 모형
  - 월별 건강캠퍼스 테마를 선정하고 각 테마에 맞는 주간 건강 체험활동을 운영
  - 월별 테마는 계절성, 교내 행사 연계성 및 방학 일정 등을 감안하여 건강캠퍼스 협의기구에서 상의 후 선정하고 실무조직에 의견 전달
  - 주간 건강 체험활동 운영방식  
본부에서 기획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교내 동아리를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청 및 공모  
구성원 대상으로 건강 체험활동 아이디어 공모  
외부기관 및 자원연계 활용(구청, 보건소, 복지관, 시민단체 등)
- 신규사업개발 과제: 걷고 싶은 길 조성
  - 휴식과 사색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과제의 구체적 모형
  - 구성원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걷고 싶은 길 노선 추가/정비/개선에 대한 공모 실시  
걷고 싶은 길 노선, 이름, 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전 실시  
구성원의 이용도와 예산,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단과대학별 걷고 싶은 길 조성  
기존 걷고 싶은 길(2015)과 연계하여 단과대학별 산책로 조성  
주요 동선과의 연결성,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거점공간으로서 단과대학별 공용정원 조성  
연중 이벤트 및 프로그램 활용(단과대학별 행사, 이벤트, 소규모 모임 등)  
부지확보가 어려울 시 옥상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고려

## 5.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8. 03 - 2018. 09

- 연구책임자: 조성일(보건대학원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서울대학교 학생복지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학생복지서비스의 제공수준 및 수요현황을 파악한다.
- 서울대학교 학생복지서비스의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서울대학교 학생복지서비스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학생복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체계적으로 마련된 학생복지서비스는 학생들이 대학생활 전반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도 학생복지와 관련된 도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의 반영으로 학생복지서비스의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학생들 중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복지의 일부 영역을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4) 주요 결과

#### (1)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제공수준 현황

해외대학교 사례와 비교할 때, 서울대학교의 학생복지 서비스는 해외대학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생활복지 영역에서 식당의 경우, 해외 대학에서 채식 식단이나 할랄 식단 등의 선택식단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둔 것에 반해, 서울대학교는 선택식단의 제공 여부나 정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없었다. 2017년 교내연구를 통해 2018년부터 할랄 음식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및 교통복지 영역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주차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학내교통에 대한 개선요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케이프타운대학교의 카풀시스템과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참고할만한 사례로 보인다. 소수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도쿄대학교의 임신부를 위한 지원과 멜버른대학의 성소수자 지원은 서울대학교에 없는 복지제도였다.

#### (2)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세부집단 요구도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캠퍼스학생, 부모학생, 장애학생, 불안 및 우울을 느끼는 학생,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학생 등 세부집단을 그 표본으로 하여 각 집단을 대표하는 학생대표기관 및 교내기관을 심층 면접한 결과, 캠퍼스 간의 격차 완화, 아이동반 인프라 구축, 임신출산학생과 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사행정의 영어공지,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구비, 장애학생 교통 및 주거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학습권에 관한 복지에 대한 요구도가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3)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과제

- 생활복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식당 및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복지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설문에서 휴게실과 수면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생활복지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개선과제는 ‘휴게공간의 확충’으로 보인다.
- 건강복지: 소문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현 상황과, 개방형설문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과 홍보에 대한 요구도가 드러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단체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의 제공을 통해 상담센터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공과목 진료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구도가 높은 피부과, 이비인후과 과목에 한해서라도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은 고려해보

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유시간 부족, 필요성을 못 느낌 등의 이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문화복지: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간과 시간대를 파악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의 요구도가 드러난 영화상영, 콘서트 등을 우선적으로 개최하되, 그 장소나 시간에 대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 주거 및 교통복지: 총학생회의 대표가 학생복지 중 교통문제를 꼽았다는 점에서도 교통복지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방형설문을 통해 셔틀버스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드러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내외를 오가는 시내버스에 불만도 확인되었다. 셔틀버스 증차, 배차간격 조정, 방학 중 운행 등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기숙사 신청조건인 거주지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학시간이 긴 서울거주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기타: mySNU에 민원접수메뉴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를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통합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1) 생활복지: 우선순위 2순위(학생처)

- 음식의 질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과 식당 간의 격차 완화: 식당 및 카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격인 점, 직영식당과 위탁식당 간 이용도와 만족도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휴게공간의 홍보 및 확충: 교내 휴게공간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SNU 휴게지도 작성, 각 건물별 휴게실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휴게공간 위치에 대한 홍보와 학생수요조사를 통해 수면실, 남학생 휴게실을 포함한 휴게공간의 확대방안 고민이 필요하다.

### (2) 건강복지: 우선순위 4순위(학생처)

-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확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단체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개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신건강센터와 심리상담기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보건진료소 전공과목 진료 확대: 현실적으로 전공과목 진료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구도가 높은 피부과, 이비인후과 과목에 한해서라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증대: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간 확대가 필요하며, 여유시간 부족, 필요성을 못 느낌 등의 이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3) 문화복지: 우선순위 3순위(학생처)

-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공간대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요구도가 높은 영화상영, 콘서트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내 여가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 학업 외 교내 시간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주거 및 교통복지: 우선순위 1순위

- 교통수단의 개선(시설관리국): 통학환경의 만족도와 학내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셔틀버스 증차, 배차간격 조정, 방학 중 운행 등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숙사 입사조건 개선(학생처): 기숙사 신청조건을 거주지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학시간이 긴 서울거주자의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기타(학생처)

- mySNU 민원창구의 개설: mySNU에 민원접수메뉴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민원을 하나의 창구로 접수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를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통합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 6. 지속가능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연구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9.08.31

- 연구책임자: 강상경 (사회과학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권석만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지원 (의과대학 교수), 이준영 (의과대학 교수), 홍기선 (인문대학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한다. 둘째,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환경 체계를 점검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욕구와 캠퍼스 환경체계 간의 적합성에 대해 진단한다. 넷째, 앞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욕구와 캠퍼스 환경체계 간의 적합성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학생 대상의 정신건강 관련 환경과 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및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신체·심리·사회적 기능의 지표인 정신건강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의 성공적 대학생활 및 대학원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 요건임
-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생애 전환기에 해당되는 성인초기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생애주기 특성상의 정신건강 취약성과 함께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 관련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시기임
- 그동안 대학차원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신체·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 대학생활문화원, 보건진료소,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내 상담센터 및 유관기관 협의체, 등 다양한 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생애주기적 정신건강 취약성과 최근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4)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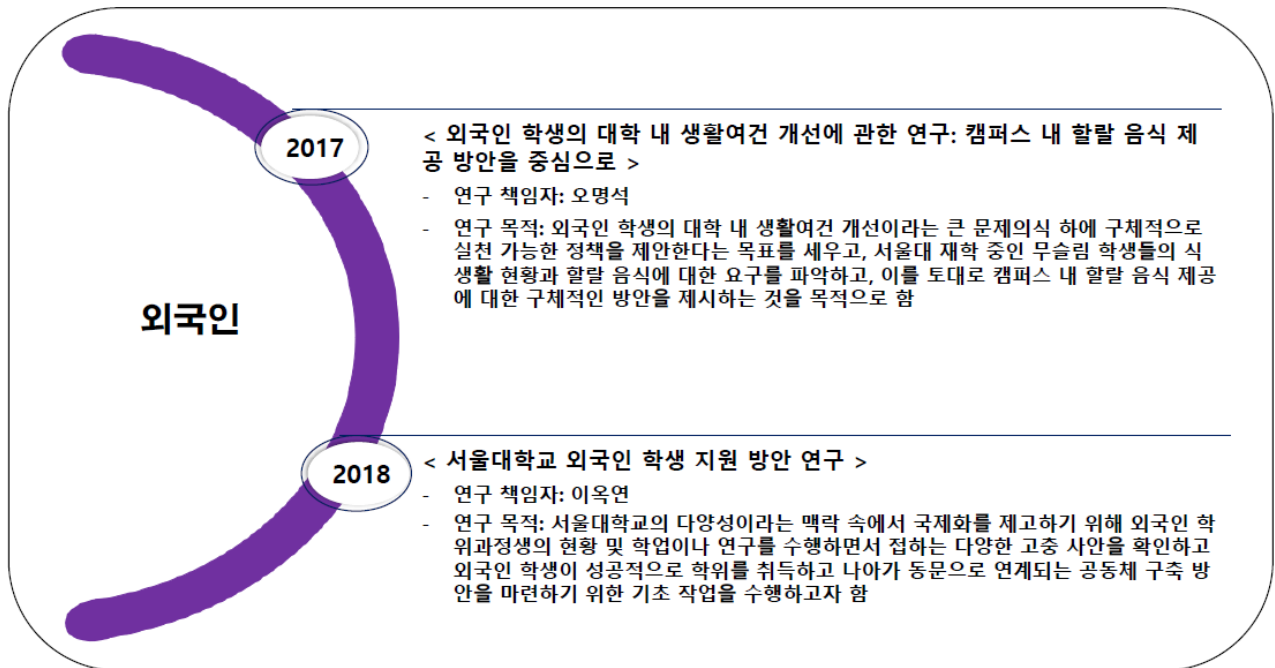
- 전체 학생 분석결과 진로문제(3.49점), 학업문제(3.22점), 심리적 문제(3.14점), 경제적 문제(3.13점)의 경우 5점 만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대학생활 중 해당 문제로 인한 경험을 통해 힘들어한 것으로 나타남
-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즉, 경제적 문제, 학업문제, 적응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 그동안의 학내 학생정신건강 서비스들이 치료와 위기개입에 초점 맞춰왔던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는 치료와 위기개입 뿐만 아니라 예방과 증진, 위기사후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높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내 정신건강 기관들은 예산 및 인력 차원에서 다양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건강 기관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들에게 대응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들은 보통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고통의 정도를 가지고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거나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홍보나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심리적 문제나 정서적 고통감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이 보고한 힘든 문제 영역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예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이전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또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위기 사후 관리의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 발생시 개입과정에서 사건 당사자 또는 주변 학생들에 대한 연락처 획득의 경로가 공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병원 입원 후 공식적인 팔로우업 시스템에 한계가 있음
- 교수님들 대상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의 확대
-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의 대상 확대-일부 취약학생 한정에서 확대하여 일반학생과 관심군으로까지 확대
-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경쟁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에 초점 맞출 수 있는 학습문화 조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형성
- 지속가능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각 정신건강 공급기관들 고유의 역할을 명료히 함, 학내 학생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보고 체계를 구성, 정신건강 실무 기관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의 고정 및 지급 방식 일원화가 필요, 정신건강 실무자의 선발 및 근무제도의 재정비 필요

### Ⅲ.4. 외국인 학생 관련 선행연구

외국인 학생 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외국인 학생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연구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8. 09.

- 연구책임자: 이옥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곽덕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조혜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노유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정혁 (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부 교수), 곽승엽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학위과정생의 현황 및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고충 사안을 확인하고 외국인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나아가 동문으로 연계되는 공동체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3년 간 서울대학교 전체 재적생 중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부생은 감소한 반면 대학원생은 소폭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학원과 학부 사이의 변별점이,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드러나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4) 주요 결과

##### (1) 외국인 현황

- 2018년 4월 1일 현재 서울대학교 27개 단과대학 재적생, 즉 등록생과 휴학생 중 외국인 학생은 총 1,711명이다. 이 중 국제 교환 및 방문학생 총 388명은 비학위과정생이며, 나머지 1,323명이 정규학위과정생이다. 이를 서울대학교 전체 정규학위 과정생과 비교하면, 2018년 4월 현재 외국인 학생 비율은 3.9%이다. 구체적으로 학사과정 1.0%, 석사과정 8.8%,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0.8%로 석사과정생이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생 중 가장 많다. 또한 지난 5년간 수치와 대조해보면, 서울대학교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생 총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통계연보). 특히 학사과정 외국인 정규 학위 과정생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1,323명 외국인 학위 과정생을 지위별로 보면, 박사과정 총 283명, 석·박사 통합과정 총 72명, 석사과정 총 771명으로 대학원생이 총 1,126명이고, 학사 과정생이 총 197명이다. 이는 박사과정 21.4%, 석·박사 통합과정 5.4%, 석사과정 58.3%으로,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생 중 대학원생이 총 85.1%, 학사과정생이 14.9%를 차지한다. 즉, 외국인 정규학위과정 100명당 15명이 학부로, 85명이 대학원으로 입학한다. 이를 서울대학교 전체 대학원생 38.2% 대비 학부생 61.8%과 비교하면,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에는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3명은 의료보험 소지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2명은 기혼자이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2명은 기혼자이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4명은 학교 바깥에서 거주한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의 4분의 1은 정부 초청장학생이다.
  - 문과 계열 외국인 학위과정생의 장학금 대비 학비 부담 비율은 이과보다 낮다.
  - 교육 및 연구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학내 부대 편의 시설 만족도는 낮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3명은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가 없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학업을 이수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 서울대학교 전체 재적생은 학부가 대학원보다 월등하게 비율이 높으나,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대학원이 학부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서울대학교 전체 재적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으나,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둘째,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3명은 의료보험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기혼자이고,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생 대비 기혼자 비율은 평균 19.2%이며, 대학원생이 23.8%, 학부생이 1.1%로 대학원생 기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 (2) 소통 정보: 정착, 생활, 학사

- 외국인 학위과정생은 주로 서울대학교 웹사이트와 지인 추천, 즉 입소문을 통해 유학정보를 얻으며, 봄학기보다 가을학기 입학이 더 많다. 외국인 학위과정생 10명 중 3명은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가 없으며, 점수 보유자 중 3급 이하가 15퍼센트 이다. 입학 직후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OIA, 국제협력본부)가 신입생에게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정보는 유용하다고 여기지만, 재학 중 학업을 이수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전달 수단이 학교 이메일에 한정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 발생 시 학과 사무실이나 한국인 동료를 접촉하나 실질적 도움은 본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편이다.

- 정규학위과정을 이수하기까지 학교 및 단과대학 또는 학과가 체계적 지원과 효과적인 운용 제도를 갖추어주기를 바라는 외국인 학생들의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 및 연구 시설을 포함해 이와 연계된 부대 편의시설을 본부나 단과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크다.
- 유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학사 및 수강신청 관련 정보들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졸업요건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석하는 OIA 오리엔테이션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기숙사 입사 및 퇴사 시에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기숙사 입사 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보를 알고 이것에 대해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버스나 셔틀버스의 시간표도 외국인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신입생 외국인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혹은 캠퍼스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하거나 관련 내용을 담은 간단한 영어 책자를 준비해 배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기타 의견으로, IKC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외국인 신입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위해 이틀 동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으며, 이를 위해 OIA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3) 시설물

- 시설물 사용신청서와 사용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고, 이를 전달하는 부서를 본부 혹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운영함을 모색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반 학생과 교수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과대학 또는 학과 차원의 사전 교육을 동반해야 장애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 학생이 전체 40%에 달하는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 정규학위과정생 5명 중 2명이 학교 바깥에 거주하며, 5명 중 1명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 열여섯 종류의 학내 시설에 있어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의실, 은행, 학습실/연구실, 의료보건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거나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식당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나, 채식 식당 및 할랄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식당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족도가 특히 저조한 시설로는 어린이 보육지원센터와 종교 시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시설안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안내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등의 안내문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예약 등을 위한 문서양식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동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방송 역시 영어로도 함께 제공됨이 바람직하다. 이미 교수아파트 등 일부 시설의 경우 문서에 영어 병기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한국어 및 영어 안내방송이 큰 불편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예산과 비용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안내문에 영어를 병기하고 방송에 영어를 추가하는 문화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통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해도,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과제) 더하여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등 외국인 학생들의 정보취득에 중요한 홈페이지들의 영문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이미 한글 및 영문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영문 콘텐츠의 업데이트는 한글에 비해 무척 더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들이 한글과 영문 모두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해나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4) 이메일과 정보

- SNUMAIL 사용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SNUMAIL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Q20). 그 결과 대부분의 이메일이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 33.8%, 불필요한 스팸 이메일이 많기 때문이 31.9%의 응답률을 보여 다른 이메일 계정이 더 편해서(9%)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UMAIL 외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함보다는 SNUMAIL의 한글 이메일 편중 및 스팸 과다에 따른 불편함 때문인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글 이메일 기반 정보공유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메일 개선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하여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장기적 서울대 발전을 대학의 국제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생 대상 초기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거듭 부각된다.
- 서울대학교에 아직까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체계화된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OIA가 이미 비중 있는 생활정보 제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SNS와 휴대폰 사용이 이미 삶의 모든 부분에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SNS가 서울대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정보 제공에 있어 부수적 기능밖에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 특성은 역설적으로 향후 OIA의 확대개편 또는 타 외국인 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에 있어 SNS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학생 지원 서비스에 있어 그 기능강화 필요성 및 효율제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 하나가 SNS를 통한 보다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영어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5) 장학금

- 서울대학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화의 외형적 성장과 내실화가 동시에 필수적이다. 금번 설문을 통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내 외국인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50% 중반 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혜 장학금에 의한 학비 충당 정도는 양호하나 생활비 충당 정도는 열악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지표들은 내국인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70~80% 수준이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저조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화 지표의 외형적 성장과 내적 충실화를 위하여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중장기적 장학금 확충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6) 수업관련

- 강좌 수 증가에 대한 요구와 별도로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받는 수업에 대한 불만족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 하겠다. 특히 시험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견해도 보인다. 첫째, 장기적으로 이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영어 진행 강좌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당장 부족한 영어 진행 강좌나 낮은 수업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예, 영어 자막이 들어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나 수업 방식(튜터 제도나 지도교수의 개별지도 등)을 고안하여 대학 차원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영어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 수요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지원
- 근로장학금 수혜자 중 영어 가능 학생에게 SNS 정보 전달 및 소통 업무 전담
- 기존 SNU QUILL 영문 매체에서 외국인 학생기자를 모집
- 외국인 학위과정생에 일상생활 상담과 민원 서비스 지원 (스누 버디 확대)
- 외국인 학생이 많은 단과대학들은 추가로 외국인 학생 센터를 설치 및 지원
- 학술적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 주제 교과목 신설
- 외국인 학위과정졸업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자료를 축적 및 홈페이지에 홍보

(1) 학교 전체 수준에서 행정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주택·의료·법률·보험·문화생활 등에 관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 포털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현 OIA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되어야 한다.

(2) 학교 전체 수준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학생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학과 혹은 단과대에서는 학과/단과대 수준에서 외국인 학생의 생활상담 및 학과행사 홍보를 영어로 제공하고 학교 OIA 및 학과와 외국인 학생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3)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수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 학생을 서울대 공동체 안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통합은 외국인 학생의 문제해결 지원을 개선할 뿐 아니라, 서울대 나아가 한국의 대외 교류의 질적 향상에 본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4) 각 학과는 학과 한국인·외국인 전체 졸업생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고 이를 외국인 학생 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과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간 공동체 의식이 생겨 재학 중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교류그룹이 형성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서로에게 커리어 인적 자산이 될 것이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인재 양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

(5) 각 학과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아우르는 학생회 활동을 학업지원, 행사, 예산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2. 외국인 학생의 대학 내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캠퍼스 내 할랄 음식 제공 방안을 중심으로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7. 02.

- 연구책임자: 오명석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남효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학생의 대학 내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큰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대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의 식생활 현황과 할랄 음식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캠퍼스 내 할랄 음식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여년 간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무슬림 유학생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을 위한 복지 전반을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무슬림 학생들이 그동안 캠퍼스 내에 할랄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무슬림의 경우 다른 종교와 달리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 내 생활여건에서 식생활은 이들에게 특히 핵심적인 이슈에 해당한다.

### 4) 주요 결과 (대학원생 관련)

- 서울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이들이 캠퍼스 내 할랄 음식의 제공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할랄 음식의 제공을 소수자 권리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할랄 음식을 특정한 종교와 연관시켜 인식하기보다는 비무슬림인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음식 종류로 인식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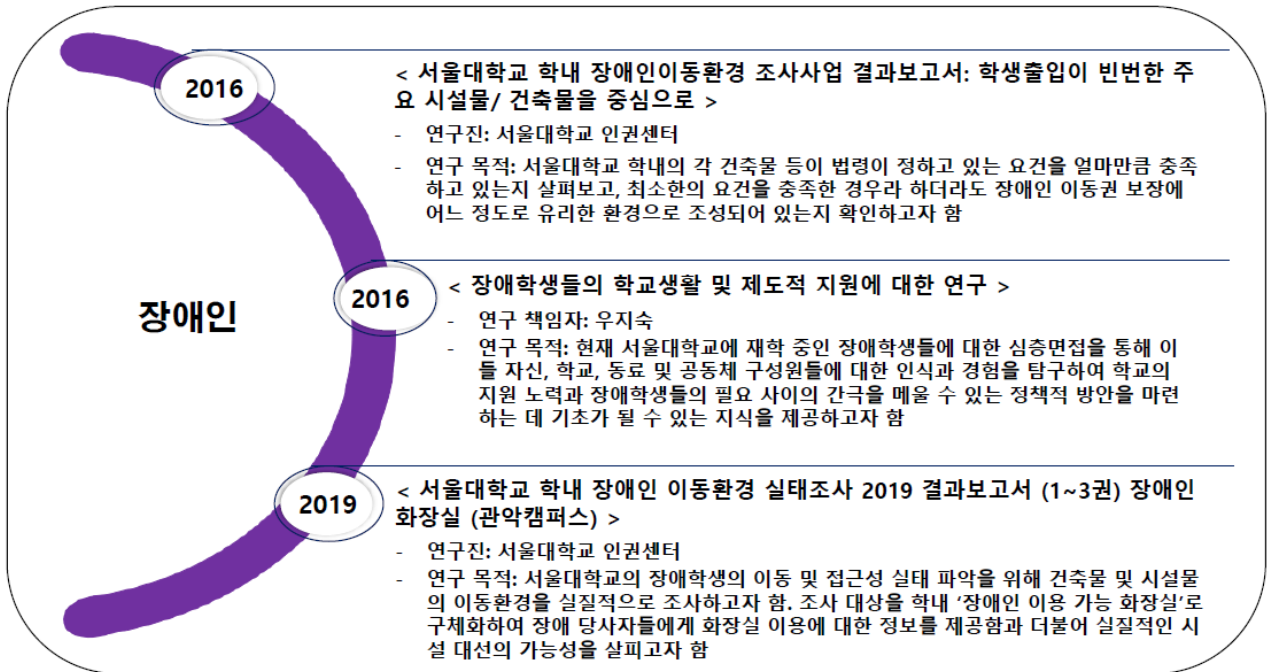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대학원생 관련)

- 서울대 학생식당의 기존 식단에 할랄 식단을 추가
- 생활협동조합이 직접 혹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할랄 음식 코너 운영

- 학생회관 · 중앙도서관 · 대학본부 등이 위치한 캠퍼스의 중앙 지역 및 기숙사에 우선적으로 할랄 코너 제공
- 제공되는 할랄 음식의 식재료와 조리 과정에 대한 무슬림 학생들의 신뢰 확보
-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할랄 코너 영업 (학기 중 주 5일 점심 할랄 식단 제공)
- 할랄 코너를 이국적 음식 코너로 특화 (할랄 코너에서 서양 음식, 동남아 음식, 인도 음식, 중동 음식과 같은 이국적 메뉴를 제공)
- 할랄 코너의 음식 가격을 학생식당의 일반 메뉴보다 높게 책정 (일반 메뉴보다 식수가 적어 4,000-5,000원 사이에서 제공)

### Ⅲ.5. 장애인 관련 선행 연구

장애인 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장애인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 이동환경 실태조사 2019 결과보고서 (1~3권) 장애인 화장실 (관악캠퍼스)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9. 2.)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성 실태 파악을 위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이동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학내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로 구체화하여 장애 당사자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의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학 내 자율적인 이동권 및 접근권의 부재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장애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들의 비율은 약 71.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학생의 비율 역시 전체 장애학생 중 49%에 달한다.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에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4) 주요 결과 (대학원생 관련)

- 인문대학: 총 9개 건물 중 8개 건물에 최소 1개 이상, 총 22개의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사범대학: 총 6개의 건물 모두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최소 1개씩 이상 설치되어 있다.
- 법과대학: 총 5개의 건물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건물 중에서 가장 추천할만한 단과대 건물).
- 사회과학대학: 총 5개의 건물 모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우수 평가를 받은 화장실 비율이 낮았다.
- 음악대학/미술대학: 총 9개 건물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은 4개로 예술대학 건물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설치율을 보였다.
- 경영대학: 총 2개 건물에 모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59동(LG경영관)은 1층에서 바로 이용가능하고 내부가 넓고 쾌적하다.
- 생활과학대학: 총 1개의 건물이 있고, 지하 1층과 1층에 각 1개씩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 약학대학: 총 5개의 건물 중에서 4개의 건물에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자연과학대학: 총 16개의 건물 중에서 조사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 공과대학: 단과대학 건물 중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은 총 22개로 파악된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총 5개의 건물에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12) 수의과대학: 단과대학 5층에 설치된 두 화장실은 세 기준에서 모두 보통 평가를 받았다.
- 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총 8개의 각 전문대학원 건물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 중앙도서관: 관정관과 본관 총 2개의 건물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문화시설: 학내 문화시설 (체육관, 문화관 대강당/중강당, 박물관, 미술관)은 총 6개의 건물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 기타 (행정·복지·교육·연구시설 및 식당):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행정업무, 연구, 교육, 식사, 문화 공간 및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 건물들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전체가 실격 평가를 받은 건물이 둘 있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대학원생 관련)

- 인문대학: 각 화장실의 실제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화장실이 미흡 판정을 받아 인문대학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전반적인 개선 필요
- 사범대학: 실제로 조사한 결과 총 10개의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이 실격 및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
- 법과대학: 17동(법학관2)의 경우에는 ‘남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만 있으며 84동(근대 법학100주년기념관)에는 화장실 문이 좁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사회과학대학: 추천할만한 화장실은 64동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내부 공간 및 안전바 설치가 규격에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대체로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음악대학/미술대학: 총 9개의 건물 중에서 추천한 화장실 이외에는 모두 미흡 또는 실격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함
- 경영대학: 보통 경영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하는 58동에 설치된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전용칸) 5개 중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화장실이 없어 개선 필요
- 생활과학대학: 두 개 모두 전용 화장실로 여자 화장실 1개, 공용으로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2개의 화장실 모두 사용하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약학대학: 143동을 제외하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서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시급함
- 자연과학대학: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율에 비하여 이용적합성은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 공과대학: 한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이 사용불가능한 경우 해당 건물 내에서 대안으로 갈 수 있는 화장실은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농업생명과학대학: 추천할만한 화장실로는 200동 생명관과 상록관의 화장실로 시설과 내부 공간에서 우수평가를 받음
- 수의과대학: 도서관 건물에는 전용 화장실 2개가 안전바 양쪽 거리가 약간 먼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과 내부 공간이 우수함
- 전문대학원: 많은 화장실들이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 시설과 소모품, 잠금장치 고장 등은 쉽게 개선 가능
- 중앙도서관: 24개라는 많은 화장실 개수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개선 필요
- 문화시설: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 적합성 측면에서는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나, 진입이 힘들거나 화장실 내부에서 움직이기 힘든 곳이 많아 개선 필요
- 기타 (행정·복지·교육·연구시설 및 식당): 이 건물들의 특징은 특정 단과대 학생들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구성원들이 두루 사용하며 외부인들의 방문도 자주 있어 행정업무를 보거나 대규모 강연에 참여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학내 생활과 관련된 기타 시설 건물에도 개선 필요

## 2.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이동환경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학생출입이 빈번한 주요 시설물/건축물을 중심으로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6. 2.)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서울대학교 학내의 각 건축물 등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는지 살피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유리한 환경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수자 중 하나이다. 특히 이동권

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할 수 있는 접근권은 많은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 구내 건축물 등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면밀히 검토된 바 없다.

#### 4) 주요 결과 (대학원생 관련)

##### (1) 인문대학 강의동

- 접근로 항목 조사에서 측정불필요 및 미흡의 평가가 다수였다.
- 주출입구의 경우 모든 동에서 세부항목에서 1개 이상의 미흡평가를 받았다.
- 승강기 항목의 경우 승강기 문 폭의 세부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는 없었다.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단차 세부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강의실 문의 유효 폭은 조사 결과 1m 이상 최우수 평가는 없었다.

##### (2)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 접근로 많은 경우 기울기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고블록이 부재함.
- 주출입구의 단차는 모두 최우수로 측정됐으나 사회대 정문 경고블록이 부재함.
- 승강기 항목의 경우 전면 활동 공간과 유효바닥 면적, 경고블록에서 양호한 수준.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단차 세부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강의실 문의 유효 폭은 0.8m에서 1m 사이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 (3) 중앙도서관 및 관정도서관

- 접근로 항목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주출입구의 경우 중앙도서관 제2열람실은 외부와 연결된 주출입구가 부재했다.
- 승강기 항목의 관정도서관 1층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단차 세부항목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중앙 복도는 대체로 넓었으나 개별 복도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생 편의시설

- 접근로 항목 조사에서 중앙전산원 방향은 세부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 주출입구의 유효폭의 경우 편의점 시설을 제외하고 1.75m 보통 평가를 받았다.
- 승강기 항목의 경우 학생회관 문 폭이 0.9m로 측정되어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학생회관 문의 유효폭이 0.75m로 상당한 제약이 예상됨.
- 중앙 복도는 두레문예관 복도 경우 복도 유효폭이 모두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대학원생 관련)

조사 결과, 2016년 현재 서울대학교 학내 시설물이 지닌 미흡한 지점들이 주출입구, 일반출입문, 복도,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강의실 항목에서 여럿 발견되었으며, 조속한 조치와 향후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또는 증축이나 보수 계획에 있어 더욱 엄격한 배리어프리 기준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나감으로써 장애인 이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3.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연구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6.09.

- 연구책임자: 우지숙 (행정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최태현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경험, 학교에 대한 인식과 경험, 동료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구하여 학교의 지원 노력과 장애학생들의 필요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는 2000년대 이후 그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의 수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장애학생들의 세세한 필요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수요자인 장애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분석하여 세부적인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기획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학생 재학생 수를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장애학생 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된다. 또한 2010년까지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전형에 비해 더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많아진 점도 발견된다. (평균 전체 학생의 0.2-03 퍼센트인 60에서 70명 사이)

- 현재 정시위주의 입학 과정을 수시로 확대 필요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서 청각장애 와 시각장애 학생들의 비중이 유사하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장애의 경우 2008년 입학생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의 기타장애 학생은 지적 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학부생 중심 연구, 대학원생 실태조사 필요

#### 4) 주요 결과 (대학원생 관련)

- 장애학생의 선발 영역은 보다 근본적인 본부 차원의 장기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장애학생, 특히 중증장애학생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그간 장애학생 지원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 장애학생들에게 실제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장애학생들 스스로의 인식과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
- 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고가의 보조공학기기의 교체/유지에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강의실에 들어가 보고 담당 강사를 만나보기 전에는 본인이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미리 알기 어렵다.
- 기존에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하던 도서관 대출서비스 특례가 폐지되었다.
- 장애학생들은 진로에서 일반 학생들에 비해 진학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지체장애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상버스를 조기에 증차해줄 것을 원하였다.
- 장애학생휴게실이 최근 오후 6시로 개방시간이 단축된 부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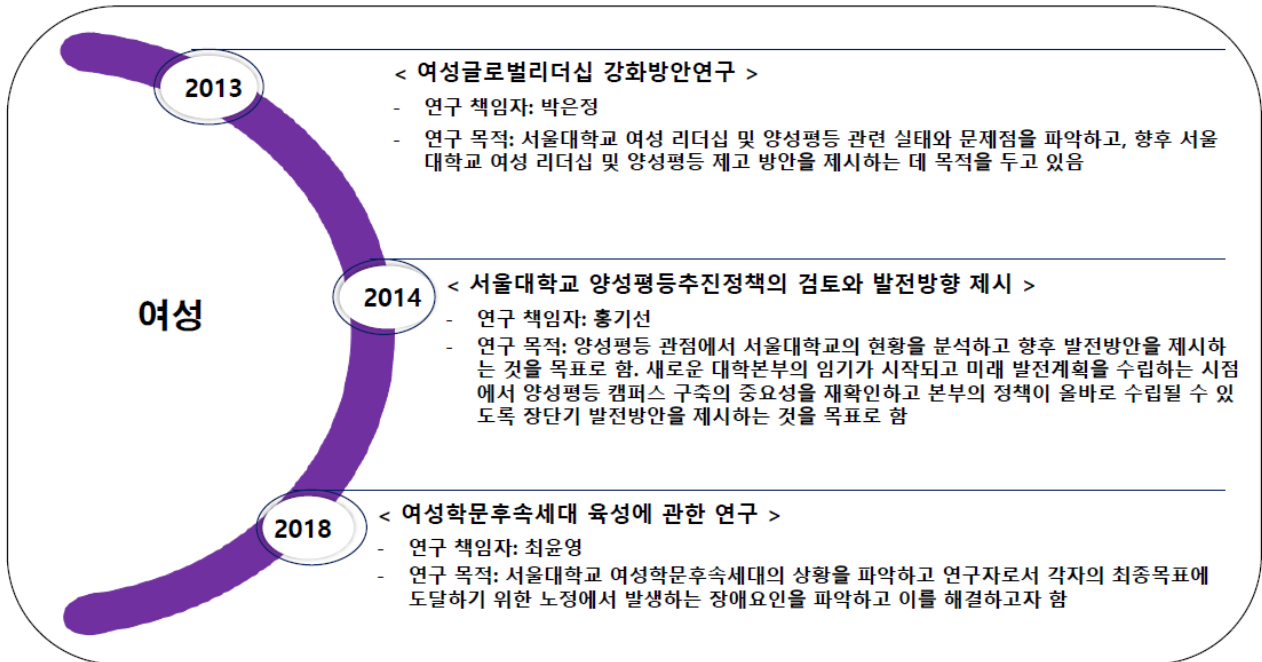
- 캠퍼스 내의 장애학생 지원이 어느 정도 성숙함에 따라, 이제 장애학생 지원 장기계획의 초점은 지원역량 확충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으로 옮겨질 필요
- 장애학생들의 지원과 입학 사정, 최종 입학 추이에 대한 본부 차원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적 위상을 인력의 확충, 결재라인의 정비, 협업 구조 상 사업의 발의 권한 등을 통해 강화 필요
- 장애학생들이 학교로부터의 해당 지원들을 제도화하여 확실성과 기대가능성을 높이고, 지원당사자 역시 자신의 의무의 범위를 명확한 인식 필요
- 장기적이고 뚜렷한 정책목표와 비전에 맞추어 장애학생을 위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미 있는 결정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필요
-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대여 서비스, 장학금 기준 차등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 필요
-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학생들의 수강신청 내역을 파악하여 선호하는 과목의 목록, 특징,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
- 장애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대출서비스 특례 회복 필요
- 경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뿐 아니라 국내외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 필요
- 일반 지도 및 건물 구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지도정보의 구축 필요
- 산악지대인 캠퍼스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동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
- 장애학생들이 무척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장애학생 휴게실을 기존과 같이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는 단순히 특정한 범주의 사회적 집단에 대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이 사회의 정당한 소수자로서 장애학생,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장애학생의 권리증진을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미션과 정책 목표에 비추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장애학생을 선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공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울대학교에 걸맞은 시스템을 장기적인 목표로 구축해야 함

### III.6. 여성 관련 선행 연구

여성 관련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여성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3.12 (2013.6-2013.11) 여교수회 주관

- 연구책임자: 박은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연구원: 권숙인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연수 (사범대학 교수), 민은기 (음악대학 교수), 윤순녕 (간호대학 교수), 이현숙 (자연과학대학 교수), 조은수 (인문대학 교수), 최현자 (생활과학대학 교수)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여성 리더십 및 양성평등 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대학교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양성평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및 발전 틀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양성평등 및 여성 리더십 제고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사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교수들의 참여 확대가 요청되며, 여학생 수 증가 및 사회 진출 확대에 부응하여 서울대 고유의 여성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증가하는 교내 다문화 출신

여학생 및 여교수들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여직원들의 리더십에 대한 고려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4) 주요 결과

- 여성 리더십 및 양성평등 관련 학내 기존연구 『서울대학교 여학생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학교원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콜로키움』 (2007), 『대학 Staff의 성인지적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2008), 『여교수 채용확대 방안 연구』 (2008),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서울대학교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10)를 분석 요약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학부의 여학생은 평균 40%를 넘고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적었던 공과대학, 자연과학계열, 의과대학 등에서도 꾸준히 증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 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은 주요 대학에서 50%를 이미 훌쩍 넘고 있으며 이는 본교 출신 학부 학생들 뿐 아니라 타대학 여학생들까지 상당수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다.
- 증가하고 있는 여학생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의 여교수만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세계 대학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증가하는 여학생 비율에 대비하여 여교수 비율이 10% 미만인 학과들이 전체 학과의 절반에 육박하는 교육 불균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여교수 임용 목표제 제도입 및 실질적 추진 로드맵 마련
- 여학생들의 공공리더십 향상과 롤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졸업 후 커리어 추적 연구과제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 발휘 기회 제공 및 과목 개발
- 평의원회 구성, 본부 보직 구성 등에서 여성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과 거버넌스 참여 진작
- 여교수의 대표성과 거버넌스 참여 진작을 위해 모집, 채용, 승진 과정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백서 발간
- 여교수 및 여성 학문후학세대들의 ‘독특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2. 서울대학교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4.12

- 연구책임자: 홍기선 (인문대학 교수)
- 공동연구진: 김정희 (미술대학 교수), 배운경 (사회과학대학 교수),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임혜란 (사회과학대학 교수), 전화숙 (공과대학 교수), 한영혜 (국제대학원 교수)

## 2) 연구목적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대학본부의 임기가 시작되고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양성평등 캠퍼스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본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장단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가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여성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 세계의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장차 글로벌리더로 활동할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 법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세계무대로 내보낼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 4) 주요결과

- 현 시점에서 15-20년전 학부 여학생 비율을 고려할 때 신입교수 중 여교수 임용 비율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 미술대학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980-1990년대 학번 학부졸업생 중 학문후속세대들의 현재 취업상황을 조사하여 여자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이 열악함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졸업생들은 석사학위 취득, 박사과정, 박사학위 취득, 전임교원 임용의 각 단계에서 심각한 누수현상을 보임. 졸업생들의 경력 추적연구가 필요함을 제안

- ① 여교수 임용목표제(학과, 단과대학별) 제도입과 추진 로드맵 확정
- ② 서울대학교 학부출신 여성들의 교수 임용에서의 불평등 개선 조치 마련
- ③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진작
- ④ 본부 차원의 백서 발간과 정례화(예: “여성인력 참여확대를 위한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추진위원회, 2011)
- ⑤ 학내 모든 부모구성원을 위한 학내 단기탁아시설(수업시간 동안 아기를 맡아줄 수 있는 시설)과 수유시설 마련
- ⑥ 양성평등 지원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전담인력 배정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주로 여교수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아래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수행과 결과 공개는 대학원생을 위한 제언에도 해당된다.

- 다양성 교육 방안 연구
- 졸업생 경력 추적 연구
- 대학원생의 학문 발전 연구
- 부모 구성원들의 학문/복지 연구
- 외국인 구성원들의 학문/복지 연구



### 3. 여성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연구

#### 1) 연구기간 및 연구진: 2018.10.30.

- 연구책임자: 최윤영 (인문대학 교수)
- 공동연구원: 서은영 (간호대학 교수), 조성욱(경영대학 교수), 정효지 (보건대학원 교수), 최계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윤정 (여성연구소)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의 여성학문후속세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자로서의 각자의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연구의 일부분으로 추진되었다. 여성학문후속세대의 학문배관에서의 누수현상(leaks in the academic pipeline)을 각 학문 분과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stop the leaky pipeline)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각 대학원에서의 여성학문후속세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대학원과 간호대학이 참여하였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울대학교의 경우 2018년의 통계가 보여주듯 전체 학부 여학생 비율(41.8%)에 반하여 여교수 비율(15.7%)은 상당히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문후속세대가 교수진으로 자리 잡기 까지 각 학문 분야마다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지만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볼 때 2001년의 30.7%나 2008년의 37.4%의 등록생 여학생 비율을 고려해본다면 여전히 여교수 비율은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주요 결과

##### (1) 법학전문대학원

- 대학원생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대학원생들이 고립되어 있고 대학원 생활을 하거나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 지원자격이 있는 장학금 제도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전공이나 배우자의 수입으로 인해 실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어렵다.
-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로 인해 경력이 질적으로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고, 학회 뒷풀이 등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에 참여하지 못해 채용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채용기회에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

##### (2) 경영대학

- 학부/석사/박사 연계과정을 마련하여 박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박사과정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학생이 학문 추구하고 개인적인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의사결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박사학위는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학금을 받는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박사과정 4년 수료 이후

서울대학교 학부 수업을 진행하는 수료생에게 장학금, 또는 저금리 학자금 융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논문에 집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의 논문 작성 및 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실증분석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센터, 영어 논문쓰기 강좌, 영문 및 국문 논문 편집 서비스, 체육관시설 이용, 석,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경력/상담센터 운영 등의 지원 강화는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학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육 과정 중 결혼 및 출산을 하는 학생을 위해 대학 내부의 보육원 및 유치원 시설 확충을,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여학생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 (3) 간호대학

- 학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개인적인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 학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주제로 도출됨
-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직장과 육아 까지 병행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는 중등도였고, 학업에 대한 만족도도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여성학문후속세대의 수직적 ·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건대학원의 공통 과목의 증설, 학과 및 연구실들이 함께 하는 학술활동의 확대, 구성원의 친목 및 학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육아 및 가사를 병행하는 기혼 여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 학문을 지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 · 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원생의 임신 및 출산 휴가제도, 대학교 내 어린이집 등원 지원 등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여성 학문후속세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교수와 학생간의 멘토,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생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필요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되 지원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여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시급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산, 육아를 포함한 학업 관련 정보를 총 망라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본부 차원의 여성담당관의 채용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학내에 여성담당관을 두게 된다면 여성 학문후속세대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및 관련 제도와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학문후속세대의 불안정한 지위는 생애주기와 경력에 있어 학생, 직업인, 부모, 연구자의

위치에서 진동하게 될 때, 또는 개인과 가족의 변화(혼인, 임신, 출산, 부모등의 역할)에 대해 개별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생애주기 상에서 독립된 개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임신, 출산, 초기 아동양육기 부모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 이러한 지위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신, 출산, 초기 아동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대학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나 배려 등이 요구된다.

대학원 특정 정책반영이 요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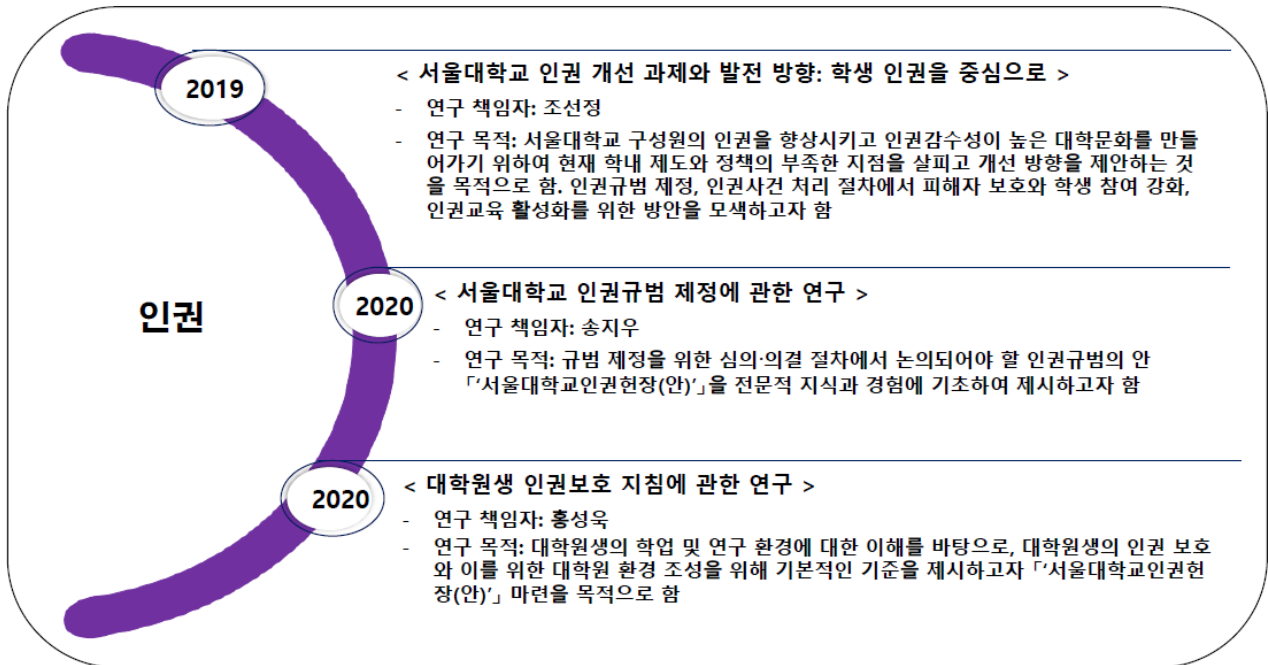
- 임신, 출산중인 학생, 부모학생에 대한 포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였다. 현재 서울대 보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의 확대와 증설, 가족생활동의 확대, 학교내 키즈카페 운영,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마련 등이 요구된다.
- 학문후속세대들은 다양한 위치에서 개인과 가족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미혼/기혼, 자녀 유/무, 임신•출산, 학업과 회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유무형의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재정적 지원으로서 엄마장학금, 가족수당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였다.
- 연구실, 회의, 친목행사 등에서, 미혼중심, 남성중심의 획일적 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이러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구실과 회의, 포럼, 친목행사 등은 우선 미혼의 일반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혼여성,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연구자가 이러한 행사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문화가 존재한다. 학교 내의 행사, 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 석박사학위 이후의 취업정보 제공과 지원, 경력관리문제, 교수 또는 연구자, 그 외의 진로에 대한 상담•정보제공•지원이 절실함을 토로 하였다. 여성학문후속세대의 경우 개인과 가족의 역할로 인해 자신의 경력단절과 지속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4. 기타

여성연구소 2016년도 정책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여성 학문후속세대의 현황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인문대학, 사회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영어권 철학계의 경우를 분석)와 여성연구소 2017년도 정책연구과제 <여성 학문후속세대 네트워크 구축연구> (국어국문학과, 물리학과, 컴퓨터공학부, 농업경제학 전공, 음악대학, 의과대학 기초연구 분야의 사례를 분석) 연구보고서는 선행연구 검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 III.7. 인권 관련 선행 연구

인권 부분 선행연구의 개요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인권 관련 선행 정책연구의 개요

#### 1.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1) 연구기간 연구진: 2019.03.30. (2018.09 - 2019. 03)

- 연구책임자: 조선정 (인문대학 교수)
- 공동연구진: 이주영 (인권센터), 김채운 (인권센터), 서경원 (인권센터), 김주형 (사회과학대학), 신윤진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창 (대학원총학생회), 홍지수 (대학원총학생회), 박인국 (생명과학부 대학원 자치회장), 김보미 (제58대 총학생회장), 박성호 (제60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백지은 (학생), 정다운 (학생)

#### 2) 연구목적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인권감수성 높은 대학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현재 학내 제도와 정책의 부족한 지점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표는 인권규범 제정, 인권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학생 참여 강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권센터에서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를 2014년, 2016년 두 차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한 바 있지만, 체계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첫째, 학내 인권 관련 규범을 점검하고, 대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공유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규범의 내용과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 간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인권 침해의 효과적 예방과 해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둘째, 인권사건 관련 학내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학내 인권 사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학생의 절차적 참여 확대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인권의제일 뿐 아니라, 대학의 사건 해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육기관 본연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 4) 주요 결과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학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는 규범이 필요한데, 우리 대학은 그러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학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인권규범을 제정하고 널리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우리 대학공동체에 필요한 인권규범은 크게 두 가지, 즉 보편적 인권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권리장전’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인권지침’이다. 이 중에서 권리장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장전은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여야 한다. 대학 공동체 전반에서 인권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상위의 인권규범으로서 ‘권리장전’을 우선적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원생 등 세부영역에서 구체적인 ‘인권지침’이 마련, 실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권리장전은 서울대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학내 정관 등과 연계하여 규범력이 담보된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해자 보호의 일반 원칙을 실현하고 피해자와 공동체의 안전과 회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인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규정 신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징계규정의 개정, 인권센터 심의절차에 학생 심의위원 참여 보장을 위한 인권센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징계 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의 보호, 안전,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규정의 신설과 담당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등의 형태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학생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학생의 관점을 반영하고 학생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학생 심의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

## 2.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 1) 연구기간 연구진: 2020.01.31. (2019.06.01.-2020.01)

- 연구책임자: 송지우 (사회과학대학 교수)
- 공동연구진: 신윤진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영 (인권센터), 김주형 (사회과학대학 교수), 김덕수 (사범대학 교수), 정대현 (국제협력과장), 이우창 (대학원총학생회), 김다민 (제61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성예진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강민주 (법과대학 박사과정)

### 2) 연구목적

인권규범 제정을 위한 학내 숙의와 제도화 과정에 활용될 규범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규범 제정을 위한 심의·의결 절차에서 논의되어야 할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초안(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안)’, 이하 ‘인권헌장(안)’)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제시하며, 인권헌장(안)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논의를 소개하고, 인권헌장(안)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학내 규범이 있지만, 보편적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원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규범은 부재한 상태이다. 「서울대학교정관」은 제2조에서 대학의 목적과 지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성원의 인권과 구성원 및 대학의 인권 존중 책무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학생에 한하여 제41조에서 “우수한교육연구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상담·조사·구제·정책 개발 및 교육 등 인권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권’,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헌장」은 대학 구성원들이 지니는 구체적 인권과 관련 의무는 밝히지 않는다. 더 중요하게, 「서울대학교헌장」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을 뿐 학내 규범체계 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학내 인권규범 제정 추진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서울대학교인권가이드라인」은 대학 내 공식적인 규범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확립하는 규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4) 주요 결과

-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초안(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안)’, 이하 ‘인권헌장(안)’)을 제시하고 설명하며, 그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학내 규범화 방안을 검토
- 인격권(2조), 차별금지과 평등권(3조),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4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5조), 학업·연구·교육에 대한 권리(6조), 연구·교육·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7조),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8조),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9조), 성적자기결정권(10조), 사생활의 권리(1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12조), 참여권(13조), 그리고 적정 절차에 관한 권리(14조)를 규정
- 일반 원칙과 의무 조항으로 국제법, 헌법 등 여타 규범과 인권헌장 규범의 관계(15조), 헌장 내 권리의 상호관계(16조), 그리고 이행 조치(17조) 및 침해 구제 조치(18조)를 규정
- 서울대학교와 구성원의 의무는 16조~18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

## 5) 연구보고서의 제언

- 인권헌장(안)에 포함된 규범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 절차가 서울대학교의 거버넌스 구조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
- 인권헌장(안)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서울대학교 정관에 위임규정을 두고 인권헌장을 학내 규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 인권헌장이 「규정」의 형태로라도 일단 제정되면 학내에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이 확보되며, 정관에 위임규정을 함께 둘 경우, 정관이나 학칙이 인권헌장보다 형식상 상위규범이라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정관에서의 위임규정을 통하여 인권헌장이 고양된 규범적 근거와 정당성, 지위와 효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재의 학내규범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인권헌장의 공식적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됨.
- 규범화 이후 실행을 위한 조치: 첫째, 인권헌장의 제정에 따라 학내 여러 관련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인권헌장의 이행과 인권헌장 위반 사건의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인권헌장 이행의 체계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헌장의 해석과 적용, 인권헌장 위반 사건의 해결과 구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학내 전담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의 배치와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헌장이 학내에 실효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헌장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과 매뉴얼, 사례집의 작성과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권헌장, 해석지침 및 구제절차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헌장의 준수가 구성원들의 일상에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장내용과 구체적 적용에 대한 숙지와 토론, 개선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실무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

### 1) 연구기간 연구진: 2020.03.31. (2019.06.01.-2020.01)

- 연구책임자: 홍성욱 (자연과학대학 교수)
- 공동연구진: 유성상 (사범대학), 윤성로 (공과대학), 이주영 (인권센터), 김현숙 (인권센터), 김지은 (인권센터), 유현미 (사회과학대학 박사과정 수료), 박인국 (자연과학대학 석박통합과정 수료),

### 2) 연구목적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와 이를 위한 대학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이 천명한 인권 가치와 규범이 대학원생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각 대학원, 학과(부), 지도교수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그 외

대학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행위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권센터와 대학원생총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인권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대학원생 인권문제에 대한 학내 규범의 확립과 공유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고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명시적 학내 인권규범은 부재하였다.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방향> 연구(2019)는 대학 차원에서 공통의 인권 가치와 기준을 확립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진단하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인권규범을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다른 학내 구성원 또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학생이자 연구자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학내에서 교육·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원생의 다중적 지위는 그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 취약함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내 여러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지침(안)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 4) 주요 결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안) 마련

- 제1장 총칙에서는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목적과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다. 실제적 내용은 학업과 연구 환경(제2장), 적절한 연구 및 업무 조건(제3장),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 대학원 문화(제4장)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 제2장은 모든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것으로,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제3조), 양질의 교육과 연구 지도(제4조), 지도교수 변경(제5조), 연구·창작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제6조), 공정한 평가와 심사 보장(제7조), 건강하고 안전한 학업 및 연구 환경 보장(제8조), 학업·연구와 가족생활 병행 존중과 지원(제9조), 대학원에 관한 정보 제공(제10조)을 규정한다.
- 제3장은 대학원생이 조교, 연구원 및 교수의 개별 활동 등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시간·업무내용, 인건비·장학금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 등 정당한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활동이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해당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은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 대학원 문화를 위한 기본적 원칙으로서 차별금지와 평등(제13조), 인격권 보장(제14조), 부당 지시 금지와 사생활 존중(제15조),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제16조)을 규정하였다.
- 제5장은 대학원생 인권지침에 포함된 규범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인권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제17조)와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적 원칙(제18조)을 명기하고 있다.



### Ⅲ.8. 대학원생 대상 학내 설문조사 요약 <표 4>

	인권센터(2016)	조성일 외(2018)	대학생활문화원(2019)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2020)
연구목적	2012,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건강권 추가	학생복지서비스의 제공수준, 수요현황, 만족도 조사하여 개선 제안	대학원 생활 및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교육 및 대학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응답자수	1,222명 응답	학부생 924명, 대학원생 981명 등	1,363명 응답	6,199명 응답(응답률 29.4%)
조사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성희롱/성폭력, 학업 및 연구에 대한 권리, 노동권</li> </ul> </li> <li>•교육·연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연구환경 (학비와 생활비 조달 및 수준)</li> <li>- 장학금 수혜, 근로환경</li> </ul> </li> <li>•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와 우울감, 삶의 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복지(등록금, 장학금 지원)</li> <li>•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 휴게시설, 편의시설,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영 등</li> </ul> </li> <li>•건강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건강검진, 체육시설 이용</li> </ul> </li> <li>•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감상실, 박물관, 대생원 등</li> </ul> </li> <li>•주거복지(기숙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생활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li> <li>•대학원 생활 실태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학시간, 지도교수와 관계, 고민사항 등</li> </ul> </li> <li>•대학원생으로서의 역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직후와 현재의 역량 수준 인식</li> </ul> </li> <li>•학생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안정, 주거생활, 식생활, 교통환경, 건강지원, 진로지원 등</li> </ul> </li> <li>•학생 복지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li> <li>•교육일반 만족도(교수진 만족도)</li> <li>•교육과정 측면 만족도(수업 관련)</li> <li>•행정 및 복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시스템, 정보취득, 편의시설, 장학금 지원 등</li> </ul> </li> <li>•연구지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참여 기회, 논문지도, 학술자료 서비스 등</li> </ul> </li> <li>•교육환경 만족도(공간, 교우관계 등)</li> <li>•부서별 서비스 만족도</li> </ul>
주요결과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상황은 대체로 열악하다고 응답</li> <li>•근무실태는 적절한 업무 범위 및 근무시간 확정 및 준수 필요</li> <li>•대학원 실험실 안전 문제</li> <li>•건강상태는 우려스러운 수준 (EQ-5D 지수 평균이 동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남)</li> <li>•부모학생 지원</li> <li>•정보접근경로의 합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복지: 휴게 공간 확충이 우선</li> <li>•건강복지: 상담센터 접근성 제고</li> <li>•문화복지: 영화상영, 콘서트 등</li> <li>•주거 및 교통복지: 셔틀버스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개선, 주차문제 등</li> <li>•기타: 포털에 민원접수창구 개설</li> <li>•세부집단 요구도: 캠퍼스 간 격차, 아이동반 인프라 구축, 영어공지, 장애학생 교통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li> <li>•가장 낮은 만족도는 장학금 지원</li> <li>•학교에 머무는 시간 하루 평균 10.05시간, 통학은 주 평균 5.2일</li> <li>•지도교수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논문지도’, 본인이 더 노력</li> <li>•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진로</li> <li>•대학원 강의 부분은 개설과목/다양성 부족을 일순위로 꼽음</li> <li>•역량은 향상되었다고 평가</li> <li>•가장 시급한 개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의 모든 만족도가 보통 수준 (3.5-4.0)이며, 장학금 지원제도 만족도 및 편의시설 만족도 낮음</li> <li>•대학원생의 휴식 및 연구공간 확보</li> <li>•거의 모든 조사 항목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li> <li>•교육과정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응답 결과는 ‘타 전공과의 융합 또는 연계성’ 등</li> </ul>

#### <참고자료>

1.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2016),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보고서』. ※ 대학원 총학생회와 공동연구
2. 조성일 외(2018),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3. 대학생활문화원(2019), 『대학생활의견조사(대학원생)』.
4. 임철일 외(2020), 『201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2018년 개발한 학부생 설문 기반으로 대학원생 설문 개발

#### IV. 선행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현황

##### IV.1. 교육 부분 정책 반영 현황

##### 1. 국가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박사교육 및 박사후연수과정 경쟁력 강화방안

번호 답변기관	국가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박사교육 및 박사후연수과정 경쟁력 강화방안	2020
〈교육 1-1〉 교무처	제언 내용: 박사교육 핵심역량 강화 공통 커리큘럼 운영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교육 1-2〉 연구처	제언 내용: 박사과정생 재정지원 확대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4단계 BK교육연구단(팀)의 우수한 해외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높은 잠재력과 뛰어난 연구역량을 지닌 외국인 박사후 연구원을 선발하여 유치 경비 지원 예정(2022년 시행)이며, 2021년부터 BK4단계 국제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참여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음	
〈교육 1-3〉 연구처	제언 내용: ‘SNU 초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안)’의 도입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예산 및 재원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연구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교육 1-4〉 경력개발센터	제언 내용: 박사후연구원 경력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경력개발센터는 비학술부분을 지원하고 있기에 박사후연구원은 대상 특성상 해당 전공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협동과정 · 다전공 확대 및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연구

번호 답변기관	협동과정 · 다전공 확대 및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연구	2020			
〈교육 2-1〉 교무처	제언 내용: 학부 연합전공의 운영을 위한 풀 타임 비전임 교원 채용 등 강사초빙 제도의 개선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융복합 분야 전임교원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전임교원 증원 등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			
〈교육 2-2〉 교무처	제언 내용: 대학원 협동과정에 다양한 전공의 교과목 개발 현황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현황을 하단에 간략히 기재 바랍니다 그리스문체연습(131.503A,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전공) 등 협동과정 주관의 604개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 2-3〉 교무처	제언 내용: 협동과정, 융합과정등에 대한 참여교수의 교과목 강좌 확대 개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혜택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겸무 활성화를 위한 책임시수 감면 등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교육 2-4〉 교무처	제언 내용: 대학원 융합 전공은 현재의 24학점 이상의 이수 규정을 강화하여 주전공과 융합전공 동시 이수에 요구되는 36학점에 근접하게 만들어, 실제로 두 전공 동시 이수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언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대학원 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24학점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전공과 동시 이수 시 12학점 이내에서 중복인정을 허용하고 있음. 주전공-융합전공 동시 이수 시 36학점(석사과정 기준)을 취득하도록 함			

〈교무처〉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이후로 대학원 협동 과정의 신설 현황에 대한 자료- 2020년 이후 신설 협동과정

전공명	주관 대학	참여학과	정원				설립 연도
			석사	박사	통합	합계	
인공지능 전공	공과 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물리천문학부, 수리과학부,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화학부, 지능정보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8	8	37	53	2020

### 3.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의 개선방안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의 개선방안	2014
〈교육 3-1〉 교무처	제언 내용: 학부 1학년에서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 응급처치술,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현황을 하단에 간략히 기재 바랍니다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교육 3-2〉 글로벌사회공 헌단	제언 내용: 학부 2~4학년 단계에서는 국내외 봉사활동에 1회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0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학부 2~4학년 단계에서는 국내외 봉사활동에 1회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봉사단원은 자율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헌단 국내·외 봉사단원은 연간 800~1,000여명으로 ‘학부 2~4학년 단계에서 국내·외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방안’은 연간 3,000명 이상의 참여를 수반하므로, 공헌단의 자원 및 인력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제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사 관련 부서인 교무처 등 유관기관에서 학칙, 규정, 교과과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3-3〉 기초교육원	제언 내용: 기초교육원의 리더십 교과목 및 각 단과대학이 제공하는 리더십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0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1. 해당 보고서의 제언 내용은 학부생 2~4학년에 대한 내용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1. 대학원생에 관하여는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사업을 통해 대학원 기초역량 중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기초역량)으로 ‘진로설계탐색/리더십’ 교과목(1학점)을 2023년에 정규화하여 운영할 계획임	

4.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 및 외국인 교수 교육지원 방안 연구

번호 답변기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 및 외국인 교수 교육 지원 방안 연구	2020
<교육 4-1> 기초교육원	제언 내용: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협의체나 기관 (예, 글쓰기센터) 신설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학내 각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글쓰기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유관 기관 간 협의체는 신설되지 않았음. 기초교육원에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학내 협의체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교육 4-2> CTL	제언 내용: 외국인 교수 대상의 교수법 워크숍 실시등 교수법 개선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2020년에 국제협력본부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021년에 외국인 교원 대상 온라인 교수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논의함. 2021년 12월 개발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	
<교육 4-3> 교무처	제언 내용: 외국인 교수들 간의 교육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매학기 개최되는 국제협력본부의 외국인 교원 간담회 및 신입교원 환영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 교원들의 원활한 학내 적응 및 네트워킹을 지원 중임	

## 5. 서울대 대학원 교육실태 분석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 대학원 교육실태 분석	2018
〈교육 5-1〉 경력개발센터	제언 내용: 졸업한 대학원생의 졸업 이후 진로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고안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현황: 매해 졸업생 취업통계조사 실시	
〈교육 5-2〉 대학생활 문화원	제언 내용: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원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문항 없이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 2020년 대학원 재학생 대상 대학생활 의견조사 설문문항 개발하여 설문 실시 및 분석	

### <경력개발센터>

2018년 이후 대학원생들의 졸업후 진로에 대한 분석 현황

-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하여 졸업생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정보공시에서 확인 가능함

## IV.2. 연구 부분 정책 반영 현황

### 1.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1) 대학원생 삶의 질과 관련된 제언

(1) 우수 국내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 제도 확충

- 우수 본교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유치를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의 확대
- 장학지원 제도의 확충: 특히, 전업 박사과정생에게는 등록금에 추가하여 실질적 생활비에 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주거지원제도의 확충: 희망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을 규모로 기숙사의 수적 확보 필요. 질의 향상도 필요.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가족생활시설의 확충 필요.
-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함양시킬 지원 모색: 대학원생이 국제적 교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확충, 해외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확충, 본교 출신 박사의 학문적 수월성이 확보되어 전임교원으로서의 채용이 증가하기 위한 연구 지원책 마련
- 본교 학위취득자의 진로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조직 마련

(2) 박사학위 논문 심사제도의 개선

- 박사학위 논문 심사 일정의 유연성 확보: 현재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 있음.
-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절차의 유연성 확보: 현재 심사제도는 하나의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논문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심사 절차의 개선 필요. Preliminary committee 구성을 통해 학위논문 주제와 연구방법 등의 심사 제안

(3) 대학원 구성원의 권익(인권) 보호 및 증진

- 대학원 구성원 모두 즉, 교수와 대학원생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규정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바람직함. 단과대학별 또는 학부/학과 단위별 학생권익증재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대학원생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헌장 또는 가이드라인 개발. 교수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연구 윤리 포함)에 관한 서약서 개발

(4) 학위과정의 유연성 확보

- 석사·박사 통합 과정의 개선: 현행 과정으로 학생 모집하되, 입학 후 본인의 희망과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학위 과정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있음. 통합과정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석사, 박사과정을 전체 정원 내에서 유연하게 통합 관리하여 전공분야별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있음

(5) 높은 질적 수준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화

- 양적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보다는 질적 성숙을 위한 국제화 목표와 기준 마련이 필요. ‘내실화’와 ‘질적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조사 필요
- 국제교류 사업 운영과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본부, 대학(원), 연구기관 사이에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교수와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관 부서들 사이에도 보다 원만한 협력이 필요
- 국내 대학원생이 외국 대학에서 교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 박사전 또는 박사후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6)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 수강생 분포를 무시한 채 소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강의 개설을 남발하기보다 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

(7) 분야별 우수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학생 유치

(8) 외국인 교수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 체계 마련

- 무슬림 구성원을 위한 기도공간의 확보 등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의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들이 필요함

2) 정책 반영 현황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4
<p>&lt;연구 1-1&gt; 교무처</p>	제언내용: 우수 본교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유치를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확대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2014년 이후 인문대학, 의과대학, 의과대학-보건대학원간, 공과대학·사범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행정대학원간, 사회과학대학의 학사·석사 연계과정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다른 대학(원)들에서도 신설을 논의 중임. 또한 학사·석사·박사통합연계과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중임.	
<p>&lt;연구 1-2&gt; 교무처</p>	제언내용: 제도 유연성 확대와 논문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한 박사학위 논문심사 제도의 변화(심사청구 시기, 심사 기한, 심사 절차 등)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심사청구 시기, 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큰 변화는 없었으나 다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논문지도교수제도를 확대하였으며, 대학원생의 연구주제에 따라 타 학과(부) 소속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학위논문 작성 및 심사과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최종인준논문 제출 절차를 강화하였음.	
<p>&lt;연구 1-3&gt; 교무처</p>	제언내용: 석·박사통합학위 운영 규정의 개선 및 대학원 정원의 유연성있는 통합 관리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장기적인 사회적 수요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학원 정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음. - 대학원 학생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2018년에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과제를 재추진 중임. 학과(부)·전공별 지원율을 토대로 일부 과도하게 배정된 정원을 본부로 관리전환하여 사회적 수요, 학교차원의 정책 등을 반영하여 재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p>&lt;연구 1-4&gt; 학생처 장학복지과</p>	제언내용: 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지원 제도 확대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록금 외에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대 발전기금, 교외장학기관 장학금 및 BK 연구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매년 증가하여 왔음. ※ 대학원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 '14) 72.1% → ( '15) 70.3% → ( '16) 73.2% → ( '17) 74.2% → ( '18) 74.9% → ( '19) 81.3% → ( '20) 90.1%	



<p>&lt;연구 1-5&gt; 학생처 장학복지과 (학생생활관)</p>	제언내용: 대학원생(외국인 대학원생 포함)을 위한 기숙사 수적 확대 및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가족생활시설 확충	
	반영 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p>&lt;연구 1-6&gt; 학생처 / 인권센터</p>	제언내용: 대학원생 권익 보호 및 증진 제도화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p>&lt;연구 1-7&gt; 학생처</p>	제언내용: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 기도공간, 음식 등)	
	반영 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관악캠퍼스 101동 감골식당에 채식뷔페 코너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2일 할랄코너 신설하여 상설 운영 (2021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휴점 중임.) - 기도공간은 관악학생생활관에 있음.
<연구 1-8> 국제협력본부	제언내용: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확대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글로벌초우수 장학프로그램(Global Scholarship)을 통해 장학생이 원하는 경우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저녁반 수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초우수 장학생들의 한국어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05,600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57명의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을 들을 수 있는 수업료가 지원되었음.
	제언내용: 대학원생의 해외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확충 (*연구부문 보고서 3의 내용과 통합함)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연구 1-9> 연구처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2021년부터 BK4단계 국제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참여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연수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연구처에서 인문·사회계열 학문전공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원을 위하여 지정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기 어려움.
	제언내용: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국제협력본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연구 관련 국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있음. 연구지원과에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1년부터 BK4단계 국제학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BK 연구교수, 연수연구원, 참여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음.
<연구 1-10> 연구처 / 국제협력본부	제언내용: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 등 진로 개발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취업 등 진로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BK21 대학원혁신사업으로 학생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제언내용: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 등 진로 개발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연구 1-11> 경력개발센터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취업 등 진로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학부 및 대학원생 포함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BK21 대학원혁신사업으로 학생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3) 정리 및 시사점

2014년에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과 관련하여 총 11개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보고서가 제출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안 사항의 반영 여부를 행정 기관에 문의한 결과, 반영과 부분

반영된 것은 각각 45%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씩이었으며, 미반영된 것은 1건에 불과하였다.

- 반영 사항 (5건)

- 우수 본교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유치를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확대: 학사-석사 연계과정의 참여 대학 확대, 현재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 제도 도입 추진 중.
- 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지원 제도 확대
-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수적 확대 및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가족생활시설 확충
-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할랄 코너, 기도 공간 등
-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확대: 매년 글로벌초우수 장학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수업비 지원

- 부분 반영 사항 (5건)

-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제도 변화: 공동논문지도교수제도 확대를 통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 및 최종인준논문 제출 절차 강화를 통한 논문 작성 및 심사의 책임성 제고. 심사청구시기, 기간, 절차 등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음.
- 대학원생 권익 보호 및 증진 제도화: 2021년 구성원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해 옴부즈퍼슨 제도 신설하여 운영 중임. ‘대학원생 인권 보호 지침(안)’은 마련되었으며 ‘인권헌장’의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교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
- 대학원생 해외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확충: BK21 4단계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으로 지원 확대
-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 등 진로 개발 지원: 학부생과 대학원생 통합 관리. 학생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

- 미반영 사항 (1건)

- 대학원 정원의 유연성 있는 통합 관리: 현재 본부 정원 관리 전환 방안 추진 중

본교의 연구 체계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후속학문세대의 지속적인 유입과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원생이 재학 기간 동안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6여 년간 대학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 학위논문 공동지도교수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우수한 본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고자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동일 대학 및 타 대학 간에 추가 신설하였다. 최근 AI, 반도체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재풀 확대를 위해 대학원 학위과정의 유연성 있는 정원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여, 대학은 대학원 입학정원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매년 직전 3년간 모집단위별 지원율을 산출하여 차년도 정원의 일부를 본부관리 정원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확보된 본부관리 정원을 재배정함으로써 사회적 수요가 높은 전공의 정원 증원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본부 활용 정원을 통해 유연한 정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부 학문의 위축 또한 우려될 수 있어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논문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비대면 심사 증가와 외국인 학위자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한 논문심사 제도 및 서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은 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지원 제도 확대, 주거시설 확충,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한국어 교육 확대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왔다. 주거시설의 경우 예산과 토지 확보 등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임에도 학부생과 대학원생, 특히 외국인 학생과 기혼 대학원생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로벌생활관 개관으로 관악생활관 수용인원을 960명 증가시켰으며, 2018년 BK 생활관 외국인 대학원생 거주자격을 기혼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거주 공간을 더욱 늘렸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관 등의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건학생생활관도 많은 인원 증가는 아니지만 2021년 국제관 게스트룸을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평창캠퍼스의 상록학생생활관 1관과 2관을 개관하여 장애인실 1개, 대학원 생활관 64실, 기혼학생을 위한 가족생활관 30실을 확보하였다.

장학제도 지원의 경우 발전기금, 교외장학금, BK 연구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어 2014년 70%대에 머물렀던 대학원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2019년 81%, 2020년 90%에 달하였다. 또한 장학금은 아니지만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20년 BK21 4단계 사업에 본교는 41개 사업단과 4개의 사업팀이 선정됨으로써 BK 연구장학금 수혜가 증가한 것이 장학지원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BK 연구 장학금은 월별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으로, 실제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아직 부족한 편이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장학금 수혜율과 학교에서 통계로 작성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의 체감 만족도는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수행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책임자: 임철일 교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연구, 논문 지도 등에 비해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업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BK21 4단계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학과 및 교수 지도 하의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으로 대학은 감골식당에 할랄푸드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매우 큰 캠퍼스 안에 한 식당에서만 할랄푸드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학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주거시설, 식당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모두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도 글로벌초우수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장학금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실제 한국어 습득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한국어는 생활 뿐 아니라 영어 교과목이 부족한 현실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를 외국인 학생의 역량으로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지원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 반영된 것으로 대학원생 권익 보호 및 증진 제도화가 있는데, 최근 인권센터가 주축이 되어 대학원생 인권 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인권 현장’의 경우 내용 중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원생 인권 보호 지침(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권익 보호 및 증진은 비단 대학원생에 국한하여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 모두의 상호 권익 보호 및 증진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은 대학원생 뿐 아니라 전 구성원의 고충 해결과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옴부즈퍼슨’ 제도를 2021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학원생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연구를 위한 지원 제도 확충,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보다는 BK21 사업과 일부 단과대학의 세부 사업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학술대회 논문 발표법, 영어논문 작성법,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BK 사업과 단과대학의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도 Endnote 활용법 등 대학원생의 연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BK21 플러스 사업(22개 사업단, 13개 사업팀)에 비해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은 규모가 더 커진 41개 사업단과 4개의 사업팀이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기존 대비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대학원생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역시 대학본부 차원 지원보다는 단과대학과 BK21 사업으로 주로 지원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운영 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연구와 직접 관련된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exchange program, inbound-, outbound program) 관리는 국제협력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해외인턴쉽의 경우 경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하에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유 업무 영역에 맞추어 현행과 같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단과대학별로 지원하는 것이 예산운영과 사업 수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각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효과적인 행정 정보 전달 방법을 고안하여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연구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진로 개발 지원은 주로 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컨설팅,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VR 면접 체험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 하에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안된 많은 내용 중 대학원생의 역량 강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BK21 4단계 사업으로 인해 학생 장학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등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원생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본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제안의 경우 세부 내용에 있어 구성원간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이는 협의의 통해 향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하여, 비대면 심사 및 외국인 학위자 증가 등의 최근 상황을 반영한 심사제도 및 서식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학, 주거시설, 식당 등 학생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집행부서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양적 확대 외에 질적 확대 및 만족도 갭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대학원생들이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합적인 관리부서를 추가로 만들거나 업무를 몰아주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안내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

### 1) 대학원생 삶의 질과 관련된 제언

- (1) 환경안전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대학본부 소속부서로 재편함
- (2) 환경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따른 구체적 매뉴얼 마련과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 (3) 환경안전 조사 대상을 연구실과 실험실 뿐 아니라 캠퍼스 전반으로 확대
- (4) 환경안전 관리 대상을 대학 소속 구성원 뿐 아니라 용역직원, 방문객 등 외부인을 포함하도록 함
- (5) 어린이, 임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 배려
  - 워싱턴주립대학의 경우 어린이의 경우 교직원 직접적인 감독 하에 연구실과 교내 상점 방문 가능, 베를린자유대학의 경우 실험실 내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산모 등 약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 (6) 음식물 안전사고 및 알코올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고려
  - 워싱턴주립대학의 경우 대학 내 음식서비스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불법 알코올류와 약품 소지, 유통, 사용, 제조 금지에 대한 규정 있음
- (7)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환경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2) 정책 반영 현황

번호 답변 기관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 사례 연구	2015
〈연구 2-1〉 연구처 / 환경안전원	제언내용: 환경안전 관리 부서의 통합과 본부 소속 부서로의 재편을 통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통합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2019년 1월 22일 서울대학교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이 오픈되어 사용 중에 있음. 안전관리 부서 통합을 통한 본부 부서로의 조직 개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연구 2-2〉 환경안전원	제언내용: 환경안전 관련 구체적 매뉴얼 구축 및 운영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 포함 여부 제시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안전 조사 대상을 캠퍼스 전반으로 확대</li> <li>- 환경안전 관리 대상을 구성원에서 외부인까지 확대</li> <li>-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내용 포함</li> <li>- 음식물 안전사고, 알코올 및 약품 등의 사고에 대한 내용 포함</li> <li>-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구분한 환경안전 관리 규정 및 시스템 구축</li> <li>-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구분한 환경안전 관리 규정 및 시스템 구축</li> </ul>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현재 환경안전원에서 인문사회계 및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이공계 연구실 및 종사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li> </ul>
〈연구 2-3〉 환경안전원	제언내용: 환경안전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부터 학기별로 환경안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 방법은 온라인교육이며, 대상자는 이공계 연구실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임.</li> </ul>

### 3) 정리 및 시사점

2015년에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과 관련하여 총 일곱 가지의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앞서 나온 표에서처럼 통합 부서로의 재편과 시스템 구축, 구체적 환경 안전 매뉴얼 구축 및 운영, 환경 안전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환경안전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는 충분히 반영되어 현재 운영 중이며,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부분은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

#### - 반영 사항 (1건)

- 환경안전 정기 교육 및 훈련 실시: 2017년부터 이공계 연구실 출입자에 대해 학기별 정기교육 실시

#### - 부분 반영 사항 (2건)

- 통합 부서로의 재편과 시스템 구축: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구축 운영 중이나, 본부 부서로의 개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음.
- 구체적 매뉴얼 구축 및 운영: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 제정. 인문사회계 및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매뉴얼은 없음.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실험, 실습 등 연구 활동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환경과 안전에 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공계 대학원생 외에도 본 보고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계 대학원생, 외부연구자, 임산부, 어린이 등 대학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의 환경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본교는 2005년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한 이래 최근 지난 6여 년 동안에도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환경안전 시스템 구축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 위험물질 저장 안전장비 보급 및 노후 안전설비를 보강하여 왔고 2019년 1월 연구 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을 구축하여 각 연구실의 안전지수, 일일점검, 정기점검, 사전유해인자 분석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안전 정기 교육을 2017년부터는 학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예전보다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환경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수 개인에게 지워지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연구 현장에서 안전한 연구실을 마련하고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공간적, 재정적, 인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 재정, 인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의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환경안전 업무는 환경안전원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관리, 운영 중이지만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본부 소속 부서로의 개편은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환경안전원이 환경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 직할 부서로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안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한 해외 대학의 캠퍼스 전반의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은 환경안전원의 업무 범위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범위 확대와 안전에 대한 커진 사회적 요구 및 음식물, 알코올, 약물 등의 사고 우려,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안전의 범위를 과학기술계의 연구 활동에서 캠퍼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학기술계 연구 활동의 안전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환경안전원보다는 캠퍼스 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안전을 다루고 세부 지침을 관련 부서에서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

#### 1) 대학원생 삶의 질과 관련된 제언

- (1) 연구에 관한 국제 규범 및 학문윤리의 준수
- (2)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활동 및 해외 학술활동 지원 확대
- (3) 성장가능성 있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 확충
- (4) 국제화를 위한 대학본부 차원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및 행정 지원
  - 학내 의사소통 및 체류 지원 체계를 통합적,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행정조직 신설 또는 개편, 인력 및 재정 지원 등) 마련
  - 외국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정비
  - 외국인 구성원을 위해 학내 홈페이지, 각종 문서를 한글로 영어로 제작하며, 아래한글, 워드 및 PDF 파일로도 문서 전송
  -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 단대별 '외국인 구성원 대상 지원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단대별 편차와 수요를 반



영한 국제화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5) 외국인 구성원의 주거 문제 해결방안 마련

(6) 외국인 유학생들의 동창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지원 등

2) 정책 반영 현황

번호 답변 기관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 방안	2016
<p>&lt;연구 3-1&gt; 국제협력본부</p>	제언내용: 외국인 구성원 지원을 위한 통합적 행정 조직 개편 및 인력과 재정 지원 (지원 매뉴얼 구축 및 운영 포함)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지원으로 학생 비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생활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 관련된 내용은 지원하지 않음.	
<p>&lt;연구 3-2&gt; 국제협력본부</p>	제언내용: 우수 외국인 학생 확충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개도국교원 지원 프로그램(SNU President Fellowship Program)을 통해 국제협력본부는 2014년 1학기부터 개발도상국 주요대학 교원에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지한과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해왔음. 해당 사업 장학생이 되면 등록금 전액, 생활비 (3년간 월 200만원, 4년간 150만원 중 선택) 왕복항공료, 한국어교육비, 보험료 (인당 연간 총 약 3천만 원~4천만원)를 지원받게 됨. 2020학년도까지 총 58명의 외국인 박사과정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그 중 16명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안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해당 장학생들의 출신국가와의 공동교육·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본교 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옴.	
<p>&lt;연구 3-3&gt; 교무처 / 학생처</p>	제언내용: 외국인 구성원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 (주요 문서 영어로 배포, 아래한글 및 PDF 파일 제공 등)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2017년 하반기 교원인사 관련 규정(총 20건) 번역 완료하여 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 규정집 배부 완료하였으며, 2018년 Faculty Handbook 영문본을 제작하여 주요 조직과 운영 현황, 교육 및 연구, 인사, 급여 및 복지, 교내 시설 이용과 생활 편의 관련 사항까지 포괄하여 제공하였음. 2020년부터 교원 인사 관련 시스템의 영문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였으며, 승진/재임용, 심사 등 하위 메뉴의 사용자 매뉴얼 영문본도 제공하고 있음. - 장학금 관련하여 장학복지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학금 사항 영문으로 안내하고 있음.	
<p>&lt;연구 3-4&gt;</p>	제언내용: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내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b>학생처 / 국제협력본부</b>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외국인 학생회(SISA)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공간 제공 1. 동아리방 지원(NH농협두레문예관(67동) 202호): 컴퓨터, 프린터, 집기 등 2. 외국인 학생회(SISA) 지원 및 운영 - SISA: SNU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의 약자, 2007.3. 신설 3. 외국인 학생 생활 지원: 외국인 학생회 지원 업무는 학생처에서 2019년 국제협력본부로 이관됨.		
	주요활동	내용	일정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비자 및 생활정보 안내, 캠퍼스투어 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2월 말 8월 말
	국제 교환/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	학사정보, 비자 및 생활정보 안내, 스누버디 소개 등	2월 말 8월 말
	국제학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학사일정 안내, 교내기관 소개 등을 통해 소속감 고취 및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	8월 중
	외국인 신입생 환영회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외국인 학생회(SISA) 소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3월 초 9월 초
	외국인등록증 단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단체 등록 대행	3월 초 9월 초
	외국인 학생 선후배 간담회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참석, 단과대별 선후배 모임 및 친교의 시간 운영	3월 중
	외국인 대학원생 간담회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	11월 중
	보험설명회	KGSP & SPF 장학생 대상 보험설명회	3월 중 9월 중
	국제음식축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자국 음식 및 전통 문화 홍보 기회 제공, 대학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이해의 기회 마련을 통해 학내 인적 교류 기회 확대	5월 중 9월 중
	외국인 유학생 문화행사	박물관 견학, 한국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	5월 중
	외국인 1박 2일 한국문화 체험	1박 2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 2019년 경상북도 문경 일대 방문, 외국인 재학생, 인솔직원 및 의료지원 약 70여 명 참여	7월 중
	외국인 유학생 기말고사 응원 이벤트	기말고사를 맞아 외국인 학생들을 응원하고 국제협력본부 및 외국인 학생회(SISA)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11월 중
	현대자동차 Global friendship Tour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및 교환/방문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견학 및 문화체험	10월 중 11월 중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본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중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 우수상 시상,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최	12월 중	
외국인 학생 송년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격려하는 친교와 화합의 장 마련	12월 중	
※ 표 발취: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9 pp. 105~106			
<b>&lt;연구 3-5&gt; 학생처/ 총동창회 / 국제협력본부</b>	제언내용: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동창회 구성 및 교류 지원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b>&lt;연구 3-6&gt; 연구처</b>	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외국인 학생은 졸업 후 대다수가 본국으로 귀국을 하므로 동창회 구성은 되지 않았으나 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반영 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p>반영 내용(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윤리 서약서 의무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학기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연구윤리 프로그램을 고정 편성</li> <li>-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임용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의무화</li> </ul> </li> <li>○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19년) 연구실 신규 입문자인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대상 집합 교육</li> <li>- (2020년~)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내 구성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li> <li>- (2021년) 유학생을 위한 대학원 신입생 연구윤리 교육 영어강의 개설</li> <li>- (2022년) 대학원 공통 교과목으로 연구윤리 교육 개발하여 필수화</li> <li>- 연구윤리 일반, 표절/출판윤리, 연구노트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연구 입문자들의 수요 충족</li> <li>- 이공계 대상으로 시행하던 교육을 계열별(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계) 맞춤형으로 수요자 만족 교육 실시</li> <li>- 각 대학(원)에 이수율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이수 독려</li> </ul> </li> <li>○ 찾아가는 맞춤형 연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방문교육 적극 확대하여 기관별, 연구 주제별 맞춤형 방문교육 수요조사(학기 초) 및 교육 실시(상시)</li> <li>- 능동적으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요청에 따라 학과별 특색에 맞는 방문교육 실시</li> <li>- 생명윤리(IRB) 및 동물실험윤리(IACUC) 찾아가는 연구자 교육 지속 실시</li> <li>- 동물실험윤리(IACUC) 동물실험윤리 교육 지속 실시</li> </ul> </li> <li>○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생명윤리 교육 프로그램 구매 및 홍보(CITI Program, 9강좌)</li> <li>-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KIRD e-learning, 18강좌)</li> <li>- 연구윤리 영역별 온라인 심화과정 개발·보급(중앙도서관, 13강좌 20개)</li> </ul> </li> <li>○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 활용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부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자기검증 활성화를 위하여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Turnitin) 구매·제공</li> <li>- 논문 검사뿐 아니라 학생 간 과제검사도 가능하여 연구자의 올바른 글쓰기 유도</li> </ul> </li> </ul>
--	---

### 3) 정리 및 시사점

2015년에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연구 국제화 측면에서 대학원생과 관련하여 연구 국제 규범 및 학문윤리의 준수,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활동 및 해외 학술활동 지원 확대, 성장 가능성 있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 확충, 국제화를 위한 대학본부 차원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외국인 학생 및 졸업생 지원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이 중 앞에 나온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제안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2015년 이후의 반영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 결과, 4건(67%)은 반영된 것으로, 1건(17%)은 부분 반영, 1건(17%)은 미반영된 것으로 회신되었다.

- 반영 사항 (4건)

- 우수 외국인 학생 확충: 개도국교원 지원프로그램, GSFS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우수 외국인 학생 확충
- 외국인 구성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 : 외국교원을 위한 행정 영문 매뉴얼 홈페이지 게시 및 규정집 배포, 장학금 관련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내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동아리방, 외국인 학생회 지원 및 운영, 외국인 학생 생활 지원
- 연구 국제 규범 및 학문/연구 윤리 준수 활동

- 부분 반영 사항 (1건)

- 외국인 구성원 지원을 위한 통합적 행정 조직 개편 및 인력과 재정 지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은 국제협력본부에서 통합 수행. 외국인 교원의 지원은 교무처 등 각 부서 담당

- 미반영 사항 (1건)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동창회 구성 및 교류 지원

연구 국제화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였기 때문에 우수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유치, 이들을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제안 사항이었다. 외국인 교원과 학생의 유치와 지원 측면에서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의 경우 GSFS (Graduat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s)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2014년 1학기부터는 개발도상국 주요 대학 교원에게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도국교원 지원 프로그램(SNU President Fellowship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국제공동연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낮은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평판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박사학위 취득 지원을 통한 개도국 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구성원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각각 담당하는 업무 중 외국인 학생 생활지원 업무는 2019년 학생처에서 국제협력본부로 이관되었다.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팀은 입학 관련 비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생활정보, 문화 교류 등 외국인 학생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구성원의 학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전보다는 많은 문서가 국문과 영문으로, 그리고 파일 형식도 한글 파일 뿐 아니라 PDF로도 전달되고 있으며, 장학금 정보는 장학복지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동아리방, 외국인 학생회(SISA) 지원 등 학내 적응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형성 및 행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동창회 구성

과 교류 지원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NS 등을 통한 개별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점 외국인 졸업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동창회 구성은 본교의 글로벌역량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 규범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연구자의 소양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여전히 연구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연구/학문 윤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 대학은 2018년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2020년부터는 전체 대학원 신입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을 위하여 연구 윤리 교육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대학원 공통 교과목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개발하여 필수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윤리 등 찾아가는 연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대학원생은 본교의 교원, 졸업생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인재이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을 잘 교육하고 자국의 학생들과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연구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행정 시스템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서울대학교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IV.3.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부분 정책 반영 현황

#### IV.3.1. 선행연구보고서별 세부정책반영 현황

##### 1. 관악캠퍼스 환경개선과 문화화를 위한 기본구상

답변기관	관악캠퍼스 환경개선과 문화화를 위한 기본구상	2012
시설관리국	<시설복지 1-1> 제언내용: 관악 물 재생센터 건립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	구청 관할
	<시설복지 1-2> 제언내용: 재해안내 시스템 구축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	캠퍼스관리 과
	<시설복지 1-3> 제언내용: 친환경 공간조성 및 확보: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숲길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	시설지원 과
	<시설복지 1-4> 제언내용: 주차요금제 수정 등을 통한 출입 차량 통제방안 실행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캠퍼스관리 과

반영 내용 <캠퍼스관리과> - 2021. 3. 1.자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차량 이용 자제 유도	
<시설복지 1-5> 제언내용: 대형 주차센터 건설	시설기획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기획과> - 대학본부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건립 ※ 주차대수: 417대(전기차충전소 23대 포함)	
<시설복지 1-6> 제언내용: 신재생 에너지 활용/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태양광 발전) 시행	시설기획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기획과> -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행하지 않으나, 건물 신·증축사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는 학내에서 모두 사용	
<시설복지 1-7> 제언내용: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 건설/장소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형물 설치	시설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	
<시설복지 1-8> 제언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예방시설의 확충	시설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지원과> - 캠퍼스 내 저류조 2개소 준공(버들골 2만톤, 공대폭포 5천톤) 사업기간: 2012.06. ~ 2015.09. ※ 댐 증축, 수문 크기 조절은 미반영	
<시설복지 1-9> 제언내용: 캠퍼스 투수포장지역의 확대	시설기획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기획과> - 건물 신·증축사업 추진 시 건물 주변 투수포장(자연) 면적 확보 (2015년 이후 투수포장(자연) 면적 2,552㎡ 증가) ※ 투수포장(자연) 면적 변화: (2015) 42,732㎡ (2020) 45,284㎡	
<시설복지 1-10> 제언내용: 지하연 수질관리공법 적용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캠퍼스관리과> - 내적 수질 개선법 중 산소공급 공법 적용 중	
<시설복지 1-11> 제언내용: 위험사면에 보강공법 적용하여 산사태 위험 방지	시설지원과 시설기획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기획과>(반영) - 건물 신·증축사업 추진 시 부지 내 위험사면 보강 적용 사례1) 316동(대형구조실험동) 후면 사면 보강 사례2) 916동(외국인학생기숙사) 후면 사면 보강 사례3) 223동(우석경제관) 후면 사면 보강 <시설지원과>(부분반영) - 35동 후면 사면 보강(2012)	
	<시설복지 1-12> 제언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인도) 구축	시설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시설지원과> - 노후콘크리트 보도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변형된 인도들은 시설지원과 옥외시설물 유지관리 자체 인력을 통 한 작업으로 보수 진행하고 있음 ※ 나들문 인도 확보 및 보행, 차량 혼용도로는 미반영	

보고서에서는 크게 생활환경개선의 측면과 문화여가시설 개선의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 사항은 시설관리국의 다양한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분야이다. 전체 11개 정책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구청 관할 업무이어서 정책반영 여부 확인에 해당되지 않는 “관악 물 재생센터 건립”을 제외하면, 반영된 정책이 4항목, 부분반영된 항목이 4항목, 그리고 미반영된 항목이 3항목이었다. 반영여부 별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반영

- 주차요금제 수정 등을 통한 출입 차량 통제방안 실행
- 대형 주차센터 건설
- 캠퍼스 투수포장지역의 확대
- 지하연 수질관리공법 적용

• 부분반영

- 신재생 에너지 활용/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태양광 발전) 시행
-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예방시설의 확충
- 위험사면에 보강공법 적용하여 산사태 위험 방지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인도) 구축

• 미반영

- 재해안내 시스템 구축
- 친환경 공간조성 및 확보: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숲길
- 심미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 건설/장소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조형물 설

치

이들 중 반영 혹은 부분반영된 항목들은 주차와 보행환경 관련 등 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강수, 수질,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었다. 한편, 걷고 싶은 길,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구조물/조형물 설치 등 문화 및 여가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의 경우는 미반영의 상황으로 남아있어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건강캠퍼스 체계에 대한 제안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건강캠퍼스 체계에 대한 제안	2012
학생처	<p>&lt;시설복지 2-1&gt; 제언내용: 대학 내 건강식단 제공 서비스, 비만 유발식품의 퇴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정책과 다양한 운동 공간 및 시설 확충(생활협동조합)</p>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직영 6개 식당에서 음식별 열량 및 단백질 정보 제공, 카페네티나무 5개소에서 메뉴별 열량 정보 제공(2019.5.7.부터)	
	<p>&lt;시설복지 2-2&gt; 제언내용: 교내에서 대학생 시기에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건강위험군에 대한 조기 중재체계를 연계하는 서비스(보건진료소)</p>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2013년 학생정기건강검진을 확대·개편하여, 심혈관 및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항목과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웹설문이 포함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제공하고 있음. 검진결과 고위험군을 조기 선별하여 진료 및 재검,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함.	
	<p>&lt;시설복지 2-3&gt; 제언내용: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건진료소)</p>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인 권장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한 홍보 시행(보건진료소 홈페이지 정보 제공, 홍보 메일 발송, 홍보포스터 부착, 학생건강검진 결과 상담 시 권장 예방접종 안내 등). 예방접종 홍보캠페인 개최(1회/2018.11.5.).	
	<p>&lt;시설복지 2-4&gt; 제언내용: 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사업 강화, 정기 선별검사 및 위험군 선별검사를 통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교내 정신건강센터의 확대 및 특화된 대학 정신보건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보건진료소, 대학생활문화원)</p>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p>보건진료소: 부분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 예방사업: 대학생활문화원 및 단과대 상담센터 담당</li> <li>-보건진료소: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서비스 담당</li> <li>-상담유관기관 협의 및 핫라인 구축을 통한 학내 정신건강문제 및 정책제안 협업</li> <li>-온라인 자가검진 및 상시학생건강검진, 단과대 요청에 따른 온라인정신건강검진 실시 =&gt;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개입</li> </ul> <p>대학생활문화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상담문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정서조절, 학업위기, 관계향상</li> <li>- 우울증 조기 발견 및 위험군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제공</li> <li>- 대학정신보건 모델 개발: 교내 상담유관기관 협의회 및 기관장 정신건강돌봄협의회 운영</li> </ul>	
	<p>&lt;시설복지 2-5&gt; 제언내용: 급만성 질환 시 교내 보건진료소 및 약국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과 지원 (보건진료소)</p>	장학복지과
	<p>반영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가정의학과(매일) 및 요일별 전문과목 진료를 제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급만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필요시 상급병원 의뢰 및 이송서비스 제공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2-6&gt; 제언내용: 대학생들의 주요 건강 행태에 해당하는 음주와 흡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법과 해외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가용성 제한, 광고 및 후원 제한, 행위 제한,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응(보건진료소)</p>	장학복지과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보건진료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상시 금연 상담을 제공하여 학내 구성원의 금연·절연을 도움. 또한 가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절주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2-7&gt; 제언내용: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을 설립하여 캠퍼스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질병 예방, 건강 교육, 의료비 감소,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교육기회 증대(보건진료소)</p>	장학복지과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p>	
	<p>반영 내용: 학생회관 내에 외부 입점약국이 운영 중임.</p>	

이 보고서는 건강캠퍼스로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항목들은 신체건강과 관련된 항목들이며 그 중 하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으로 학생처의 장학복지과 및 해당 부서 하위기관들이 관장하고 있는 분야로 확인되었다. 총 7개의 정책 항목 중 아래와 같이 6개의 항목이 반영 혹은 부분반영되고 있었고 1개 항목만이 미반영 상태였다.

- 반영
  - 교내에서 대학생 시기에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 건강위험군에 대한 조기 중재체계를 연계하는 서비스
  - 교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사업 강화, 정기 선별검사 및 위험군 선별 검사를 통한 우울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교내 정신건강센터의 확대 및 특화된 대학정신보건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
  - 급만성 질환 시 교내 보건진료소 및 약국의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과 지원
  
- 부분반영
  - 대학 내 건강식단 제공 서비스, 비만 유발식품의 퇴출,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정책과 다양한 운동 공간 및 시설 확충
  -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 대학생들의 주요 건강 행태에 해당하는 음주와 흡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법과 해외 대학 사례를 바탕으로 가용성 제한, 광고 및 후원 제한, 행위 제한,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등의 영역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응
  
- 미반영
  - 건강캠퍼스 부속약국을 설립하여 캠퍼스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질병 예방, 건강 교육, 의료비 감소,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들의 실무교육기회 증대

전반적으로 다양한 건강 관련 제안사항들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반영항목의 경우 현재 학생회관 내에 외부입점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부속약국 설립의 시급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반영의 경우에 다양한 운동공간 및 시설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지원 정책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 3. 관악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답변기관	관악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2011
학생처	<시설복지 3-1> 제언내용: 야외 공연시설을 확보하고 통합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 2012년 노천강당 철거 후, 버들골 내에 원형공연장 형태로 풍산마당을 개관(2015.9.)하여 야외무대와 함께 대기실, 분장실 등 야외문화공간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아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체계를 갖추</li> <li>· 학생지원과(총괄), 캠퍼스관리과 및 시설지원과(유지·보수, 음향/조명 등 시스템 운영) 등</li> </ul>	
	<p>&lt;시설복지 3-2&gt;제안내용: 문화관, 노천강당 등 낙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할 것</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 1984년 완공된 문화관은 관악캠퍼스에서 가장 처음 건설된 공연 공간으로 건설된 지 30여년이 넘어 지속적인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졌음. 2012년 분장실 설치, 2014년 전시설 조명장치, 이동식 파티션 설치, 마감재 전면 교체 등 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도에는 중강당 조명장치 교체 등 지속적인 시설 보수를 진행하였지만 전문 공연시설이 아닌 강연이나 행사, 오페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공간적인 부분이나 목적에 따라 공허하게 보이거나 부족한 점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2019년 문화관 재건축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문화관 재건축 사업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구성원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지역 상생을 위한 인프라로의 확장을 위해 2021년부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임</li> <li>- 노천강당(풍산마당): 1982년 노천강당이 세워진 후 대동제, 오월제 등 학생 전체 참여 행사 등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캠퍼스 외곽에 위치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2012년 철거 후 3년 만인 2015년 2,300여 명 수용 가능한 야외 공연시설인 풍산마당으로 리모델링함. 야외무대는 물론 대기실, 분장실, 동아리방 등이 마련되어 야외문화공간으로서 축제 및 공연 등에 사용됨</li> <li>- NH농협두레문예관: 1999년 학생활동을 위해 지어진 후 공연장과 분장실, 밴드, 음악연습실, 춤연습실 등이 갖추어졌으나 30여년이 흘러 장비 및 바닥 등 공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5년 바닥 보수 및 교체, 음악 장비 교체, 안내데스크 마련 등 환경 개선을 실시함. 2020년에는 건물명을 ‘두레문예관’에서 ‘NH농협두레문예관’으로 변경하였고, 공연장 및 연습실 노후 마감재 교체 및 시설 보수, 분장실과 로비의 아트월·포토존·휴게공간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학생문화공간으로 사용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li> <li>- 학생회관 라운지(2층): 1993년 공간이 마련되었고 2005년 개보수 이후 음향 및 조명 장비 등 시설 노후화로 2015년에 약 4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대, 음향시설(스피커, 앰프,</li> </ul>	

	무선 마이크), 및 조명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함. 2016년에는 추가 시설 공사를 통해 무대를 구축하고 바닥 및 창틀 교체가 이루어짐.	
	<시설복지 3-3>제언내용: 공연 및 전시의 평일 편중 현상을 해소할 것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공연 및 전시의 평일 편중 현상은 대관의 기준 문제이기도 하나 관람객 대부분이 학교 구성원인 점이나 어떤 행사의 성격이나 등 기획 단계부터 주최 기관이 정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음. 다만 연속 성격의 전시 행사의 경우 주말 설치, 주말 관람 등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연속 대관 방식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문화관 및 풍산마당에서 음악회, 연주회, 홈커밍데이, 학회 등 61건, 2019년 63건의 주말 행사를 진행하며, 최대한 평일 편중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생회관 2층 라운지의 경우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편중 현상의 해소가 가능함	
	<시설복지 3-4>제언내용: 유료연습시설을 도입하고 개인연습실을 설치할 것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 연습시설은 학생 복지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유료연습시설은 학내 구성원에게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학생회관 2층 라운지와 3층 대소형 연습실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하여 개인 혹은 팀 연습 가능 - NH농협두레문예관(67동) 내 개인 및 동아리 연습을 위한 음악연습실, 춤연습실, 밴드연습실 7개와 세미나실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기준 8,600건 대관과 3만여 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생회관 라운지 등 교내 공간 내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개인 연습실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음	
	<시설복지 3-5>제언내용: 연습시설의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관리자를 도입할 것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 연습시설은 학내 구성원이고 목적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관리비용 책정은 적절치 않음 - 학생회관 2층 라운지와 3층 소형·대형 연습실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 NH농협두레문예관(67동)의 경우 시간대별로 다양한 학생들이 사	

	<p>용하는 만큼 분실, 파손 등에 따른 민원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두레문예관 운영실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목적 외 사용, 음식물 섭취 등)의 경우 예약 제재 등의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3-6&gt; 제언내용: 밴드 합주실을 설치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밴드 합주를 위해 NH농협두레문예관(67동) 음악 연습실(B101~103호)에 드럼 등 밴드 악기를 새롭게 구비함</li> <li>- 2016년 2월에 약 15,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풍산마당 2층의 1개실을 밴드 합주실로 구축하여 공사 당시 3중 바닥, 벽면, 천장에 흡음제를 설치하고 드럼, 전자피아노, 스피커, 무선마이크 등 밴드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비치하여 학내 구성원의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li> </ul>	
	<p>&lt;시설복지 3-7&gt; 제언내용: 문화시설의 국제화(영문안내판 등)를 추진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 및 풍산마당 등 문화시설의 경우 필수공간에 대한 영문명 병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내 캠퍼스 안내판과 공간 사용에 대한 웹페이지를 통해 영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공간에 대한 영문 상세 안내는 문화관 재건축시 반영하여 외국인 구성원 및 관람객 들을 위해 보완할 예정임</li> <li>- 학생회관 63동 앞에 안내 표지판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고 있음 (예: 학생회관 - Student Center)</li> </ul>	
	<p>&lt;시설복지 3-8&gt; 제언내용: 캠퍼스 내 문화행사를 기록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 및 풍산마당 대관에 대한 연간 행사를 기록하여 각 유관 기관 및 대관 기관에 월별로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쉽고 편한 예약과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2021년 문화시설 예약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li> <li>- 캠퍼스 내 문화행사의 경우 학내 수많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려우나, 대학신문·서울대저널·서울대학교 방송(SUB) 등 학생 자치 언론 기구에서 필요할 경우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음</li> </ul> <p>(예: 대학신문에 문화관 등의 주요행사 일정을 게재)</p>	
	<p>&lt;시설복지 3-9&gt; 제언내용: 학생자치 문화단체를 지원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학생지원과는 대학문화예술활동(매년 약 50,000천원), 동아리육성 지원금(매년 약 30,000천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학내 각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아리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3-10&gt; 제언내용: 대학생활문화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lt;대학생활문화원&gt;          대학생활문화원은 지난 10년 동안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공감의 대화법 교육을 위한 스친프로그램,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위한 바른자세를 학습하는 알렉산더 테크닉, 이웃사랑 자원 봉사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장차 사회 지도자로 활동하게 될 서울대 학생의 대인관계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1999년 2학기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2013년부터는 연 4회로 운영 횟수를 늘렸고, 매학기, 매년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대학원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2019년도 2학기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참여자 수의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홍보와 진행에 있어 수요조사 실시, 수료식 규모 확대, 상품 제공 등 다방면으로 힘쓴 결과, 전년도와 전학기에 비해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둘째, 대학생활문화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 개최(2020년, 2021년)와 학기별 프로그램 홍보 확대(에브리타임 등 교내 커뮤니티, 포털 게시판 등)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하여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였다.</p>	
	<p>&lt;시설복지 3-11&gt; 제언내용: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lt;대학생활문화원&gt;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개개인의 신청 이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집단 내에서의 역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집단에 배정되었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주된 관심사 및 고민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서 집단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2014년부터는 구조화 집단을 학부생과 대학원생 집단을 따로 나누어 운영하기 시</p>	

	<p>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연구실 구성원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졸업 후의 진로 고민 등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과의 집단상담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더 깊이 있는 공감 및 치유적 경험이 가능해졌다.</p>	
	<p>&lt;시설복지 3-12&gt; 제언내용: 기숙사 학부 생활관을 재건축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학생생활관)</p>	<p>장학복지과</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lt;관악학생생활관&gt;  재건축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음.  매년 10월 글로벌 문화축제를 시행하고, 연 평균 4회 동서양 작은 음악회 문화행사를 실시함.</p> <p>&lt;연건학생생활관&gt;  노후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 중이며, 재건축 계획은 없음</p> <p>&lt;합춘학생생활관&gt;  간호대학은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현재 생활관 재건축 계획은 없음.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리 및 교체 중임.  다문화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매 학기 유닛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 중임.</p> <p>&lt;상록학생생활관&gt;  사생들의 친목 도모와 소통을 위한 체육회, 간담회, 상록가족한마당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3-13&gt; 제언내용: 기숙사에 세미나실과 연습실, 실습실을 확충할 것 (학생생활관)</p>	<p>장학복지과</p>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lt;관악학생생활관&gt;  글로벌 생활관 내 격층으로 세미나실과 학습실을 마련함</p> <p>&lt;연건학생생활관&gt;  현재 기숙사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복지 공간을 구비 중임(진리터, 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각 층 휴게실 및 마루터/체력단련실, 탁구장 등)</p> <p>&lt;합춘학생생활관&gt;  컴퓨터실, 자습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을 구비 중임(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세미나실, 체력단련실은 임시 폐쇄)</p> <p>&lt;상록학생생활관&gt;  세미나실 및 요가실, 사생들의 학업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람실, 북카페 등을 구비 중임</p>	
	<p>&lt;시설복지 3-14&gt; 제언내용: 편의점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외국</p>	<p>장학복지과</p>

인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생활협동조합)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편의점 전환 후 유·무인 24시간 운영 중(직영 편의점 5개소)	
<시설복지 3-15> 제언내용: 보건진료소의 서울대학교병원 관악캠퍼스분소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것 (보건진료소)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2011년 직장부속의원으로 개편하여 구성원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료과목 확대, 검사항목 확대,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다양한 건강교육 서비스 제공 등 보건진료소의 의료 서비스를 점차 확대·강화하고 있음.	
<시설복지 3-16> 제언내용: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보건진료소)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2011년 보건진료소 내부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시설복지 3-17> 제언내용: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수혜자 대상을 확대할 것 (장학복지과)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학생 의료비 지원 확대] 2020년부터 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치료비 보상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험 가입대상에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별수강생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설복지 3-18> 제언내용: 학생의료공제혜택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비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 추진 (장학복지과)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학생의료공제회는 2013년도 신입생부터 폐지되어 기존 회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 학기 학생공지 게시판 게시, 회원 대상 알림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음	
<시설복지 3-19> 제언내용: 체육문화교육연구동(보조체육관) 건립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71-1동 체육문화교육연구동(보조체육관) 건립 완료 (2016. 4. 22.)	
<시설복지 3-20> 제언내용: 인조 잔디 야구장(보조운동장) 건립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1976년 3월에 조성된 보조운동장에 인조잔디 야구장은 설치되지 않음. 하지만 2014년 3월 환경개선공사로 그라운드 정비 등을 하였으며 2019년 2월 실시된 환경개선공사에서는 그라운드 마사토 정비, 피칭연습장 보수공사, 야구장 내 창고, 전광판, 파울폴대, 베이스 등을 설치하여 야구부를 비롯한 캠퍼스 내	



	여러 야구팀을 지원함. 이와 별도로 다목적 공간인 대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인조잔디 및 트랙을 전면 교체하여 구성원의 체육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함	
	<시설복지 3-21> 제언내용: 스포츠진흥원 설립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교내 스포츠 행정기구 “스포츠진흥원” 설립. 교내 스포츠 행정 관련 업무 담당 (설립일 : 2017. 12. 8.)	
	<시설복지 3-22> 제언내용: 웰니스센터 설치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웰니스센터 설치 완료. 수업/운동부 활동/교내 스포츠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 중(위치 : 71-1동 112호)	
답변기관	<b>관악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b>	<b>2011</b>
시설관리국	<시설복지 3-23> 제언내용: 교통관련 시설(주차시설 부족, 이륜차 거치대의 수와 분포의 비합리적 배치, 보행환경 불편, 자전거관련시설 부족 등)을 완비할 것	캠퍼스관리과 , 시설기획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 행정관 앞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거점 주차시설 확충	
	<시설복지 3-24> 제언내용: 현재의 교통상황(주차시설 관련규정 가변성 높음, 순환도로상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이용자 안전 위협, 정기주차권 발급기준 복잡, 지선버스 배차간격 단축, 관악산 등산객의 버스이용으로 인한 불편 해소, 시기별 및 시간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배차간격에 대한 홍보 부족, 이륜차 관리 및 방치이륜차 처리, 교내 규정속도 제한 미비 등)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주차권 발급방식 간소화 추진 중 (2021학년도 하반기 도입 예정) - 주정차 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구역 주차금지 차단봉 설치 등 지속적 보완 작업 진행 - 정기적으로 장기 무단방치 이륜차량 처분	
	<시설복지 3-25> 제언내용: 교통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 매학기 초 정기권 신규등록 및 연장 방법 및 대상 안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내 정기권 및 일반권 등에 대한 상세 내용 안내	
	<시설복지 3-26> 제언내용: 교통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교통상황에 대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것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 학내 교통시설물 현황 관리 및 주기적 유지보수	

보고서는 관악캠퍼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책들은 크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상당수는 학생처의 소관사항이었으며 일부는 시설관리국이 관장하는 업무영역이었다. 전체 26개의 제안된 정책들 중 미반영된 정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영이 14건, 부분반영이 12건으로 제안된 모든 정책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이루어져 있었다.

• 반영

- 야외 공연시설을 확보하고 통합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 문화관, 노천강당 등 낙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할 것
- 공연 및 전시의 평일 편중 현상을 해소할 것
- 밴드 합주실을 설치할 것
- 학생자치 문화단체를 지원할 것
- 대학생활문화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기숙사에 세미나실과 연습실, 실습실을 확충할 것
- 편의점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 보건진료소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체육문화교육연구동 건립
- 스포츠진흥원 설립
- 웰니스센터 설치
- 교통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

• 부분반영

- 유료연습시설을 도입하고 개인연습실을 설치할 것
- 연습시설의 관리비용을 책정하고 관리자를 도입할 것
- 문화시설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
- 캠퍼스 내 문화행사를 기록할 것
- 기숙사 학부 생활관을 재건축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보건진료소의 서울대학교병원 관악캠퍼스분소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것
-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수혜자 대상을 확대할 것
- 학생의료공제혜택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비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 추진
- 인조 잔디 야구장 건립
- 교통관련 시설을 완비할 것
- 현재의 교통상황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것
- 교통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교통상황에 대한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것

것

- 미반영: 없음

전체적으로 문화활동 및 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많은 편이었고 그에 비해 의료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통상황 개선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부분반영이 많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유료화 전환이나 관리비용의 책정에 대해서는 학내의 반발 우려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 의료혜택의 경우 보건진료소가 직장부속의원으로 확대 개편 및 학교 경영자 배상보험 등을 통해 혜택이 늘어난 측면과 함께 학생 의료공제회 제도가 2013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그 혜택이 이후의 신입생들에게는 더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 감소의 측면도 확인되었다. 교통여건의 경우 주차문제, 보행환경, 셔틀버스, 지선버스, 이륜차, 도로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일단 시급하게 당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관 앞 잔디광장 지하주차장이 학내 주차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캠퍼스 내 교통상황 및 교통수요자 관점에서의 만족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과 추진체계 구상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과 추진체계 구상	2020
학생처	<시설복지 4-1> 제언내용: 성폭행 및 인권침해 사고 근절노력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인권센터
	반영 내용: - 사건 당사자에게 재발방지나 치유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권고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계함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 당사자 심리지원 사업 실시(외부 심리상담기관에 연계, 심리상담비와 정신과 진료비 일부 지원) - 트라우마 심리치료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담 연계함 - 센터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심리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도움	
	<시설복지 4-2> 제언내용: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태점검 강화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학생지원과
	반영 내용: - 학생안전관리 교육: 학생지원과는 본부 및 각 단과 대학에서 추진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위해 각 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직무전문교육(학생안전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시행시기: 연말 또는 연초) - 학생회관 화재대피 훈련: 학생회관에 상주하는 다양한 기관(생	

<p>활협동조합, 보건진료소, 대학생활문화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과 함께 매해 학생회관 화재대피 훈련을 주관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4-3&gt; 제언내용: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등) 접근 및 노출 억제</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보건진료소 ‘금연클리닉’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 상담, 금연보조제, 금연 관련검사 무료 제공</li> <li>- 매 기수마다 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년 5회)</li> </ul>	
<p>&lt;시설복지 4-4&gt; 제언내용: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교내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및 사용자 관리 강화. 신체활동 참여프로그램 “건강운동강좌”, “구성원 힐링요가” 프로그램 운영. 기타 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으로 부분적으로 진행</p>	
<p>&lt;시설복지 4-5&gt; 제언내용: 캠퍼스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 활동 개발</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학생지원과는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 증진을 위하여 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2020년의 경우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의 공조로 “인스타 집콕 라이브”, “온라인 코로나 방탈출” 과 같은 행사를 기획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위축된 학생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소속감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4-6&gt; 제언내용: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확충</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p>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2층)에 2015년 2월에 약 6,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장관 철거 및 신형 교체, 온돌 판넬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휴게공간을 확충하였음</p>	
<p>&lt;시설복지 4-7&gt; 제언내용: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공유방안 도입</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NH농협두레문예관(67동)에는 춤, 악기 연주, 체육활동(요가 등), 소모임 등을 위한 연습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회관에는 다양한 학생동아리방이 있음. 문화관 대강당, 중강당, 전시설에서는 각종 공연과 전시가 구성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p>	
<p>&lt;시설복지 4-8&gt; 제언내용: 캠퍼스 다양성 존중 및 소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p>	학생지원과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p>	

2016년 다양성위원회 출범으로 캠퍼스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학문공동체 구축(총장 직속 자문기구)	
<시설복지 4-9> 제언내용: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학생처 주관 캠퍼스 견학은 물론 규장각, 중앙도서관, 미술관 등 캠퍼스 내 교육·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일반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견학: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기견학을 문화관에서 개최하며 서울대학교를 소개하고, 주요 단과대학을 탐방하며 캠퍼스 활동을 소개 - 예술주간 등 운영: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음악공연, 미술전시, 시낭송 등 예술주간은 물론 토크콘서트, 힐링콘서트, 작가초대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역민들과 공유함 - 미술관, 규장각, 박물관 등: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등 상시, 특별 무료 전시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앙도서관: 2015년 2월 신축한 중앙도서관 관정관 시설 견학 및 작은 전시회, 북콘서트 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 - 문화관 등 공간 대관 공유: 화요음악회, 오페라 공연 등 서울대학교 주최 공연 등을 일반인 누구나 관람 가능하도록 공간을 공유하며, 각 대학별 체험캠프,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화전, 소방본부, 전국독서대회 행사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게 공간을 대관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활동을 꾸준히 실시	
<시설복지 4-10> 제언내용: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반영 내용: <대학생활문화원>	
<시설복지 4-11> 제언내용: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연계강화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대학생활문화원> 교내 보건소를 포함한 5개 상담센터 및 12개의 단과대 상담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교내유관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상담연계를 비롯하여 여러 상담 실무 관련된 논의를 긴밀히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돌봄협의회를 통해 센터 운영자 수준의 연계 또한 진행하고 있다.	
<시설복지 4-12> 제언내용: 교내 식당에 건강 지향적 메뉴 확대 (생활협동조합)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감골식당에서 채식뷔페 코너 운영	

	<시설복지 4-13> 제언내용: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보건진료소)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보건진료소는 상시 가정의학과 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사전예약 및 당일 방문 진료도 가능함. 학생건강검진 프로그램 또한 매일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여 학내 구성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높은 편임	
답변기관	<b>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과 추진체계 구상</b>	<b>2020</b>
시설관리국	<시설복지 4-14> 제언내용: 교통환경 개선 및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마련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상시 홍보 및 규정 연내 제정 예정	
	<시설복지 4-15> 제언내용: 휴식과 사색을 위한 걷고싶은 길 조성	시설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	
	<시설복지 4-16> 제언내용: 생활거점 주변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	시설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		

해당 보고서는 서울대학교를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건강캠퍼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는 보고서로 크게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제언들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제언들은 학생처의 소관 정책들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시설관리국 소관 업무에 해당하였다. 전체적으로 16개의 정책제언들 중 11항목이 반영된 상태이며 부분반영 2항목, 미반영 3항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제언들이 정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반영
  - 성폭행 및 인권침해 사고 근절노력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태점검 강화
  - 건강위험요인 접근 및 노출 억제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캠퍼스 소속감과 유대감 증진 활동 개발
  -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휴게공간 확충
  -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공유방안 도입
  - 캠퍼스 다양성 존중 및 소수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연계활동 강화
  -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연계강화
  - 교내 식당에 건강 지향적 메뉴 확대

- 부분반영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 교통환경 개선 및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마련
- 미반영
  -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연계강화
  - 휴식과 사색을 위한 걷고 싶은 길 조성
  - 생활거점 주변 오픈 스페이스의 조성

전체적으로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언들은 대부분 정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반영되지 못하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전면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언들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해 많은 예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달성될 수 있는 제언들이거나 최근의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직 제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언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연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곧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캠퍼스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집행과정 속에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설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5.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2018
학생처	<시설복지 5-1> 제언내용: 음식의 질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과 식당 간의 격차 완화 (생활협동조합)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미반영 사유: 교내 식당은 생협 직영, 생협 위탁, 대학 임대 등 운영의 주체가 상이하기에 가격 및 식사의 질 관련 정책을 생협이 통일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모든 단체급식 식당은 큰 폭의 적자 운영으로 식당 유지 자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음	
	<시설복지 5-2> 제언내용: 휴게공간의 홍보 및 확충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학생회관 남·여학생 휴게실, 장애학생 휴게실을 비롯하여 각 단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휴게실을 운영 중(모유수유실 포함)	
	<시설복지 5-3> 제언내용: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확대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외 대학생활문화원, 단과대 상담센터 등 학내 상담유관기관은 요구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 확대 및 정신건강 관		

	<p>런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있음. (대학생활문화원)</p> <p>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에 있어 기초적인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구조화 과정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구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집단상담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자기이해 및 의사소통 훈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단 내 대인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또한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오프라인 대비 3배 이상 참여자 수 증가하였다. 오프라인에 비해 공간의 제약이 적어, 참여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집단프로그램 역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연건, 평창캠퍼스 등 타 캠퍼스에서 참여자가 확대되었다.</p>	
	<p>&lt;시설복지 5-4&gt; 제언내용: 보건진료소 전공과목 진료 확대 (보건진료소)</p>	<p>장학복지과</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현재 전문과목(이비인후과/부인과/안과/피부과/정형외과) 진료는 요일별로 주 1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등 파견기관 상황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는 매일 운영 중이며, 2018.11월 내과 진료과목이 주 2회 추가 개설됨.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중단,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재개 예정)</p>	
	<p>&lt;시설복지 5-5&gt; 제언내용: 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증대</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반영 내용: 교내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및 사용자 관리 강화. 신체활동 참여프로그램 “건강운동강좌”, “구성원 힐링요가”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나 확충에는 공간적 어려움이 있음</p>	
	<p>&lt;시설복지 5-6&gt; 제언내용: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p>	<p>학생지원과</p>
	<p>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서울대학교는 박물관, 규장각, 도서관 등 서울대학교만이 가진 특별한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 및 도서 등을 전시하고 음악공연, 미술전시, 시낭송 등 예술주간 등을 마련하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규장각: 상시 전시, 특별 전시는 물론 한국학 여름학교, 한문워크숍 등 특별 프로그램 제공</li> <li>- 도서관: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 힐링콘서트, 작은 전시회 등 제공</li> <li>- 대학 및 학생처 등: 동시대의 주목받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li> </ul>	



	고, 음악회, 책읽기, 시낭송, 국제음악캠프, 토크 콘서트, 힐링 요가 등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화요음악회, 기획전시, 공개강좌, 다문화 토크콘서트 등)	
	〈시설복지 5-7〉 제언내용: 기숙사 입사조건의 재검토(통학시간이 긴 서울거주자의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학생생활관)	장학복지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관악학생생활관> 2019년 1학기 입주신청부터 서울 일부 지역(노원구 및 도봉구*)을 신청 가능 지역으로 확대하였음 (* 행정구역 중점기준 거리, 대중교통 최단 거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공통으로 기준 내 포함되는 지역으로 선정됨) <연건학생생활관> 이전부터 서울학생도 지원 가능하여 서울 거주자도 수용하고 있음 <합춘학생생활관> 선발우선순위는 지방 거주 학부생이나, 여석이 있을 경우 서울거주자도 기숙사 입사 가능함 <상록학생생활관> 지리적 특성상 평창캠퍼스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입주를 수용하고 있음	
	〈시설복지 5-8〉 제언내용: mySNU에 통합민원창구의 개설	학생지원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2020.5.) ○ 열린 S&U 운영(2020.5.25.~) - 구성원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전면 개편 1. 분야별 건의·문의 확대 (15가지) • 학생지원(학사 등) : 10가지 항목 • 시설 및 캠퍼스 : 3가지 항목 • 교원 및 연구비 : 2가지 항목 2. 대학(원)별 건의·문의 신설 3. 각 기관에 다이렉트 문의 기능 신설 4. 민원 처리 단계별로 신청인 및 담당자에게 E-Mail 알림 발송 ※ 전년 동기간 대비 접수 379건 증가 •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58건(2019.5.25.~2020.4.30.) • 열린 S&U 437건(2020.5.25.~2021.4.30.)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2018
시설관리국	<시설복지 5-9> 제언내용: 교통수단의 개선(셔틀버스 증차, 배차간격 조정, 방학 중 운행 등 셔틀버스와 시내버스 관련 제도적 개선)	캠퍼스관리과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캠퍼스관리과> - 셔틀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순화 및 간격조정 적용	

이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들을 다루고 있으며 휴식, 정신건강, 운동, 문화, 거주, 민원, 교통, 의료, 식당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일반화된 제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제언들의 주무부처는 학생처였으며 일부 제언이 시설관리국의 소관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9가지의 다양한 제언들 중 7가지는 반영되었고 한가지가 부분 반영, 그리고 한 가지가 미반영이었다.

- 반영

- 휴게공간의 홍보 및 확충
-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확대
- 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증대
-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 기숙사 입사조건의 재검토
- mySNU에 통합민원창구의 개설
- 교통수단의 개선

- 부분반영

- 보건진료소 전공과목 진료 확대

- 미반영

- 음식의 질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과 식당 간의 격차 완화

전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언들 중 부분반영된 보건진료소 전공과목 확대의 경우 그간 진료과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확대되어 오기는 했으나 여러 과목을 매일 상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접근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는 한편으로 전문 의료 인력의 공급처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상황과도 연동되는 문제로, 확대를 추진할 경우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관 간의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미반영 정책제언인 교내 식당에서의 합리적 가격과 식당 간 격차 완화의 경우 교내의 모든 식당이 생활협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어서 이들 다양한 운영주체의 식당운영방식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생활협동조합 식당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한 식당운영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6. 지속가능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연구

번호 답변기관	지속가능한 학생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9
<시설복지 6-1> 학생처/대학 생활문화원/ 보건진료소	제언내용: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 구성 및 개선 사항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대학생활문화원> 각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원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함. <학생처보건진료소> “정신건강 관련 보건진료소 소관 사항만 답변” 학내 상담 유관기관 - 정신건강 예방 증진업무 담당 보건진료소 - 정신건강 치료업무 담당 업무 분장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대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시설복지 6-2> 학생처 보건진료소	제언내용: 정신건강 실무기관의 예산 현황 및 변화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정신건강 관련 보건진료소 소관 사항만 답변” 보건진료소 - 정신건강 별도 배정 예산 없음.	
<시설복지 6-3> 학생처 보건진료소	제언내용: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을 일반학생과 관심군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정신건강 관련 보건진료소 소관 사항만 답변” 보건진료소 - 학내 정신건강 사업 분장에 따라 치료 사업에 집중 (현재는 일반군을 위한 교육, gate keeper 교육은 학내 상담 유관기관에서 담당).	

<학생처/보건진료소> 정신건강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과 개선 방향

“정신건강 관련 보건진료소 소관 사항만 답변”

1) 이용 현황

보건진료소 정신건강 진료 건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3185	4132	5315	5709	4781

2) 예산 규모 및 지급방식

3) 실무자의 선발 및 근무제도 ~ 4) 어려운 점

직원 휴직 시 대체 전문 인력 충원 어려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예산 및 공간 부족

5) 장기적 개선 계획

- 학내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 필요  
 학내 상담유관기관의 서비스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면, 학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나 기관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각 상담유관기관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게, 또는 요구도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단과대 상담센터 확충: 학생들이 각 단과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과대 별 상담센터(진로상담 포함)가 더 확충될 필요

#### IV.3.2. 선행연구보고서의 핵심정책 반영 현황

앞서 III장에서 검토한 5종의 보고서에서 캠퍼스 환경, 건강 및 복지 측면에 대해서 정리된 정책제안들을 유사성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주제 범주들이 어떤 부문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각각이 독립적인 여러 정책 및 기획 보고서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정책제언들은 서울대학교의 환경,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언이거나 혹은 필요한 정책제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각 보고서의 연구 시점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던 정책제언일 경우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그러한 범주의 정책제언들은 다른 제언들에 비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제언들을 범주별로 분류해 본 결과 특히 많은 제언들이 집중되었던 범주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부문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괄호 안의 수치는 5종의 보고서에 언급된 정책제언들 중 해당 범주로 분류된 정책제언의 수를 보여준다.

- 건강환경의 개선: 보건진료소, 정신건강, 음주와 흡연문제 등(18)
- 휴식,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16)
- 교통환경의 개선: 주차, 지선버스, 셔틀버스, 보행환경 등(10)

이와 같은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학생처와 시설관리국에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부처별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 1. 캠퍼스 건강환경 개선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꾸준히 개선이 이루어져 온 대상은 보건진료소였다. 2011년에 직장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으로 개편과 의료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20년의 코로나19 상황 대응관리에 이르기까지 매년 진료과목 다양성 확대, 의료기기 확충, 서비스 향상 등 다방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의료시설로의 시공간적 접근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의 질 또한 전문의 체제로의 개편으로 인해 향상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답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각 연도별로 보건진료소의 서비스 확대 및 시설 또는 장비확충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 적용</li> <li>- 각 진료과 의료진을 전문의로 변경</li> </ul> </li> <li>·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종합검진프로그램 도입, 홈페이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환경개선공사 시행</li> <li>· 콜밀도 기기, 뇌파 기기 도입</li> </ul> </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학과 진료 확대</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건강검진 확대·개편 (검사항목 확대, 웹설문 도입)</li> <li>·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교체</li> <li>· 금연클리닉 신설</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건강검진 연중 상시 예약검진 시스템으로 전환</li> <li>· 진단검사실 노후 장비 교체</li> <li>· 관악건강특강 확대·개편, 보건진료소 소식지 창간호 발간</li> <li>· 정신건강센터 집단프로그램 신설</li> <li>· 심폐소생술 정기 교육 개시</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라매병원 전자의무기록 원격 조회용 VPN 개설</li> <li>· 방사선촬영실 검사 장비 교체</li> <li>· 신경인지검사실 개설, 검사 개편</li> <li>· 관악학생생활관 입소용 검진 결과 자동 연동 프로그램 개발</li> <li>· 학내 감염성 질환 관리체계 구축</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학과 진료 확대</li> <li>· 점심시간 응급콜 당직 근무 시행</li> <li>· 학생건강검진 전산프로그램 교체</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재구축 및 진료예약 시스템 개선</li> <li>·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대</li> <li>· 학내 응급환자 대응매뉴얼 제작</li> <li>· 긴급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재개</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과 진료 신설</li> <li>· 온라인 단체 정신건강검진 개발</li> <li>· 마이스누 모바일앱 - 보건진료소 서비스 연동 구축</li> <li>·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핫라인 구축</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라매병원 ‘위대장 내시경검사 바로 예약서비스’ 구축</li> <li>· 진료/예방접종 일정 리마인더 서비스 개시</li> <li>· 스트레스 분석 검사(뇌파/맥파) 기기 신규 도입</li> <li>· 진단검사실 노후 장비 교체</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대응팀 응급콜 당직 근무 운영</li> <li>- 예진실 운영</li> <li>- 확진환자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후속 관리</li> </ul> </li> <li>- 신고대상 관리(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li> </ul>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을 위한 증진사업, 프로그램, 정책 혹은 서비스 추진상황의 경우, 각 단

과대학별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캠퍼스 전체로 볼 때 크게는 보건진료소와 대학생활문화원의 두 기관이 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진료소의 답변에 따르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온 추세에 따라 단과대학을 포함한 여러 기관별로 학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신건강 사업들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사업이 중복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부터는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분장을 통해 학내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는 기존의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를 치료사업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높은 치료 요구도 반영을 위해 상주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1명에서 2명으로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진료시간 또한 주 3일 오후시간 진료를 주 5일 오전 오후시간 진료로 확대하여 상시진료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 및 기능검사, 1:1 치료프로그램, 정신건강검진 유소전자관리 등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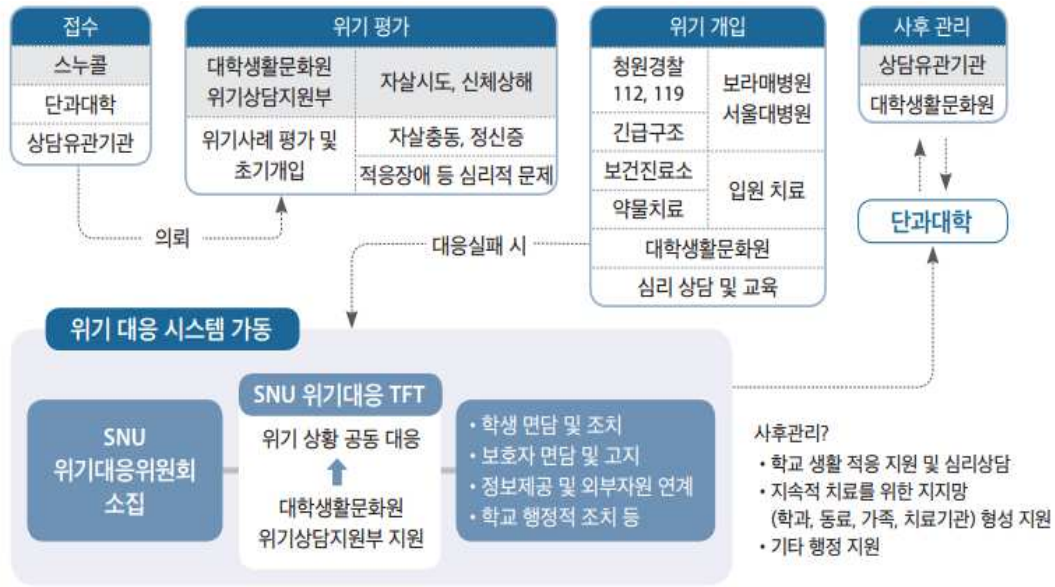
대학생활문화원의 경우 상담사업 중심으로 보건진료소와 차별화된 특화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한 대학생활문화원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또한 원내 세 곳의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심리상담부

-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은 지난 10년간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학생 구성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더불어 K-WAIS, MMPI-2, SCT, CST, MBTI, TCI 등의 대학원생이 대학원에 더 잘 적응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심리검사 서비스 또한 지난 10년간 제공해 왔다.
- 직원 역량강화 및 수련상담사 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은 지난 10년간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더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학원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의 상담역량이 높을수록 상담을 받는 대학원생들이 더 좋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상담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수련상담사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상담 인력 수급을 통해 안정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교내 상담기관 연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대학원생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내 보건소를 포함한 5개 상담기관과 12개의 단과대학 상담센터의 서비스 연계 운영하고 있다



(2) 위기상담부



(3) 역량개발부

-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는데, 2014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과 학부생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초급(집중반)’이라는 명칭으로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집단을 시작하였다. 초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던 방식에서 학부 그룹과 대학원 그룹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에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을 나누게 되었다. 집단원들끼리의 유대감과 나누는 고민과 어려움들의 공감대 형성이 보다 쉽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2014년 1학기 이후부터 학부와 대학원을 분리하여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바뀌었고, 매년 4번의 학기에 걸쳐 대학원생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 ZOOM으로 만나는 비대면 집단상담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고, 일부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이 변화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2021년 1학기에는 대면과 비대면 모두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학부는 1집단, 대학원은 4집단이 개설되었고, 대학원 4집단 중 3집단이 대면 집단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학원생의 수요가 비대면집단보다 대면집단에 더 많았으며, 대학원생들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집단 내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상호작용하는 집단상담 과정이 비대면보다 대면 집단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활용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 집단프로그램 운영: 현재 역량개발부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은 공감의 대화법 교육을 위한 스친프로그램,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위한 바른자세를 학습하는 알렉산더 테크닉프로그램 2가지이다. 이 중 스친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자살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내 상담전문기관 외에 간단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또래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고, 매 학기 상담의 기본 이론과 공감의 태도 등 공감의 대화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알렉산더테크닉은 본 기관 ‘호흡과 명상’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생을 비롯,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 프로그램으로서 2019년 3월 시작되어 매달 진행되고 있다.

-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비대면 집단 진행: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포맷과 커리큘럼을 비대면 Zoom 진행에 맞게 최적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관악캠퍼스를 제외한 타 캠퍼스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알렉산더 테크닉의 경우 참여자가 3배가량 증가하였다.

## 2. 휴식,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

시설의 경우 2015년에 신축된 풍산마당은 캠퍼스 내의 대표적인 옥외 문화시설로 1982년에 세워진 기존의 노천강당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리모델링이 추진되었고 그 사업 결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2,300여명을 수용가능한 풍산마당은 야외무대와 함께 대기실, 분장실, 동아리방 등 부속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학생 문화행사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시설관리국에서 답변한 설치시설들의 목록을 검토해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설치된 시설들 중 풍산마당이 규모나 예산으로는 가장 큰 시설이라고 보이지만 설치 빈도로 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휴식과 관련된 시설이었다. 이들은 주로 시설관리국 산하 시설기획과에서 추진한 시설들이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기관의 의견에 따라 필요할 경우 휴식, 여가 혹은 문화 공간을 반영하는 식으로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새롭게 설치된 시설들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건 물 명	준공연도	휴식, 여가, 문화 공간	사용기관
IBK커뮤니케이션센터	2014년	라운지(1F)	사회과학대학
예술계복합연구동	2015년	카페(1F)	미술대학
사범대학 10동	2015년	옥상정원(RF)	사범대학
인문대학 14동	2016년	소극장(B1F)	인문대학
유희진학술정보관	2018년	카페(1F), 피트니스센터·다목적실·라운지(2F)	공과대학
외국인학생기숙사	2019년	체력단련실·카페(B1F)	관악학생생활관
경영대학 59-1동	2019년	카페(2F)	경영대학
인문대학 7동	2020년	라운지(1, 2F)	인문대학
사범대학 9동	2020년	옥상정원(RF)	사범대학

표에서 보면 라운지나 카페, 옥상정원 등 휴식공간의 설치가 매우 활발했던 반면,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설치 방식과 절차로 볼 때 이는 사용기관들에서 휴식공간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휴식시설의 경우 사용기관 소속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건물 내 혹은 주변 가까이에 설치되어 그들이 쉽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휴식시설의 경우는 대학원생과 같이 교내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일상적인 재충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러한 점에서 휴식공간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온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은 이용자 저변으로 볼 때 특정한 하나의 사용기관에 국한되기 보다는 캠퍼스 전체에 저변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별 사용기관의 의견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보다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생처 주관으로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는데, 학생처의 답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만이 가진 특별한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 및 도서 등을 전시하고 음악공연, 미술전시, 시낭송 등 예술주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재 학생처에서 주관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정리되어 있다.

- 대학 및 학생처 등의 예술주간 등 운영: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음악공연, 동시대의 주목받는 미술작품 전시, 책읽기, 시낭송, 국제음악캠프 등 예술주간은 물론 토크콘서트, 힐링요가, 작가초대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예술 활동 지원(기획전시, 공개강좌, 다문화 토크콘서트 등)
- 미술관, 규장각, 박물관 등: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등 상시, 특별 무료 전시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학 여름학교, 한문워크숍 등 특별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중앙도서관: 2015년 2월 신축한 중앙도서관 관정관 시설 견학 및 작은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북콘서트, 힐링콘서트 진행 등
- 문화관 대강당, 중강당, 전시실 행사: 화요음악회, 오페라 공연 등 서울대학교 주최 공연 등을 일반인 누구나 관람 가능하도록 공간을 공유하며, 각 대학별 체험캠프,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화전, 소방본부, 전국독서대회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도 넓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인 제언을 한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좀 더 세분화하여 개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자 적은 프로그램의 경우 방향성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요자 저변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생 일반의 선호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의 대안들을 제공해 주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 3. 교통환경의 개선

캠퍼스의 교통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나 특히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은 주차문제, 지선버스, 셔틀버스, 보행환경 등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문제들은 비단 대학원생들에게만 고유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아니겠지만, 문제해결이 대학원생의 캠퍼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주차문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차량의 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차면수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무작정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은 이

미 특정 시간대에 교통혼잡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캠퍼스의 교통량을 과다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주차관리를 위한 정책은 주차단속,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주차관리, 주차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억제와 같이 관리적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2021년 행정관 앞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공사 착공을 통해 대규모의 주차공간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이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 유일한 대규모의 공급진작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이루어진 주차관련 정책들은 아래와 같다.

- 교통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단속 및 정기권 이용 제재(상시)
- 정기권 이용자 Tag 인식 → 차량번호 인식(LPR) 전환,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10~'11)
-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캠퍼스 통행량 억제를 위한 주차요금 인상 검토 및 시행('14~'21)
- 교통환경 개선 종합대책 TFT 운영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19~'20)
- 거점주차구역 확보의 일환으로 행정관 앞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공사 착공('21)

셔틀버스와 지선버스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은 특히 통학과 학내이동에 이들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대상들인데 이에 대해 시설관리국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셔틀버스의 증차 및 배차간격 단순화, 그리고 간격조정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용편의성 향상을 추진해 온 것으로 답변하였다. 지선버스의 경우 2012년에 5516번 버스의 운행노선이 캠퍼스 전체로 확대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2015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 절삭이 진행되었다. 저상버스의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는 점에서 장애인 학생의 접근성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9~20년 기간중에는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확충하여 설치함으로써 승 하차시 안전과 편의성의 증대를 유도하였다.

보행환경의 경우 캠퍼스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들에 주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행공간과 차량공간이 혼재되면서 보행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보행공간과 차량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2016년 정문 진입로(정문~500동)의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정문 진입부 환경개선 및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를 통해 정문으로부터 대학본부에 이르는 순환도로변 노상주차를 억제하고 그 결과 보행공간으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정책인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사업정보는 아래와 같다.

- 사업명: 지하주차장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 추진배경
  - 대학본부 주변 주차 수요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학내외 구성원 주차 불편 가중
  - 학내 주 진출입로(정문~38동 순환도로) 노상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 추진내용
  - 1단계: 대학본부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건립

※ 주차대수: 417대(전기차충전소 23대 포함)

- 2단계: 정문~38동 순환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 추진경과
  - 2020. 6월: 시행계획(안) 총장 보고
  - 2020. 8월 ~ 2021. 2월: 1단계 설계
  - 2021. 3월: 1단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22. 9월: 1단계 공사 준공
  - 2022. 6월 ~ 2023. 2월: 2단계 사업 추진

#### IV.3.3. 대학생활에 대한 대학원생 의견조사 결과와의 비교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집단인 대학원생들만을 특정하여 의견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2018년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발간된 **“2017년 대학원 재학생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7년 12월 ~ 2018년 2월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1,363명의 비교적 방대한 설문 응답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조사결과 중 4장과 5장에 걸쳐 학생복지 서비스 및 개선방향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측면에 걸쳐 정리하고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의 보고서에 정리된 분석결과들은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집단인 대학원생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어떤 것들이 좀 더 향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혜택의 수요자 혹은 수혜자 관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서울대학교의 현재 정책반영여부와 연결지어 비교한다면 관련 서비스와 시설,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필요와 공급 간에는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양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캠퍼스 건강, 환경, 복지 부문에서 향후 어떤 측면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활문화원 보고서에서는 총 13개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이들 중 본 보고서의 캠퍼스 환경, 건강, 복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8개였으며 이들을 만족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서비스:	3.36점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	3.34점
신체건강지원 서비스:	3.23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서비스:	3.21점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서비스:	3.16점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	3.02점
학생공간제공 서비스:	2.80점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2.56점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로 대부분의 항목들이 3점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대학원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스럽지도 혹은 매우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보통 수준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항목들 중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서비스는 2.56으로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편이며 정리된 8개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특히 학내 거주시설로서의 기숙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와 같이 학부생에 비해 학교에 더 빈번하게 등교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인근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공간 제공 서비스의 경우도 2.80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었지만, 그 주요한 이용 주체가 대학원생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응답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도 만족도 평균값이 3점을 겨우 넘긴 수준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이었다. 교통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대학원생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으로 본 보고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른 정책보고서들에서도 다수가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학생활문화원의 보고서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담겨 있다.

1) 캠퍼스의 환경, 건강, 복지 부문에 국한해서 대학원생들이 생각하기에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안정적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로 20.7%의 대학원생들이 이를 선택하였다.

####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20.7%)

세부영역:

- 기숙사 규모 확대(64.4%)
- 기숙사 비용인하(10.6%)
- 기숙사 시설 쾌적하게 개선(9.5%)
- 기숙사 입사비율 조정(6.5%)
- 기숙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3.7%)
- 기숙사 주변 환경 안전(1.8%)
- 기타(3.5%)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숙사 규모 확대를 가장 시급한 세부 영역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기숙사 규모 확대는 다음으로 시급하다고 파악된 기숙사 비용인하와 5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기숙사의 규모 확대를 통해 기숙사 내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부생과 비교하여 학교로의 통학빈도가 더 잦고 학내에 있는 시간이 더 긴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캠퍼스의 환경, 건강, 복지 부문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5종의 보고서들에서 명시적으로 기숙사의 규모확대에 대해 제언을 도출한 보고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 중 2011년 “**관악 캠퍼스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제언**” 보고서의 경우 기숙사 학부 생활관을 재건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있기는 하였지만 관악 학생생활관의 정책반영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재건축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하나, 최근에 재건축이 실제로 실행된 건은 없는 상황으로 확인된다. 한편으로, 5종의 기존 정책연구들에서 직접적으로 제언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반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하지만 기숙사 신축의 경우에 글로벌 학생생활관의 신축이 이루어져 일정부분 대학원생

의 주거수요가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의 정책반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두 번째로 대학원생들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영역은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였다.

#### 정신건강지원 서비스(12.0%)

세부영역:

- 전문치료, 상담서비스 확대(26.6%)
- 학내 상담 프로그램 안내 홍보 강화(20.3%)
- 교수 학생 간 교류지원 서비스 강화(17.5%)
- 친구 선후배간 교류지원 서비스 강화(14.4%)
-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확대(9.5%)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6.5%)
- 기타(5.1%)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대학원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인식하는 영역은 전문치료, 상담서비스의 확대이며, 이는 대학 차원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꾸준히 대응해 온 사안으로 보인다. 학생처의 정책반영여부 응답에 따르면, 사업 추진 초기에는 각 기관 별로 학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신건강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사업이 중복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어, 현재는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기능적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대학생활문화원과 단과대학 상담센터의 경우 정신건강 예방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반면, 보건진료소의 경우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상담관련 유관기관 들은 협의 및 핫라인 구축을 통해 학내 정신건강 문제 및 정책제안에 있어서 협업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가검진 및 상시 학생검진 혹은 단과대 요청에 따른 온라인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에 개입할 수 있다. 대학생활문화원의 경우 정서조절, 학업위기, 관계향상 등과 관련된 주요 상담문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울증 조기발견 및 위험군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을 제공하고 대학정신 보건모델의 개발을 통해 교내 상담유관기관 협의회 및 기관장 정신건강돌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해 왔는데, 몇몇 대표적인 예로 2014년 정신건강센터 집단프로그램 신설,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대, 2018년 온라인 단체 정신건강검진 개발, 2019년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핫라인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주5일의 상시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심리 및 기능검사, 1:1 치료 프로그램, 정신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시행 등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를 치료사업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높은 치료요구도 반영을 위해 상주 전문의도 기존의 1인에서 2인으로 확충하고 진료시간도 상시화하였다.

다음으로 시급하다고 인식한 세부영역은 학내 상담 프로그램 안내 홍보 강화이며 이는 정책 반영여부의 응답을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이메일 홍보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메일 이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홍보의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SNS 등 보다 다양한 수단들을 개발하고 강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대학원생들은 교수 학생간 교류지원 서비스 강화나 친구 선후배간 교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 부분 또한 기존 5종의 정책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는 부문으로 단순히 대인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의 고려를 넘어 대학원생 개개인이 각자의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학본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단과대학과 학과 단위의 개별 기관들, 그리고 그 속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3) 세 번째로 대학원생들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식당 및 각종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였다.

식당 및 각종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11.7%)

세부영역:

- 학생식당 식사 질 개선(41.2%)
- 학생식당 낮은 가격 유지(22.6%)
- 생협운영 식당 수 확대(18.1%)
- 학생식당 운영시간 연장(9.2%)
- 외부업체 운영식당 수 확대(4.0%)
- 식당환경 및 위생개선(1.5%)
- 기타(3.4%)

학내 식당과 관련한 세부영역별 개선항목 중 다른 항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학생식당의 식사 질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40%가 넘는 대학원생들이 여기에 응답하였다. 학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문제와 함께 양질의 식사는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다. 다만 설문에서는 식사의 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 좀 더 맛있는 식사를 의미하는 측면과 건강을 좀 더 고려한 식단이라는 측면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정책제언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식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정책 연구들에서는 이 세부영역과 관련하여 비만유발식품 퇴출 등 건강식단의 측면에서 제언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들은 감골식당에서 채식뷔페의 운영으로 직접적인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식당의 경우 생협 직영 6개 식당에서 음식별 열량 및 단백질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제언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세부영역은 학생식당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학내 구성원 중 교직원에게 비해 경제적으로 제한이 있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의 경우는 가격 인상에 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 실제로 이전 정책 연구에서도 음식의 질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반영사유로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생협 소속을 포함해 모든 단체 급식식당이 큰 폭의 적자 운영으로 식당 유지 자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수준의 상승에 따른 식재료 가격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변동 요소를 고려한다면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가격수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별도의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대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혹은 그 방법이 어려울 경우 생활협동조합 회원의 저변확대를 통한 회비 재원확보 등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언급된 생협 운영 식당 수 확대나 학생식당 운영시간 연장 등도 결국은 운영비용 측면에서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근본적으로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네 번째로 대학원생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학생을 위한 공간의 확충이었다. 학생을 위한 공간 확충(10.7%)

세부영역:

- 아프거나 힘들 때 누워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늘리기(31.1%)
- 기존 학생 자치공간 관리노력 필요(19.1%)
- 학생 자치공간 늘리기(13.8%)
-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공동 공간 늘리기(12.7%)
- 그룹스터디 공간 늘리기(9.8%)
- 여가생활 위한 공간 늘리기(6.6%)
- 공간대여시스템 및 서비스개선(3.6%)
- 기타(3.3%)

학생을 위한 공간 중에서 대학원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개인 휴식공간이었다. 대학원생들이 학내 연구실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와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경우에 따라 단과 대학별로, 그리고 학생회관의 경우에도 남 여학생 및 장애학생 휴게실(2층의 여학생 휴게실은 2015년 리모델링) 등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주 이용자 층은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인 경우가 많아 대학원생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공간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 즉 실험 등과 같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장시간의 업무가 진행될 경우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휴게공간의 상시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휴식공간에 이어 대학원생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자치공간이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자치공간을 관리하는 노력과 자치공간의 규모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그 아래의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공동공간 늘리기나 그룹스터디 공간 늘리기 등의 항목들도 자치공간과 관련된 앞의 두 항목과 같이 대학원

생 스스로가 능동적 행위 주체가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대학원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5종의 정책보고서에서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치공간이나 공동공간, 그룹스터디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제언은 없었으며, 간접적으로 연결된 제언으로 기숙사에서 세미나실을 확충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공유방안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본부에서 응답한 정책 반영여부를 보면 관악학생생활관을 포함한 학내 여러 기숙사에서 세미나실,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교류의 경우 NH농협 두레문예관(67동), 학생회관, 문화관 등에서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6.6%의 응답자만이 시급하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원생들 사이에서의 시급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다섯번째로 대학원생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영역은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였다.

신체건강지원서비스(3.7%)

세부영역:

- 무료이용 체육시설 확대(27.5%)
- 전문 유료체육시설 가격인하(23.8%)
- 현재 체육시설활용도 접근성 증진(18.5%)
- 학내 곳곳에 운동 여유 공간 확충(10.9%)
- 운동 후 샤워시설 확대(4.8%)
- 전문 유료체육시설 확대(4.5%)
- 다양한 체육 관련 강좌 개설(4.3%)
- 체육행사 지원강화(2.9%)
- 기타(2.8%)

신체 건강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세부영역별로는 무료이용 체육시설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인식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응답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로 시급한 영역인 전문 유료체육시설의 가격인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내 여러 곳에 운동 여유 공간의 설치를 통해 공간적 접근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들로는 2016년에 보조체육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육문화교육연구동(71-1동)을 완공하고 웰니스센터의 설치를 완료하여 수업, 운동부 활동,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활용중이며 대운동장과 보조운동장(야구장)의 경우도 각각 2020년과 2019년에 대대적인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한 것 등이 있다. 2017년에는 교내의 스포츠활동을 관장하는 스포츠 행정기구인 스포츠진흥원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교내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6) 마지막으로,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학생복지 서비스 중 개선이 시급한 영역에 대한 대학원생의 설문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아 시급성의 정도를 직접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그럼



에도 복지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제시된 만족도 수준에서 교통부문의 경우 전체 8개 항목 중 세 번째로 불만족도가 큰 항목이었다는 점은 이 부문의 시급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는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의 세부영역별 시급성 정도가 정리되어 있다.

####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

##### 세부영역:

- 교외운영 셔틀버스 배차간격 줄이기(23.3%)
- 셔틀버스 경로 다양화(18.8%)
- 교내 주차공간 확충(15.8%)
- 교내진입 시내버스 노선 다양화(14.9%)
- 교내운영 셔틀버스 배차간격 줄이기(9.0%)
-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6.3%)
- 자전거 도로 및 보관시설 확충(4.8%)
- 기타(7.2%)

세부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셔틀버스와 관련된 영역으로 학교와 외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을 더 줄이고 경로 또한 다양화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대학원생만의 특수성이라기 보다는 학부생을 함께 포함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정책연구에서도 셔틀버스의 증차, 배차간격 조정 및 방학 중 운행에 대한 제언들이 나왔었고 이에 대한 본부의 정책반응으로 셔틀버스 증차, 배차간격 단순화, 간격조정 적용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용편의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짧은 간격의, 그리고 보다 다양화된 노선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고 한편 본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정 서비스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선호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의 향후 확대 방향을 결정할 때 다수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교내 주차공간 확충이 세 번째의 시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원생의 경우 정기권을 이용해 차량을 가지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으나 주차공간은 순환도로 내 주차불가 등 주차하기에 제한된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순환도로 내 주차공간의 경우 이미 교직원들의 차량만으로도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제한된 주차공간을 풀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대학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차공간을 일정 정도는 늘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기존 정책보고서의 경우에도 주차문제에 대한 제언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이에 대한 본부의 대응으로 2021년 대학본부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건립공사가 착공됨으로써 2022년부터 417대의 주차면을 제공하게 되면 캠퍼스 내 주차수요 압력을 다소간은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수요가 높아 혼잡이 심한 지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주차면수가 증가하여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신규차량의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차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한 점에서 공급증대만의 방식으로는 궁극

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요억제의 방법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주차요금 인상의 경우 그러한 한가지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패널티 성격의 요금인상과 더불어 정기권을 가진 차량이용자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의 인센티브 정책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 IV.4. 외국인 및 장애인 부분 정책반영 현황

##### IV.4.1. 외국인 대학원생 관련 정책반영 현황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연구	2018
〈외국인 1-4〉 교무처/학생처	제언내용: 서울대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및 교과목 개발에 주력할 필요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번호 답변기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	2020
〈교육 4-1〉 기초교육원	제언 내용: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협의체나 기관 (예, 글쓰기센터) 신설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학내 각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대상 글쓰기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유관 기관 간 협의체는 신설되지 않았음. 기초교육원에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학내 협의체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연구 국제화 현황 및 지원 방안	2015
〈연구 3-4〉 학생처 국제협력본부	제언내용: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학내 적응을 높이는 것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상기 제안의 반영 여부와 반영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성바랍니다.	
	반영 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외국인 학생회(SISA)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 및 공간 제공 1. 동아리방 지원(NH농협두레문예관(67동) 202호): 컴퓨터, 프린터, 집기 등 2. 외국인 학생회(SISA) 지원 및 운영	

- SISA: SNU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의 약자, 2007.3. 신설  
 3. 외국인 학생 생활지원: 외국인 학생회 지원 업무는 학생처에서 2019년 국제협력본부로 이관됨

주요활동	내용	일정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비자 및 생활정보 안내, 캠퍼스투어 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2월 말 8월 말
국제 교환/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	학사정보, 비자 및 생활정보 안내, 스누버디 소개 등	2월 말 8월 말
국제학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학사일정 안내, 교내기관 소개 등을 통해 소속감 고취 및	8월 중
외국인 신입생 환영회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외국인 학생회(SISA) 소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3월 초 9월 초
외국인등록증 단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단체 등록 대행	3월 초 9월 초
외국인 학생 선후배 간담회	외국인 신입생 및 재학생 참석, 단과대별 선후배 모임 및 친교의 시간 운영	3월 중
외국인 대학원생 간담회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	11월 중
보험설명회	KGSP & SPF 장학생 대상 보험설명회	3월 중 9월 중
국제음식축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자국 음식 및 전통 문화 홍보 기회 제공, 대학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이해의 기회 마련을 통해 학내 인적 교류 기회 확대	5월 중 9월 중
외국인 유학생 문화행사	박물관 견학, 한국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	5월 중
외국인 1박 2일 한국문화 체험	1박 2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 2019년 경상북도 문경 일대 방문, 외국인 재학생, 인솔직원 및 의료지원 약 70여 명 참여	7월 중
외국인 유학생 기말고사 응원 이벤트	기말고사를 맞아 외국인 학생들을 응원하고 국제협력본부 및 외국인 학생회(SISA)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11월 중
현대자동차 Global Friendship Tour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및 교환/방문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사업장 견학 및 문화체험	10월 중 11월 중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본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중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 우수상 시상,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최	12월 중
외국인 학생 송년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격려하는 친교와 화합의 장 마련	12월 중

※ 표 발췌: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9 pp. 105~106

<연구 3-5> 학생처/ 총동창회 국제협력본부	제언내용: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동창회 구성 및 교류 지원이 제안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상기 제안의 반영 여부와 반영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한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성바랍니다.	
	반영 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외국인 학생은 졸업 후 대다수가 본국으로 귀국을 하므로 동창회 구성은 되지 않았으나 주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연구	2018
<외국인 1-1> 학생처	제언내용: 1) 서울대 각종 시설 특히 기숙사 등에서의 시설안내와 방송 등이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현실에서 영어 서비스 강화 필요, 2) 서울대 홈페이지 영문콘텐츠 강화와 한글과 동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3) 특히 단기 과제로 기존 SNU QUILL 영문 매체가 외국인 학생기자를 모집해 외국인 학생 기사를 일임하는 온라인 소식지를 발간하도록 지원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1) 각 기관별 외국인 지원 서비스 상이 2) 포털 게시판의 학생공지 제목은 반드시 국영문 병기 3) 학생지원과에서 지원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외국인 1-2> 학생처 (학생생활관)	제언내용: 현 봄 1학기 중심의 기숙사 배정에서 2학기인 가을학기 배정비율 확대 필요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관악학생생활관> 2019년 2학기부터 글로벌생활관 2학기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2학기에 신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비율을 높임 <연건학생생활관> 외국인 학생은 우선순위가 높아 기숙사 지원시 모두 수용 가능함 <함춘학생생활관> 현재 1학기, 2학기, 계절학기에 각각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 중임 <상록학생생활관> 학기별로 신입생들의 입주를 진행하고 있음	
<외국인 1-3> 학생처 (장학복지과-장학)	제언내용: 외국인에 대한 중장기적 장학금 확충방안 고민과 더불어 현 교내외 장학금과 합법적 수익활동에 대한 영문 안내 체계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보호자 연간소득 5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유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외국인 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u>177.6%인</u> ※ 등록금 대비 전체 장학금 수혜율 74.6% - 장학복지과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장학금 영문 안내	
<외국인 1-4> 교무처/학생처	제언내용: 서울대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한국어 교육 및 교과목 개발에 주력할 필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학생처: 해당사항 없음 국제협력본부에서 국제교환학생들을 위해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번호 답변기관	외국인 학생의 대학 내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캠퍼스 내 할랄 음식 제공 방안을 중심으로	2017
〈외국인 2-1〉 학생처 (생활협동조합)	제언내용: 서울대 학생식당의 기존 식단에 할랄 식단을 추가하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할랄 코너 영업 (학기 중 주 5일 점심 할랄 식단 제공)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2018.4.2.부터 감골식당에 할랄식 코너 신설 운영(단, 2021.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휴점 중)	
〈외국인 2-2〉 학생처 (생활협동조합)	제언내용: 생활협동조합이 직접 혹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할랄 음식 코너 운영하고 제공되는 할랄 음식의 식재료와 조리 과정에 대한 무슬림 학생들의 신뢰 확보	
	반영여부: 반영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할랄식 코너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할랄 식재를 사용하여 할랄 전용 조리 및 퇴식 공간에서 전용식기를 사용하여 제공 중으로 신뢰가 담보되고 있음	

#### <학생처>

#### 현재 할랄 식당 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한 내용 요약

##### <할랄 식당 운영 현황>

- 운영장소: 101동 감골식당
- 판매가격: 5,000원
- 제공방법: 할랄 식재를 사용하여 할랄식 조리만을 위한 전용조리장에서 전용식기를 사용하여 제공 중이며 퇴식을 위한 전용코너와 세척실을 운영하고 있음
- 운영개시일: 2018. 4. 2.
- 운영시간: 개강 중 점심 제공(11:30~13:30)
- 이용인원: 2018년 69명/일, 2019년 62명/일  
(2021.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휴점 중)

#### IV.4.2. 외국인 대학원생 포커스 그룹 인터뷰 (6월19일 14:00 - 16:00 PM)

각 단과대와 남녀를 대표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14명이 참석하는 심층면접을 줌을 사용하여 2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외국인 대학원생의 각종 학업과 생활에 관한 의견 청취하였음.

참여자 정보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제시함)

	이름	과정 (석사/ 박사/ 석박통합)	성 별	소속 단과대	국적	결혼 여부	Housing
1	Ana Catalina Velasco	석사	여	교육대학원	콜롬비아	O	교외 (off-campus)
2	Abhirup Saha	석박통합	남	약학대학	인도	X	기숙사

3	Alina Shymanska	박사	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우크라이나	O	교외
4	Le Quoc Viet	석박통합	남	약학대학	베트남	O	기숙사
5	My Hang	박사	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베트남	X	교외
6	Omayma Ben	석사	여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튀니지	X	기숙사
7	Mashhadi Abolghasem Fatemeh	석사	여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이란	X	교외
8	Cassandra	박사	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멕시코	X	기숙사
9	Khuoy Suosopor	석사	여	국제대학원 국제협력과	캄보디아	X	교외
10	Fatima Zohra SABRANE	박사	여	농업생명과학대학	모로코	X	교외
11	Zhenghui Shen	박사	남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중국	O	기숙사
12	Kevin Simeon	석사	남	국제대학원 국제협력과	미국	X	기숙사
13	헤수스	박사	남	공과대학	베네주엘라	O	교외
14	오예나	석박통합	여	약학대학	중국	X	교외

### 1. 입학 전후 정보 취득 방식 및 접근성 관련

[인터뷰 질문]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메일 등 서울대의 정보와 소통관련 불편 사항?

SNU 메일:

- 과 혹은 관심 분야와 무관한 일괄적인 메일 발송  
(예: 국제학과 학생이지만 음대 관련 메일도 받기도)
- 코로나 관련 알람이 지나치게 잦음
- 영어로 발송되는 메일이 적음

오리엔테이션:

- 한국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잦음.  
(졸업, 규정 등 모든 방면에서 한국어 위주 정보 제공)
- 학사규정 등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 모든 정보가 영어로 전달되길 바람.
- 몇몇 단과대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을 아예 진행하지 않음
- 오리엔테이션 후, 웹사이트에 관련 자료 업로드 희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만족했던 사항:

사회과학대의 경우, 선후배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용이함  
(예: 오리엔테이션때 선배들과의 연락처 교환을 실시함)

페이스북 그룹:

- 과 페이스북 그룹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게시물이 한국어

기타 사항:

- 외국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 적음
-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 및 일처리에 미숙한 행정실 직원

## 2. 교내 시설 관련

[인터뷰 질문] 교내 시설 사용의 불편 사항?

식당:

- 채식/할랄 식당이 사회과학대 외 다른 단과대 혹은 기숙사에도 있길 바람
- 서울대학교 앱에 식당 별 메뉴란에 육류 재료 포함 여부가 일관성 있게 제공되길 바람
- 식당 개장 시간이 연장되길 바람

기숙사:

- 기숙사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함
- 기숙사 신청 시기가 불규칙적. (매 학기 신청보다 1년 단위로 신청받길 바람)

실험실:

- 기계 조작법이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조작의 어려움이 있음.
- 공동기기원의 기기사용과 예약시, 직원이 한국어만 가능하여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어려움

기계 작동 도와주는 직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자주 발생 (기품원)

기타:

- 교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부족  
(예: 도서관 책 요청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

## 3. 학비 및 장학금 관련

[인터뷰 질문] 장학금 관련 개선 사항?

장학금 수혜 금액/기간 관련: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변동 반영되지 않음.

[KGSP / 공대 박사과정]

- 보험/기숙사 비용 등의 변동 반영되지 않음

(예: National Health insurance 값도 지불해야 하는 점, 기숙사비가 증가했다는 점 등 반영되지 않음)

= KGSP의 경우, 석사 과정에는 적당하나, 박사과정생의 경우, 수혜 기간이 3년임. 학위 취득

기간을 고려하여 박사과정생의 장학금 수혜 기간을 늘릴 필요.

- 장학금 규모에 따른 학생 관리의 차이

(예: KGSP 석사과정일 당시에는 OIA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규모가 작은 대상 장학금으로 박사과정 재학 중인 현재에는 학교측 도움받지 못하고 있음)

장학금 수혜 대상:

-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부족. [사회과학대 박사과정]

- 논문 집필 기간동안 minimum allowance를 제공받길 희망.

-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금 부족.

(예: 학생은 멕시코 출신; 장학금 기회 적음)

- 국적 고려하지 않는 장학금 희망.

조교 및 근로 장학 기회:

- 외국인 학생에게 조교로 일할 기회 적음.

장학생 모집 공고 관련:

- 모집 기간이 너무 짧음. 모집 공고 게시 시점이 마감일에 임박함

(예: 3/11이 모집 마감일이었으나 3/2에 모집 공고 게시됨)

#### 4. 학업 관련

[인터뷰 질문] 수업 관련 어려움?

수업 언어 관련:

- 영어 진행 수업이 너무 부족함.

- KGSP경우: 1년 한국어 학습 후 한국어로 대학원 전공 수준 수업 수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영어 진행 수업을 늘리거나) KGSP 모집시 한국어 자격요건을 높이길 바람.

수업의 질 관련:

수업의 질에는 굉장히 만족. (언어가 불편할 뿐)

수업의 종류 관련: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기본 교과목 마련 희망.

수업 수강 규정 관련:

- 타과 수강 가능 수업 개수 늘리길 희망.

수업 수강 신청 관련:

-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도움 제공되길 희망.



[추가 질문] 한국어 언어 수업 희망하는지?

- 한국어 언어 수업 제공보다는 영어 진행 전공 수업을 늘리길 희망.
- 언어 수업 수강할 시간 부족
- 일상회화 한국어보다는 전공에 맞는 학술적인 한국어 학습 희망.
- 전공 수업에서 자주 쓰이는 한국어 용어를 정리한 문서 배포 희망.

### 5. 졸업 후 진로

취업 관련 정보 부족 (한국인, 외국인 공통)

외국인의 한국 취업 및 준비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장기간 거주 의향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 부족.

## IV.5. 장애인 대학원생 관련 정책반영 현황

### 1.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 이동환경 실태조사 2019 결과보고서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 이동환경 실태조사 2019 결과보고서 (1~3권): 장애인 화장실 (관악캠퍼스)	2019
<장애인 1-1>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언내용: 인문대학 대다수의 화장실이 미흡 판정을 받아 인문대학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전반적인 개선 필요	인문대학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전반적인 개선 필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신규 설치 : 7동 1·2층 남·여 장애인 화장실 • 부분 보수 : 1동 도어 시트지 부착, 4동 도어 시트지 부착	
<장애인 1-2>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언내용: 사범대학: 실제로 조사한 결과 총 10개의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이 실격 및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	사범대학: 실제로 조사한 결과 총 10개의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이 실격 및 미흡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신규 설치: 9동 1·2층 남·여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1-3>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언내용: 법과대학: 17동(법학관2)의 경우에는 ‘남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만 있으며 84동(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는 화장실 문이 좁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법과대학: 17동(법학관2)의 경우에는 ‘남자’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만 있으며 84동(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에는 화장실 문이 좁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li> <li>• 17동(법학관2) 장애인 화장실 공용으로 설치됨</li> </ul>
<p>&lt;장애인 1-4&gt;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p>	<p>음악대학/미술대학: 총 9개의 건물 중에서 추천한 화장실 이외에는 모두 미흡 또는 실격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함</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li> <li>• 49동 장애인 화장실 설치( '20년)</li> <li>• 52, 52-1동 전면 리모델링 진행 중(장애인 화장실 반영 예정)</li> <li>• 53, 55동 전면 리모델링 계획 중(장애인 화장실 반영 예정)</li> </ul>
<p>&lt;장애인 1-5&gt;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p>	<p>약학대학: 143동을 제외하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서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시급함</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li> <li>• 20동 재건축 진행 중(장애인 화장실 반영 예정)</li> </ul>
<p>&lt;장애인 1-6&gt;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p>	<p>중앙도서관: 24개라는 많은 화장실 개수에 비해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개선 필요</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li> </ul>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위에서 지적된 단과대 시설외의 본부행정관, 학생회관, 문화관 등 외부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주요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나 개선 여부

- 설치완료 : 63동(학생회관) 1층 가족 및 장애인 화장실( '18년), 109동(자하연식당) 1층 남·여 장애인 화장실( '19년), 113동(동원생활관) 1·2층 남·여 장애인 화장실( '19년, '20년)
- 설치예정 : 301동(신공학관1) 지하 1층 학생식당 옆 장애인 화장실( '21년)

2.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이동환경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학내 장애인이동환경 조사사업 결과보고서: 학생출입이 빈번한 주요 시설물/건축물을 중심으로	2016
<p>&lt;장애인 2-1&gt;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p>	<p>제언내용: 2016년 현재 인문대, 사회대 강의동과 중앙도서관 및 관정도서관, 학생회관, 중앙전산원 등의 학내 시설물이 지닌 미흡한 지점(주출입구, 일반출입문, 복도,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강의실) 이 여럿 발견됨</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을 요하는 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제언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장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시급하게 개선을 요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조사 및 요청접수 내용을 검토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반영</li> <li>-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장애인 관련 시설 반영</li> </ul> </li> <li>• 2017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보행환경 개선 (사범대 진입로 주변 외 9개소), 출입문(여단이문→자동문) 교체 (농생대 200동 외 2개소),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63동 학생회관 1개소)</li> <li>•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25동 외 2개소),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500동 1개소), 승강기 내부 거울 설치 (25동 외 8개소), 계단 논슬립 교체 설치 (음악대·사범대 8개동), 점자블록 설치 (18동 외 14개동), 축지도 설치 (인문대·사범대 14개소), 학생회관(63동) 가족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경사로 개선공사 (17동 외 3개소), 자동문 설치 (16동),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 설치 (70동 외 5개소), 출입구 단차 개선 (43-1동 외 2개소), 점자블록 개선 (기숙사삼거리)</li> <li>• 201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장애인화장실 부분 개선 (71-1동 외 5개동), 장애인화장실 신규 설치 (109동 및 113동), 자동문 설치 (2동 및 5동), 장애학생 전용좌석 설치 (10-1동 103호), 장애인주차장 주변 단차 제거 (13동), 15동 204호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16동 110호 장애학생 전용좌석 설치, 26동 1층 자동문 설치, 63동 1층 자동문 수리 및 경사면 미끄럼 방지 조치</li> <li>• 2020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장애인 화장실 신규 설치(113동 2층, 137동 1층, 49동 1층), 자동문 설치(26동, 62동)</li> </ul>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2016년 이후 서울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관련 개선 실적이나 관련 규칙이나 제도 개정이 된 사항 요약

: 1) 주요 시설 개선 실적

2) 시설 신설, 증설 또는 보수 시 장애인 관련 규정 신설 사항

- 2017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보행환경 개선 (사범대 진입로 주변 외 9개소), 출입문(여단이문→자동문) 교체 (농생대 200동 외 2개소),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63동 학생회관 1개소)
-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25동 외 2개소),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500동 1개소), 승강기 내부 거울 설치 (25동 외 8개소), 계단 논슬립 교체 설치 (음악대·사범대 8개동), 점자블록 설치 (18동 외 14개동), 촉지도 설치 (인문대·사범대 14개소), 학생회관(63동) 가족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경사로 개선공사 (17동 외 3개소), 자동문 설치 (16동),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 설치 (70동 외 5개소), 출입구 단차 개선 (43-1동 외 2개소), 점자블록 개선 (기숙사삼거리)
- 201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장애인화장실 부분 개선 (71-1동 외 5개동), 장애인화장실 신규 설치 (109동 및 113동), 자동문 설치 (2동 및 5동), 장애학생 전용좌석 설치 (10-1동 103호), 장애인주차장 주변 단차 제거 (13동), 15동 204호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16동 110호 장애학생 전용좌석 설치, 26동 1층 자동문 설치, 63동 1층 자동문 수리 및 경사면 미끄럼 방지 조치
- 2020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 장애인 화장실 신규 설치(113동 2층, 137동 1층, 49동 1층), 자동문 설치(26동, 62동)

#### IV.6. 여성 관련 정책반영 현황

##### 1.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

번호 답변기관	여성글로벌리더십 강화방안연구	2013
〈여성 1-1〉 교무처	제언내용: 여성 학문후학세대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사업’ 계속 지원 및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사업’ (2019년~)을 신규로 추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여성 1-2〉 교무처/기획처	제언내용: 여학생의 커리어 추적과제 연구과제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여학생들의 졸업 후 커리어 추적 관련 단독 연구과제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주제에 대한 기획연구과제 신청·발주 ‘사례 없음’ 추정 -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여성 1-3〉 교무처	제언내용: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리더십 과목 개발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글로벌 리더십 특강(M1321.001000, 사회대 정치외교학부) 등 리더십 관련 교과목 24개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학사과정 17개, 대학원과정 7개 교과목)	

2. 서울대학교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번호 답변요청기관	서울대학교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 제시	2014	
<p>&lt;여성 2-1&gt; 교무처</p>	제언내용: 졸업생 경력추적 연구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p>&lt;여성 2-2&gt; 교무처/학생처/기획처</p>	제언내용: 부모 구성원들의 학문/복지 연구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학생처> - <인권 3-3> 일부 참고 <기획처> - 부모 구성원들의 학문/복지 연구 관련 단독 연구과제 ‘해당사항 없음’ - (2014년도 기획연구과제) <미래실천위원회 보고서> 중 서울대학교 행정 및 제도 개선방안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 (2016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Agenda 2020에 대한 연구> 중 분야별 세부연구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 (2016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다양성 환경조사>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연구>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9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복지위원회 구성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부분적으로 포함됨 - (2019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 실행모형과 추진체계 구상>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주거지원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무처> -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학생처> -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제언내용: 대학원생의 학문발전 연구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제언내용: 외국인 구성원들의 학문/복지 연구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p>&lt;여성 2-4&gt; 교무처/학생처</p>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 3. 여성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연구

번호 답변기관		여성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연구	2018
<p>&lt;여성 3-1&gt; 학생처 (어린이보육지원센터)</p>	제언내용: 서울대 보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원의 확대 증설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p>정원 확대와 증설의 필요성 없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 원하는 원아 감소로 유아반 3개반 감소</li> <li>- 영아 및 유아반 반별 정원 미충족 (2021. 5. 7. 기준)</li> <li>백학 13명 결원(131명 현원/144명 현재 정원)</li> <li>느티 30명 결원(165명 현원/195명 정원)</li> </ul>		
<p>&lt;여성 3-2&gt; 교무처/경력개발센터</p>	교무처	제언내용: 여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여성 대학원생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p>학생처 (장학복지과-장학)</p>	학생처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p>&lt;여성 3-3&gt; 학생처 (장학복지과)</p>		제언내용: 수유시설 마련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20.10.1.기준현재 교내 19개(관악: 15, 연건:3, 평창:1)의 모유수유실을 운영	
<p>&lt;여성 3-4&gt; 학생처 (학생생활관)</p>	제언내용: 가족생활동의 확대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O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관악학생생활관>		
	추가수요 및 계획 없음		
	<연건학생생활관>		
현재 기준 가족생활동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함춘학생생활관>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확정으로 현재로서는 계획 없음			
<상록학생생활관>			
현재 가족생활관(가구완비 18개실, 가구미비 12개실)을 구비하여 기혼인 대학원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음			

<여성 3-5> 교무처/경 력개발센터	교무 처	제언내용: 석박사 이후의 취업정보 제공과 지원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부분반영 사유: ※ 담당부서: 경력개발센터
	경력 개발 센터	제언내용: 석박사 이후의 취업정보 제공과 지원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부분반영 사유: 석박사 이후의 취업정보는 학부 및 대학원생 구분없이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게시하고 있음
<여성 3-6> 교무처	제언내용: 남성중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여성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교무과 소관 업무 아님	

**<학생처> (학생생활관)**

**가족생활동의 현황**

**<관악학생생활관>**

- 가구수: 199세대
- 대학원생 입주현황: 199가구(100%)
- 자격조건: 기혼 대학원생
- 비용: 월 26만원, 보증금 400만원
- 확대 계획: 해당사항 없음

**<연건학생생활관>**

- 가구수: (대학원생활관 가족생활동) 17가구  
 (국제관 가족실) 4가구
- 대학원생 입주현황: (대학원생활관 가족생활동) 17명  
 (국제관 가족실) 2명
- 자격조건: 연건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성적 2.7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비용: (대학원생활관 가족생활동) 월 46만원, 보증금 90만원  
 (국제관 가족실) 월 90만원, 보증금 180만원
- 확대 계획: 해당사항 없음

**<함춘학생생활관>**

- 가족생활관 없음
-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확정으로 현재로서는 가족생활관 증설 계획 없음



<상록학생생활관>

- 가구수: 30개실(가구완비 18개실, 가구미비 12개실)
- 대학원생 입주현황: 가구완비 14개실, 가구미비 10개실
- 자격조건: 평창캠퍼스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 중 기혼자, 박사 후 연수생,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박사과정생 등
- 비용: (가구완비실) 월 19.7만원, 보증금 50만원  
(가구미비실) 월 16.2만원, 보증금 35만원
- 확대 계획: 해당사항 없음

2)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주거 복지 현황

<관악학생생활관>

- 2017~2019년: 가족생활관 200세대 내부 리모델링 실시
- 2018~2019년: BK생활관 391세대 호실 내부 가전제품 및 가구 등 교체
- 2021년: BK생활관 391세대 호실 내부 리모델링 실시 중

<연건학생생활관>

- 현재 기준 기혼 대학원생 가족생활동 지원시 대부분 수용 가능함

<함춘학생생활관>

- 대학원생도 입주가 가능하나 가족생활관은 따로 없으며,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확정으로 가족생활관 증설 계획 없음

<상록학생생활관>

- 대학원생 중 기혼자를 위한 가족생활관을 운영 중임

<학생처>(어린이보육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정원 (정원 변화) -대학원생 부모의 비율

소속 어린이집	연령	구분	연도 (기준날짜)				
			2017년 (17.3.14)	2018년 (18.3.13)	2019년 (19.3.11)	2020년 (20.4.9)	2021년 (21.3.15)
백학, 느티나무어린이 집(1-5세)	보육정원	398	404	394	394	339	
	보육현원	395	392	386	384	298	
	학급수	27	27	26	26	23	
	학생 부모 비율	45.1%	43.9%	42.2%	38.3%	40.6%	

- 운영세척에 따른 학생 대 교직원 입소비율 55:45임. 매년 학생 부모 비율이 55%가 되지 않는 것은 연령증가에 따라 학생 부모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부모 비율은 평균 45.1%에서 38.3%까지 감소하다가 21년에 40.6%임
- 표에는 없지만 1세만 따로 보면 2019년까지 55%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는 41.8%로 떨어짐. 3-5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40%정도 됨. 이는 1, 2세에 대거 신입이 들어오며 3-5세 유아는 대부분 재원생이 올라감. 대기자 중 입소비율에 맞추어 학생부모가 우선 입소하지만 더 이상 학생부모가 없을 경우 교직원 부모 자녀가 입소함. 학생부모가 교직원 부모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음.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대기자 수가 감소해 왔고 2020년 9월에는 시흥캠퍼스어린이집이 개원하며 재원아 및 대기자가 이동
- 2021년에는 유아반 3개 반을 줄이고도 정원 미달임. 입소하고자 하는 모든 원아가 들어 온 비율이 현재 학생 비율 40.6%임

## 2) 시설 증설 또는 보수 (주요 시설 증설 연도)

- 현 백학어린이집 개원 (1998.3.)
- 느티나무어린이집 개원 (2011.9.)
- 영아 및 유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2019.3.)

## 3) 어린이집 입소 규정 관련 사항

### ① 어린이집 입소 자격

- 입소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원칙으로 함

교직원	교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기관장 발령 교원의 자녀
	직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직원의 자녀 - 산학협력단장발령 및 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발령 직원의 자녀 - 학장 및 기관장 발령 직원의 자녀
	연구원	- 서울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정의된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수연구원/연구원/객원연구원의 자녀
학생		-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생으로 재학 중 명서 및 연구생 등록증 제출 가능한 자의 자녀 * 휴학(육아휴학 외)한 자와 연구생 미등록자는 제외

### ② 대기접수

- 대기 접수는 이메일(snuchildcenter@snu.ac.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위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1. 대기신청서 2. 재직 혹은 재학 증명서 3. 가족관계 증명서

### ③ 입소규정

1. 어린이집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자격 심사를 위해 아래의 추가 다음의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 신청 시 입소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입소 당시 입소 자격

이 없다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 제출서류 : 1. 입소신청서 2. 서울대학교 재직 혹은 재학 증명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입소 우선순위 자격 증빙 서류 5. 어린이집 운영 및 재원아동 관리 서류

#### IV.7. 인권 관련 정책반영 현황

##### 1.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번호 답변기관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2019
<인권 1-1>	학생처	제언내용: 인권규범의 제정 및 선포 필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인권센터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인권센터에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 수립(2020.3) - 수립된 제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교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반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을 마련하여 제출함(2020.3)
<인권 1-2> 인권센터	제언내용: 학생심의위원이 위촉되어야 함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인권센터 규정 개정을 통해 제언내용을 반영하고자 함(2021) 미반영 사유: 규정 전면 개정 작업 중이어서 시일이 소요됨	

##### 2.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번호 답변요청기관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2020
<인권 2-1> 학생처/인권센터	제언내용: 후속조치로 인권헌장(안)의 학내 규범화 절차 진행 필요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2020.10.)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향후 충분한 교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반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인권 2-2> 학생처/인권센터	제언내용: 인권헌장의 해석지침과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과 개발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 제정 반영 후 검토 예정	
<인권 2-3> 학생처/인권센터	제언내용: 인권헌장 이행의 책임주체 구체화 및 구체적 운영을 위한 시책지침 개발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안) 제정 반영 후 검토 예정	

### 3.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이 마련되었으며,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할 별도의 사항은 없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 검토한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정책으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였다.

번호 답변기관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p>&lt;인권 3-1&gt; 교무처</p>	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생의 권리 보장 방안: 학생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계약 추진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방안이 아니며, 교무과 소관업무가 아님.	
<p>&lt;인권 3-2&gt; 교무처</p>	제언내용: 대학 공동체의 다양성 및 민주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 연결-함양-통합을 위한 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실시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방안이 아니며, 교무과 소관업무가 아님.	
<p>&lt;인권 3-3&gt; 학생처/인권센터</p>	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학 내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대학원생 인권과 관련해 구체적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해 대학원생 자치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2020.11.~2021.2.), 부모학생의 학업-돌봄의 병행, 외국인학생의 정보접근권, 실험실 안전, 대학원생의 업무시간 및 휴가 등 세부사항에서의 정책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학내 정책 토론회 중(2021~2022) - 정례적 실태조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 이후 추진 예정임	
<p>&lt;인권 3-4&gt; 학생처/인권센터</p>	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학 내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 성평등/인권기구의 정책제안 및 권고기능 강화	
	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	
	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현재 인권기구의 정책제안 및 권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센터에 2020년 12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설치, 구성원의 고충을 듣고, 조정하고, 해소하고, 때때로 실태조사에 나서 관계부서에는 개선을 건의하도록 함	

<p>&lt;인권 3-5&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학 내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 인권기구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p>
	<p>반영여부: 반영 ( ) 부분반영 ( O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구성원 갈등해결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옴부즈퍼슨 신설, 옴부즈퍼슨 3명 및 법인직원 1명 증원, 2021년 예산 일부(옴부즈퍼슨 활동비) 확보</p>
<p>&lt;인권 3-6&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학 내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 대학 내 인권 정책 확산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입 및 지원의 필요,</p>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인권 정책 확산을 위해 2020년 12월 인권센터에 옴부즈퍼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확대지원하고 있음 - 본부 차원에서도 제도 시행(옴부즈퍼슨, 2020. 12월), 인권관련 공청회 개최 지원(2020. 6월) 및 인권관련 행사(SNU Talk concert, 2021. 5월) 진행하였음</p>
<p>&lt;인권 3-7&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학 내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 대학 내 인권 정책 확산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입 및 지원의 필요,</p>
	<p>반영여부: 반영 (O)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인권 정책 확산을 위해 2020년 12월 인권센터에 옴부즈퍼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예산과 인력을 확대지원하고 있음 - 본부 차원에서도 제도 시행(옴부즈퍼슨, 2020. 12월), 인권관련 공청회 개최 지원(2020. 6월) 및 인권관련 행사(SNU Talk concert, 2021. 5월) 진행 하였음</p>
<p>&lt;인권 3-8&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대학 내 사안처리 절차의 개선 방향: 상담과 조사/심의의 담당자 분리를 통한 사안처리과정에서의 당사자 조력 강화</p>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상담소 전문위원들 중 1인은 상담을 주로 전담하고, 3인은 조사/심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사자 조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p>
<p>&lt;인권 3-9&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대학 내 사안처리 절차의 개선 방향: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및 피해자 관점의 반영</p>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 &lt;인권센터&gt; - 인권센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성비,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 등 다양성 및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lt;학생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성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징계처분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 확대를 막기 위하여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li> </ul>
<p>&lt;인권 3-10&gt; 학생처/인권센터</p>	<p>제언내용: 대학 내 사안처리 절차의 개선 방향: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의 체계화</p> <p>반영여부: 반영 ( O )    부분반영 (   )    미반영 (   )</p> <p>반영 내용 (부분 반영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센터에서는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관리자가 취하여야 할 재발 방지 조치, 당사자 및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조치 등을 사안별로 권고하고 있음</li> </ul>

## V. 요약 및 제언

### V.1. 교육 부분 요약 및 제언

“국가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박사교육 및 박사후연수과정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BK21 4단계 사업의 수행과 더불어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미반영된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 과제에서 제언된 대학원생 대상의 핵심 공통 과목의 개설 운영 등은 서울대학교 4단계 BK21 사업의 주요 계획 중으로 하나로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 재정 지원의 확대 또한 BK4단계 사업에서 대학원생 인건비의 증가로 BK4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학과에서는 재정 지원이 증가된 효과가 있다. 그러나, BK4단계를 수행하지 않는 학과, 그리고 학과 내에서도 BK4단계 미참여 교수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단계 BK21 사업의 시행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된 사항들 중 외국인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유치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2년 시행 예정이지만, **국내 박사후 연구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다. ‘SNU 초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안)’의 도입 또한 재정 문제로 미반영인 상황이다.

선진국의 연구는 박사후 연구원이 주축으로 이끌어가는 문화를 형성하므로, **서울대 박사후 연구원의 임용, 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은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계별 역량 모형화 방안은 경력개발연구소에서 대학원생 대상의 진로 탐색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력개발연구소는 한정된 자원으로 학부생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대학원생들의 경력 개발 분야에도 본부의 경력개발연구소가 연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정·다전공 확대 및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연구” 제언은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육 체계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본부 차원에서 각각의 연계, 연합, 협동, 융합 전공에 대한 교과목 개설 개편을 독려하는 것은 단기간에 제언이 반영되어 실효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교무처의 답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대학원 협동과정은 “인공지능 전공”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과대학의 주관 하에 컴퓨터 공학부, 생명과학부 등 9개 학과가 협동 과정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학과들은 자연대학과 공과대학 주도의 협동 과정으로 **향후 인문 사회와 이공계 학과들 간에 초융합적 협동과정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 부분에서 전공 유연성의 확대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부에서 전공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행정 조직,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 사업은 교육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융합, 협동과정에 별도의 교육 시간을 투입하는 교수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혜택을 부가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의 개선방안” 연구는 핵심적인 부분이 잘 반영된 사안도 있으나 제언의 정책 환류 시스템의 재검토에 대하여서도 생각하게 한다.

서울대학은 연구 중심대학으로 학부생 외에도 대학원생들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원생들은 향후 전문 분야에서 리더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BK4단계 사업이 미래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BK4단계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에서 리더십에 대한 공통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후속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제언되었다. 이러한 제언은 기초교육원에서 4단계 BK21사업의 수행과 함께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기초역량)으로 ‘진로설계탐색/리더십’ 교과목(1학점)을 2023년에 정규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어 본 정책 연구의 핵심 성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정책 연구에서 제언되었던 학부 2-4학년에서 국내외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답변은 정책 연구의 환류성에 대하여 주목할 부분이다. 본 제안의 실행 부서인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는 해당 정책 연구의 제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요한 제언이 실행 부서로 전달이 되는 것이 정책 연구 종료후 1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 및 외국인 교수 교육지원 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국제협력본부 및 기초교육원에서 상당 부분 잘 반영이 되었다.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협의체나 기관(예, 글쓰기센터) 신설에 대한 제언은 기초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외국인 학생 한국어 학습 지원 확대에 대한 제언은 국제협력본부에서 한국어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예산이 배정되었고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을 들을 수 있는 수업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외국인 교수 대상의 교수법 개선에 대한 제언이 CTL에서 반영되어 시행 예정이며, 외국인 교수들간의 집담회가 기 지원중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글쓰기 외에도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 학생이 미국 등에서 유학하는 경우, 영어를 습득하여 학위논문을 구도 발표하나,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박사 학위 졸업 시에 한국어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대한 가점제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교원들은 언어 지원 외에도 생활 지원도 필요하나, 본 보고서는 언어에 관련한 교육 지원 및 집담회 부분에 집중하여 제언 되어 있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 교원들이 교수 아파트 등에서 실시간 겪고 있는 언어소통의 애로사항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생활 지원 핫라인의 개설등도 향후 외국인 교수 지원 연구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실태 분석”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재정적인 부분과 정보 접근성 강화에 대한 제언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력개발센터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많은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의 졸업 이후 진로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의 고안에 대한 제언은 경력개발센터에서 매해 졸업생 취업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으며, 대학원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분석 현황 자료가 구축되었다. 대학원 석·박사 학위취득자의 취업 진로 등 진로 개발 관련 지원 제도는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으



로 학생경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반영예정이다. 대학원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의 지원도 필요하나 본부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제언된 대학원생들의 재정적인 부분, 입시경쟁률 공개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내에서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다만, 정책 보고서의 제안들이 추후 본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대학 사회를 구성하는 교수진 등 학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2. 연구 부분 요약 및 제언

최근 10년 내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부문의 세 과제, ‘서울대학교 연구 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4년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최만수 교수), ‘캠퍼스 환경안전 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 (2015년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구명철 교수),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 (2016년 평의원회 기획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예성준 교수)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 중 대학원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안을 추리고 이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았다.

대학원생 삶의 질과 관련된 제안 사항 중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20개에 대해 담당 기관의 답변을 받은 결과, 반영 10개(50%), 부분 반영 8개(40%), 미반영 2개(10%)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대학은 정책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우수 본교 졸업생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학사-석사 연계과정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개도국교원 지원 장학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학제간 융합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위논문 공동논문지도교수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을 오픈하여 연구활동 관련 제반 안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환경안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의 안전관리 지침을 2021년 제정하여 안전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넓혔다. 대학원생 장학제도와 해외 학술활동은 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에 41개의 사업단과 4개 사업팀이 선정됨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생의 주거 시설 역시 안정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글로벌학생생활관 개관으로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학생 수용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대학원생 인권보호지침(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음부즈퍼슨 제도를 신설하여 학내 구성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를 학생처에서 국제협력 본부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 정보를 국영문과 함께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업료 지원, 할랄 음식 코너, 기도공간 제공 등 외국인 학생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제수준의 연구

/학문 윤리 준수를 위한 교육을 대학원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분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제안 사항의 일부는 현재 대학 차원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 정원의 유연성있는 통합 관리, 박사학위논문 심사 제도의 개선, 서울대학교 인권 헌장 제정, 대학원생 해외 연구 기회 확대, 대학원생 진로 개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이 중 학내 기관 간 또는 구성원 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 미반영 제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지속적 교류를 위한 동창회 구성 및 교류 지원인데, 이는 국제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망 구축, 국제적 평판도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 부문 기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안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장학금과 주거 시설 등의 복지 지원, 연구 활동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원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학금과 해외 학술활동 지원은 BK21 4단계 사업 참여로 인해 더욱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만족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 각종 지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 2019년에 수행된 대학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같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대에 부합하고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 체계와 방향,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K21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한 대학원생 지원이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편 BK21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 및 교수의 지도 하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과 학술활동 지원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 본부 및 단과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들이 학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보 전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안전은 비단 이공계 연구실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문사회계 대학원생,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캠퍼스 안전 지침(매뉴얼)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안전을 위한 인적, 재정적, 공간적 지원에 대한 본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대학원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생, 연구원 등 학내 구성원의 상호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한국어 교육 수업료 지원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종의 장학금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한국어 능력 향상 효과가 적은 편이다.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과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 수업료 지원 외에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른 대학원과정 정원의 유연화 관리 방안을 모색하되, 소외학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사학위 논문 심사 관련하여, 비대면 심사 및 외국인 학위자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학위논문심사 제도 및 서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국인 졸업생을 위해 동창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V.3.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부분 요약 및 제언

캠퍼스 환경과 건강 및 복지 부분의 경우 2011년, 2012년, 2013년, 2018년, 2020년에 평의원회 또는 대학본부에서 발간된 5종의 관련 정책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학원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점에서 정책제언을 추출하였고 각 항목별로 본부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반영 여부는 각 보고서별로 정리되었으며 부문 혹은 유형별로 세부정책의 반영 여부(반영, 부분반영, 미반영)를 기관별 응답내역과 함께 일반화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정책보고서로부터 정책제언에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제언들을 중요 정책으로 판단하여 이들 세 가지(건강환경의 개선: 보건진료소, 정신건강, 휴식/여가/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교통환경의 개선: 주차, 지선버스, 셔틀버스, 보행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기관별 응답을 회수하고 이를 상세화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제언과 반영이 실제로 대학원생들의 필요와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대학생활문화원의 2018년 대학원생 설문조사 중 학생복지 서비스 부문의 결과들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숙사의 규모 확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정되었다. 기숙사의 규모 확대를 통해 기숙사 내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부생과 비교하여 학교로의 통학빈도가 더 잦고 학내에 있는 시간이 더 긴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캠퍼스의 환경, 건강, 복지 부분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5종의 보고서들에서 명시적으로 기숙사의 규모 확대에 대해 제언을 도출한 보고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 중 한 보고서에서 제안된 기숙사 학부 생활관을 재건축의 경우 논의는 진행되는 상황이나 실제로 최근에 재건축이 실행된 건은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신축의 경우에 글로벌학생생활관이 완공되어 일정부분 대학원생의 주거수요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대학원생을 위한 학내 주거공간의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원생들이 두 번째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를 들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치료와 상담서비스의 확대였는데 보건진료소와 대학생활문화원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역할로 치료와 상담서비스는 두 기관의 업무분담 하에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내 상담 프로그램 안내 홍보 강화로 학내 이메일 홍보를 기본으로 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수단과 매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원생들이 세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식당 및 각종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였다. 세부영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학생식당의 식사 질 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학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문제와 함께 양질의 식사는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다. 다만 식사의 질이 더 맛있는 식사를 의미하는지 혹은 건강을 좀 더 고려한 식단을 의미하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는 식단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원생들이 네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학생을 위한 공간 확충이었다. 학생을 위한 공간 중에서 대학원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개인 휴식공간이었다. 대학원생들이 학내 연구실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와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하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경우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그리고 학생회관의 경우에도 남 여학생 및 장애학생 휴게실 등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주 이용자 층은 대학원생보다는 학부생인 경우가 많아 대학원생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공간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 즉 실험 등과 같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장시간의 업무가 진행될 경우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휴게공간의 상시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원생들이 다섯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신체건강지원 서비스였다. 세부영역별로는 무료이용 체육시설의 확대가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인식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응답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로 시급한 영역인 전문 유료체육시설의 가격인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에서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내 여러 곳에 운동 여유 공간의 설치를 통해 공간적 접근성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몇몇 주요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의 환경 개선공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이 부문은 다른 부문의 개선에 비해 상당히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부문이기도 하다. 향후의 정책방향으로는 대학원생 이용자의 시공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규모의 생활공간 밀착형 체육 운동 시설을 학내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여섯째, 대학원생의 시급함 정도 응답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부문은 교통환경을 위한 서비스였다. 세부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것은 외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을 더 줄이고 경로 또한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대학원생만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학부생을 함께 포함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정책연구에서도 셔틀버스의 증차, 배차간격 조정 및 방학 중 운행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었고 이에 대한 본부의 정책반영으로 셔틀버스 증차, 배차간격 단순화 및 간격조정 적용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용편의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짧은 간격의, 그리고 보다 다양한 노선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고, 한편 본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정 서비스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선호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의 확대방향을 결정할 때 다수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 V.4. 외국인 대학원생 부분 요약 및 제언

학업 및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소통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각종 정보의 영문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장학관련, 학교시설이용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국학생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본부차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단과대학 혹은 과별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서부터 한국어 위주의 정보 전달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전달에 본부와 단과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과(부)나 단과대학 차원의 학생도우미 제도 운영과 영어 능력이 가능한 최소 행정인원의 배치와 역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과 관련 하여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할랄식당이나 채식 식단의 운영은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채식식당의 확대 운영 등의 요구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의 경우도 국제생활관의 신축으로 외국인 거주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 단 신청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영어 안내 등이 필요하다. 공대와 자연대의 경우 기품원이나 공동기원의 경우 행정운영요원의 영어 의사소통 불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분야에 외국인 대학원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영어 소통 가능 운영요원이나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내 장학금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 비율은 높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서 수혜금액이 보험이나 기숙사 비용의 인상 등 인플레가 반영되지 않는 점, KGSP 인문사회 장학생의 경우 3년 기본 수혜기간이후 추가 논문 집필 기간 등에 최소한의 추가 보조금 지급 요망, 이와 연계되어 여타 학내 장학금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외국인 학생에 대한 조교 임용 기회의 확대나 외국인 학생 전용 조교 제도의 신설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학업 관련하여서는 수업의 수준이나 질에는 만족하나 영어 강의 수업의 확충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단과대학이나 학과 별로 타 전공이나 타 단과대학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허용 수를 제도적으로 확장하여 단과대학별 영어 강의 개설 수업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릴 것이 제안되었다. 한국어 언어 수업 기회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공계의 경우 전공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전문 용어를 정리한 자료집 등의 제작도 건의되었다.

졸업 후 사후관리 관련하여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이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서도 비자 연장과 갱신관련 정보, 외국인의 한국 내 취업 준비나 기회에 관한 정보의 부족이 제기되었다.

#### V.5. 장애인 대학원생 관련 요약 및 제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본부 및 기타 이용시설 접근성 등의 시설 측면에 대한 개선 노력은 꾸준히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성과는 인정된다. 캠퍼스 내의 장애인 학생 지원이 어느 정도 성숙

함에 따라, 이제 장애인 학생 지원 장기계획의 초점은 지원역량 확충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는 단순히 특정한 범주의 사회적 집단에 대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이 사회의 정당한 소수자로서 장애인 학생,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애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 장애인 학생의 권리증진을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미션과 정책 목표에 비추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울대 장기 비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하나의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서울대 구성원들의 시각을 기본인권차원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방향과 소수이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나 협의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V.6. 여성 부분 요약 및 제언

여성 관련 연구는 여성연구소와 여교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여성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으며, 각각의 연구보고서에 일부 여성 대학원생 관련 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2014년, 2018년도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도 연구보고서는 파악이 늦어져 포함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여성 대학원생 관련하여서는 특히 여성학문후속세대로서 갖는 어려움을 2018년 「여성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었다.

여성 대학원생으로서 갖는 어려움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1) 교육 및 경력 관리 관련, 2) 재정적인 지원, 3) 복지 관련, 4) 인식 관련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육 및 경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커리어추적 연구, 대학원생의 학문발전 연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제안되었으며,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엄마장학금이나 가족수당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부모학생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었으며, 보육지원센터의 확대와 증설, 가족생활동의 확대와 증설, 수유시설 마련이 요구되었다.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남성중심의 획일적 문화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책반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육 및 경력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여성 대학원생의 커리어추적과제는 별도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취업정보 제공과 지원은 학부와 대학원생 구분 없이 경력개발센터에서 채용공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원생의 학문발전 연구는 교육 관련 부분에서 다루어진 「서울대 대학원 교육실태 분석」이나 연구 관련 부분에서 다루어진 「서울대학교 연구국제화 현황 및 지원방안」이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학생의 커리어 추적연구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의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별 학문후속세대 사업’ (2019년~)을 신규로 추진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성 대

학원생을 위한 별도 교내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로 교내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처에서 설명하였다. 장학금은 기혼대학원생의 경우 가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악학생생활관에 199 가구, 연건학생생활관에 17 가구, 상록생활관에 24 가구가 입주하여 있다. 관악캠퍼스에는 BK생활동은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391 세대 호실이 리모델링 실시 중이다. 기혼 대학원생을 위한 가족생활동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족생활동의 확대는 공간이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육지원센터는 현재 학생 부모 비율을 55%로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학생 부모 비율이 40-45% 이며, 입소 비율에 맞추어 학생부모가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학생부모 비율의 감소는 학생부모 지원자의 감소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유수유 시설은 교내에 19개 (관악 15개, 연건 3개, 평창 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식과 관련하여 남성중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가장 어렵고, 장기적인 비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정 실행부서를 정할 수 없는 제언이며, 구체적인 방법의 부족으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평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여성 대학원생 관련 정책의 반영 시 특수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타당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 구성원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V.7. 인권 부분 요약 및 제언

인권관련 실태조사 연구는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조사」, 2018년 「대학원생 조교 제도 문제에 대한 연구」, 2019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학원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에서 검토 정리되었다. 실제적으로 인권규범과 지침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최근 (2019-2020년)에 수행되었으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인권규범의 제정, 인권헌장의 학내 규범화, 안권헌장의 해석지침과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개발, 인권이행의 책임주체 구체화 및 구체적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 개발,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의 제시가 주요 결과 및 제언사항 이었다.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기에 정책제언 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부분반영이 되었거나 미반영인 정책제언에 대한 반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특히, 『대학원생 인권보호 지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이 제안되어 대학원생을 위한 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안)」에서는 대학원생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대학원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1) 학업과 연구 환경과 관련하여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양질의 교육 및 지도, 지도교수 변경, 연구·창작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 공정한 평가와 심사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학업

및 연구 환경 보장, 학업·연구와 가족생활 병행 존중과 지원, 대학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적절한 연구 및 업무 조건과 관련하여 조교 및 연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장, 교수의 개별 활동 등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적절한 처우 보장, 3) 상호 존중하는 포용적 대학원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차별금지와 평등, 인격권 보장, 부당한 지시 금지와 사생활 존중,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 관련 정책의 반영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정책 제언의 반영 시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대학 내에서 특정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인권지침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의 인권 또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권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행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VI. 정책과제 제안내용의 반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내 정책에 반영되고, 반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 정책과제의 관리 시스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의 제언은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한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내용으로 구분하여 집행부와 실행부서에서 반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된 정책 내용 중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 정책과제의 반영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의 반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정책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담당기관이나 실행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제안된 정책과제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환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세부 정책제안들에 대한 수요자(여기서는 대학원생)의 니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선호도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행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를 통해 정책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책과제에서 제안되어 반영되거나 개선된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개선된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